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6-01
수탁보고 2016-02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6-16-01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최은영 부연구위원 김나영 부연구위원 김혜진 연구원 임준범 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경미 팀장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문원자 원장	
협력 연구기관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국문요약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의 과정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부모와 자녀에게 소중한 가치 있는 과정임을 되새기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어 이 시기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육아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를 중심으로 정책과 수요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행복 육아문화를 정착하고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지원에의 요구 및 관련 정책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안내와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영유아기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고찰하였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로 시행 중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을 조사하여, 부모 상황별, 자녀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0~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실태, 육아에의 인식과 책임,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부모, 지역규모,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시간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다 심화하여 정책수요자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어려움, 지원 정책 이용 및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담았다. FGI는 지역별(대도시/농어촌) 집단, 자녀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특히 출산 전 어머니와 취업모, 양육참여 경험부 집단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그 이면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5장에서는 정책수요자 필요에 적합한 정책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지원 정책과 정책수요자 간의 소통 및 홍보방안을 구성하여 실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책수요자와의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 2종(VCR 1 ‘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 VCR 2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을 개발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육아지원 정책을 알리고자 하였다. 앞서 2장에서 고찰한 영유아기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담은 '정부 육아지원 안내'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 4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을 순회하는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를 개최하여, 총 650여명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지역 콘서트는 EBS 1TV 방송에서 5월 31일 50분간 전국 방영되기도 하였다.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면적인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육아 정보 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가정 내 양육지원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 제도의 활성화, 아이돌보미 사업, 시간제보육 사업 등 육아쉽표를 제공해주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회와 더불어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영유아 가족이 함께 즐길 공간 및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육아지원 제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정책수요자 눈높이에서의 안내가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획한 육아콘서트와 같은 정책수요자와 정책 간의 소통의 기회가 정례화되어 정부와 지역사회, 부모가 더불어 협력하는 육아문화를 정착되길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on developing multiple child care policies in order to overcome its low birthrate. Thus,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ational budget has been allocated to such schemes. Accordingly, an examination of the parental awar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is both timely and necessary. Although parenting during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s often exceptionally strenuous, encouraging parents to recognize it as a valuable experience for both the parents and the child, and instilling confidence into the parents are critical in promoting a healthy culture in child care practices to ensure a sound and happy childhood.

Hence, the current study intends to promot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demanders and providers of child care policies by firstly, understanding the policy demands and usages of parents during their child's infancy and early childhood; secondly, inquiring parents' requests for revisions of current policies to understand and meet demander specific needs.

First of all, current child care policie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e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demanders, a survey of the current policies from affiliated government departments was conducted. Thes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arenting circumstances and the ages of the children.

In the third chapter, analyses of the parenting conditions, the perspec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ing, the usage of current child care policies, demands for child care support of parents with children from ages 0 to 5 are reported.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for the parents, residential area, ages of the child, working status of the parents, child care service usage, family income, parenting time, etc.

Chapter 4 presents a report on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at the parents experience during parenting such as satisfaction or hardship; and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FGI) which were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more specific policy demands of the parents. FGIs were conducted in groups of similar residential areas and by the ages of the children. Additional interviews of expecting and working mothers, as well as fathers with child care experiences were held

These analyses of the parents' demands were applied into developing a more family-friendly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policy makers. Two promotional videos (VCR 1: 'The Birth of a Child, The Birth of a Mother'; VCR 2: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 difference in the Day of a Stay-at-Home Mother') were developed to publicize child care policies. A brochure, "A Government's Guide to Child Care Polic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the status of current policies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Lastly, a talk concert tour ('Confidence Boosting Happy Parenting Talk Concert: I Am a New Norn Mother') was held in four cities (Seoul, Busan, Incheon, and Gwangju) for around 650 paren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to provide an arena for communications. The 50 minute Seoul concert was aired on EBS 1TV on May 31st nation wide.

In the sixth chapter, concrete plans to promote demander based child care culture are suggested. Specifically,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multi-directional parental training to empower parents and diversifying the provis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re emphasized. Also, developing measur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fathers in child care, providing networks to relieve social isolation from parenting, improving child care services to allow breaks from child care, and active promotions of these support systems are necessary to ensure a healthy home for both the parents and children.

To establish a sound culture for child care with the support of the society organizing and promoting a community based network and providing opportunities and space that families can utilize and enjoy are required.

Also,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 family-friendly approach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Lastly, the parents will need a constant arena to communicate the needs of the parents such as the talk concert.

차 례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선행연구	14
II. 육아지원 정책 현황	18
1. 육아지원 정책 분류 기준의 설정	18
2. 정책부문별 지원	19
3. 영유아 연령별 지원	55
4. 소결	57
III. 정책수요자의 육아 실태 및 인식	58
1. 영유아 부모의 육아 실태	58
2.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72
3.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77
4.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80
5. 소결	84
IV. 정책수요자 특성별 육아인식 및 경험 분석	88
1. 자녀 연령별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88
2. 부모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육아 지원 요구	112
3. 소결	125
V.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 추진 내용	127
1.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 기본 방향	127
2.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 개발	128
3.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개발	130
4.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 개최	133

VI.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143
1.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143
2.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145
참고문헌	153
부록	157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지	159
부록 2. 부모 대상 심층면담자 특성 및 질문지	171

표 차례

〈표 I-3- 1〉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5
〈표 I-3- 2〉 응답자 특성	6
〈표 I-3- 3〉 심층면담자 구성	8
〈표 I-3- 4〉 심층면담 질의내용	8
〈표 I-3- 5〉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 일정 개요	11
〈표 II-2- 1〉 보육·교육비용 정책 내용	21
〈표 II-2- 2〉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내용	25
〈표 II-2- 3〉 건강관련 비용 정책 내용	31
〈표 II-2- 4〉 가구특성별 지원 정책 내용	39
〈표 II-2- 5〉 기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내용	44
〈표 II-2- 6〉 서비스 지원 정책 내용	47
〈표 II-2- 7〉 돌봄시간 지원 정책 내용	49
〈표 II-2- 8〉 거점 센터 중심 지원서비스 내용	52
〈표 II-3- 1〉 영유아 연령별 지원 정책	56
〈표 III-1- 1〉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	59
〈표 III-1- 2〉 자녀를 돌보는 데 보내는 시간(평일, 하루 평균)	60
〈표 III-1- 3〉 아버지 양육 참여 비율	61
〈표 III-1- 4〉 어머니 양육 참여 비율	61
〈표 III-1- 5〉 대리양육자(또는 기관)	62
〈표 III-1- 6〉 현재 이용 기관	63
〈표 III-1- 7〉 기관 이용 시작 적절 시기	64
〈표 III-1- 8〉 실제 기관이용 시작 시기	65
〈표 III-1- 9〉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66
〈표 III-1-10〉 자녀양육과의 외출 시 가장 큰 어려움	67
〈표 III-1-11〉 최소 필요 휴식시간(하루 평균)	68
〈표 III-1-12〉 자녀양육 시 필요한 육아정보	69
〈표 III-1-13〉 육아정보를 주로 받는 곳	71
〈표 III-1-14〉 가장 유용한 육아정보 제공처	72
〈표 III-2- 1〉 육아의 주관적 인식	73

〈표 III-2- 2〉 육아에의 부담	75
〈표 III-2- 3〉 경제적으로 환산한 육아의 가치(월 평균)	76
〈표 III-2- 4〉 육아의 책임 주체	77
〈표 III-3- 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78
〈표 III-3- 2〉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 및 이용 만족도	80
〈표 III-4- 1〉 가장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	81
〈표 III-4- 2〉 기관 미이용 부모들을 위한 우선 제공 육아지원 정책	82
〈표 III-4- 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선 제공 육아지원 정책	83
〈표 V-4- 1〉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 일정	134
〈표 V-4- 2〉 육아콘서트 구성	136
〈표 V-4- 3〉 육아콘서트 언론보도 목록	141

그림 차례

[그림 I-3- 1] 협동연구 참여 기관 및 역할	12
[그림 V-1- 1]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의 기본 방향	127
[그림 V-2- 1] 육아지원 정책 홍보 인트로 동영상: 탄생의 기쁨	128
[그림 V-2- 2] 육아지원 정책 홍보 인트로 동영상: 독박육아의 어려움 ...	129
[그림 V-2- 3] 육아지원 정책 홍보 아웃트로 동영상: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 으로 달라진 하루 1	129
[그림 V-2- 4] 육아지원 정책 홍보 아웃트로 동영상: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 으로 달라진 하루 2	130
[그림 V-3- 1]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표지	132
[그림 V-3- 2]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정책분류 기준 구별지	132
[그림 V-3- 3]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본문 일부	133
[그림 V-4 1] 육아콘서트 홍보물: 옥외 대형현수막 시안	134
[그림 V-4 2] 육아콘서트 홍보물: 옥외 대형현수막 실제 모습	135
[그림 V-4 3] 육아콘서트 홍보물: 포스터 2종	135
[그림 V-4 4] 육아콘서트 현장: 서울지역 콘서트	137
[그림 V-4 5] 육아콘서트 현장: 경상·부산지역 콘서트	138
[그림 V-4 6] 육아콘서트 현장: 경기·인천지역 콘서트	138
[그림 V-4 7] 육아콘서트 현장: 전라·광주지역 콘서트	139
[그림 V-4 8] 육아콘서트 언론보도 예시: 중앙일보(2016.05.02.) A6면 ...	140
[그림 V-4 9] 육아콘서트 언론보도 예시: IBN 뉴스(2016.05.13.)	141
[그림 V-4-10] 육아콘서트 EBS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반응	142
[그림 VI-1- 1]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육아문화 형성 개념도	144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아이를 기르는 것, 육아(育兒)의 과정이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행복과 가치는 간과되고, 육아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부각되고 있다. 육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면적인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지원에 힘입어 영유아 부모가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만하게 행복을 누리는 육아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시점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고령사회 완화, 성장 동력 육성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6년 현재 제3차 계획(2016~2020)¹⁾이 추진 중이다. 이렇듯 정부의 범부처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육아지원 정책은 과히 괄목할 만큼 확대되었다. 육아지원 정책은 가정 양육 지원과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 양육 지원의 경우는 2009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그 지원 대상을 넓혀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교육·보육서비스 미이용아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지원²⁾하고 있다. 양육 수당 이외의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과 함께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육아 휴직급여도 2011년부터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어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된 전달 체계와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브릿지 플랜 2020'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2) 양육수당은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출생 후 12개월까지는 20만원, 13개월~24개월은 15만원, 25개월 이상 만 5세까지 10만원이 매월 부모에게 지급된다.

수준을 제고하고, 재원 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점 제공을 목표로 유보통합이 준비되고 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출산 축하금 지원, 건강검진 제공,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인력지원, 유기농 급식지원 등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확대되는 육아지원 정책의 실행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어,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의 지원에 대한 체감 정도는 높지 않다. 이에 정부는 교육·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0~2세 영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 중이다. 정책 효율성 제고는 정책 개편이라는 적극적 노력과 병행하여 마련된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활용도 증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려 한다. 즉, 육아지원 정책이 다양화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실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신만만하게 행복을 누리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부모가 이용 가능한 지원정책의 내용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포함하는 범부처의 육아지원 정책은 소관 부처별로 정책 안내가 이루어져 영유아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부모가 알기 쉽게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육아지원 필요 내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이나 정책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부모에게 정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육아’를 중심으로 정책과 수요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자신만만한 행복육아 문화를 정착하고자, 육아지원 정책수요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에의 요구 및 관련 정책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안내와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문화, 정책 지원에 힘입은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영유아기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간략하게 고찰한다.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로 시행 중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보육’, ‘유아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부모 상황별, 자녀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안내서를 구성하였다.

둘째, 정책수요자의 관련 정책 인식 및 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관련 인식, 육아 어려움, 정책인지, 이용 정도, 만족 정도, 육아지원 관련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정책수요자인 영유아 부모 중심의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안내와 홍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영유아기 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 부분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정책수요자 특성별로 육아지원 요구를 구체화한다. 먼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육아의 양상과 어려움, 요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경우, 임신부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구체화하였다.

넷째, 정책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에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육아지원 정책과 정책수요자 간의 소통 및 홍보 방안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먼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과 앞서 구성한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정책수요자인 부모와 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소통하기 위한 육아콘서트를 기획·구성하였다. 이는 실제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육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통의 장을 의미한다.

다섯째,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문화,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책수요자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다. 연구내용을 토대로 면대면 소통과 지역 내 지원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홍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지원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의 효과적인 안내와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가. 문헌연구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과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육아문화’, ‘육아지원’, ‘육아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육아 지원정책을 구분한 기준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 정책 구분의 기준 설정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았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현재 실시하는 육아지원 정책 관련 온라인 자료와 오프라인 자료를 수집하여 영유아의 연령별로, 정책 내용별로 정리하였다.

나. 설문조사

1) 조사방법

2015년 2월 중(2016. 2. 5 ~ 2016. 2. 17) 전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0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전국 규모로 영유아(0~5세)의 수를 중심으로 지역규모별 비례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이를 통해 육아 실태 및 인식,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자료를 확보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설문문항의 구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육아정보 활용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주제에 따라 설문의 형태가 다르며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3-1〉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조사내용
배경문항	자녀유무 대상 자녀의 적절성(만0~5세 자녀유무) 취학전 자녀수/ 개월수 거주지역
I.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기관이용 여부 및 이용기관의 종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의 이전 기관 경험 유무 기관이용 적절성(나이) 최초 기관이용 나이 주양육자 자녀 돌봄 시간(하루 평균) 부모 양육참여 비율 긴급대리양육 필요시 도움받는 사람 또는 이용기관 자녀양육에 대한 행복감/가치/자신감 자녀양육에 대한 육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감 자녀양육 시 어려운 점 아이와 외출 시 어려운 점 휴식시간의 필요정도 양육의 경제적 가치 육아에 대한 책임소재
II.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가정양육수당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시간차등형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체험원) 공동육아나눔터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III. 육아정보의 활용	가장 필요한 육아정보 육아정보 제공자 육아정보의 유용성

구분	설문조사내용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우선적 육아지원 정책 기관미이용 부모에게 지원해야할 최우선적 육아지원 정책
IV. 영유아 및 가구 특성	응답 대상 자녀 출산 순위 응답 대상 자녀 성별 자녀와의 관계(부/모) 부/모의 연령 부/모의 경제활동 유무 부/모의 중사업종 월평균 가구소득(지난 3개월 기준)

3)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I-3-2>와 같다. 전체 1,203명의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였고, 지역규모를 확인하였을 때, 대도시 40.7%, 중소도시 42.4%, 농촌지역 16.9%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52.4%, 아버지가 47.6%로 응답하였으며, 자녀 성별 또한 남자 48.1%, 여자 51.9%로 균등하게 표집되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녀의 서열은 첫째가 9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자녀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 후반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대 초반이 46.0%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외벌이가 56.0%, 맞벌이가 43.8%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구간이 30.8%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33.7%로 그 뒤를 이었다. 유치원은 14.6%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시간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균등하게 응답이 나왔으나, 가장 높은 응답이 나온 구간은 3시간~6시간미만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하였다.

<표 I-3-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203	100.0	전체	1,203	100.0
지역규모			맞벌이 여부		
대도시	490	40.7	외벌이	673	56.0
중소도시	510	42.4	맞벌이	527	43.8
농촌지역	203	16.9	경제활동 하지 않음	3	0.2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자녀와의 관계			자녀 성별		
아버지	573	47.6	남자	579	48.1
어머니	630	52.4	여자	624	51.9
조사대상 자녀의 서열			월평균 가구소득		
첫째	1,131	94.0	200만원 이하	121	10.1
둘째 이상	72	6.0	200~300만원 이하	371	30.8
조사대상 자녀 연령			300~400만원 이하	291	24.2
만0세	186	15.5	400~500만원 이하	223	18.6
만1세	192	16.0	500만원 초과	197	16.4
만2세	194	16.1	조사대상 자녀 이용기관		
만3세	214	17.8	유치원	175	14.6
만4세	210	17.5	어린이집	589	49.0
만5세	207	17.2	반일제 이상 학원	19	1.5
부 연령			시간제 기타 학원	15	1.2
만30세 미만	33	2.7	이용하지 않음	405	33.7
만30-34세	350	29.1	양육시간		
만35-39세	564	46.9	3시간 미만	227	18.9
만40세 이상	252	20.9	3시간~6시간 미만	336	27.9
부 없음	4	0.3	6시간~9시간 미만	226	18.8
모 연령			9시간~15시간 미만	195	16.2
만30세 미만	116	9.6	15시간 이상	219	18.2
만30-34세	554	46.0			
만35-39세	445	37.0			
만40세 이상	86	7.1			
모 없음	3	0.2			

다. 심층면담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양육과정 내 즐거움과 어려움과 지원 정책 이용 및 요구를 수렴하고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을 위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역 수준(대도시/농어촌) 집단, 자녀 연령 집단, 취업모 및 육아참여 부 대상을 고려한 3명 내외의 부모를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육아 현황과 육아에 대한 인식, 어려움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과 면담의 진행은 영유아 부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협동연구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였다.

1) 면담 대상

심층면담 대상은 총 28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단별로 2~3명으로 구성하였다.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 출산 전 주부, 만 0~1세 영아, 만 2세 영아, 만 3~4세 유아, 만 5세 유아로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객관적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령별 집단을 2개로 구성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취업모 집단과 양육 참여 경험이 있는 아버지 집단도 구성하였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누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대상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1-3-3〉 심층면담자 구성

단위: 명

	전업주부					취업모	양육참여 경험아버지
	출산 전	만0~1세	만2세	만3~4세	만 5세		
대도시	6	6	5	4	6	6	5
농어촌	6	5	6	6	5	6	5

2) 질의 내용

심층면담의 질의 내용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서, 설문조사 문항에서 응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심층면담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3-4〉 심층면담 질의내용

질문영역	질의내용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하루 평균)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견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주로 도움 받는 사람 자녀양육에서 오는 행복감, 이유 자녀양육의 가치, 이유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이유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감, 이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이유 자녀양육 일에 대한 경제적 노동가치로의 환산
육아에 대한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영유아와 동반 외출 시 경험하는 어려움

질문영역	질의내용
	주양육자의 양육 쉽표를 위한 잠시 돌봄 제공에 대한 의견 Refreshment 기능을 할 대리 보육에 대한 의견
자녀의 기관 이용	바람직한 시작 시점과 그 이유 실제 이용 시작시기 기관 선택 시 기준
육아정보	필요로 하는 육아정보의 종류 육아정보의 주 제공처 육아정보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 여부
육아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경험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 육아정책 중 경험한 정책 가장 유용하게 느껴진 정책 현재 양육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아버지 대상 추가질문	양육 참여 정도 육아 시 담당역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법 육아휴직 사용의 가능 여부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
취업모 대상 추가질문	양육 참여 정도 육아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취업모 기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인지 여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관련 제도 이용 경험 지원하는 제도 중 추가 지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
출산전 어머니 대상 추가질문	임신기간 중 어려웠던 일(건강, 경제적 문제 등) 임신/출산 관련 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부모됨의 준비과정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예 비부모교육 수료, 관련 서적 탐독 등) 출산 후, 육아 상황을 가정할 때, 가장 걱정 되는 부분

라.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 개발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 홍보 동영상 2종을 협동연구기관인 EBS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인트로 동영상(VCR 1)으로 사용가능한 ‘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은 한 가정에서 겪는 육아의 어려움을 담고 있으며, 아웃트로 동영상(VCR 2)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는 인트로 동영상의 주인공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알게 됨으로써 변화된 일상에 관한 이야기이다. 본 동영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향후 각종 부모교육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마.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구성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 정책수요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높이고자 종합적인 안내서를 기획·개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안내서를 육아콘서트 참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토크콘서트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향후 갱신되는 정책들에 대한 침삭과 수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 안내서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안내서는 육아지원 정책을 정책부문별, 영유아 연령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정책부문별 분류에서는 정책을 다시 1) 비용지원, 2) 서비스지원, 3) 돌봄시간지원, 4) 기타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영유아 연령별 분류에서는 영유아의 연(월)령을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바. 전국 순회 육아콘서트 개최

1) 육아콘서트 기획

육아지원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젊은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대면 의견 수렴에 효과적인 토크콘서트의 방식을 통해 육아지원 정책을 홍보하고자 한다. 이에 전국 4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경상·부산, 전라·광주)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육아정책 수요자와 정책 실행자 간 소통의 장으로 육아콘서트를 개최하였다.

2) 육아콘서트 개최 개요

전국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기획된 육아콘서트는 2016년 4월 말 서울콘서트를 시작으로 5월 한 달 간 경상·부산, 경기·인천, 전라·광주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지역 콘서트는 EBS 방송으로도 제작되어, 5월 31일 EBS 1TV에서 12:45~13:35에 50분간 전국 방영되었다. 파급력이 높은 EBS 방송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 부모 소통을 통해 더불어 협력하는 육아문화 형성 분위기 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육아콘서트는 관객으로 온 양육자를 대상으로 육아 고충 등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 행사에서는 앞서 제작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 VCR 1(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 독박육아, 전투육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육아고민을 선배육아맘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키워드 토크,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 VCR 2(육아정책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 육아정책 관련 토크 순서로 구성하였다.

〈표 1-3-5〉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 일정 개요

구분	일시	장소	주관
서울콘서트	16.04.30(토), 15:00-19:00	EBS 본관 스페이스홀	육아정책연구소/EBS (협력: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
경상·부산 콘서트	16.05.17(화), 11:00-12:30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육아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경기·인천 콘서트	16.05.19(목), 11:00-12:30	틈 문화창작지대	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광주 콘서트	16.05.31(화), 11:00-12:30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최종적으로 전국 650여명의 양육자가 콘서트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이후에도 EBS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서울지역 콘서트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 협동연구 추진

‘육아’를 중심으로 정책과 수요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자신만만한 행복육아 문화를 정착하고자, 국가정책연구소, 교육중심 방송사, 부모대상 지원 사업 주관기관 등 협동연구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 역량 결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 협동하여 추진하였다.

1)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

가) 연구 기획 및 주관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 ‘양육’이 부담으로만 부각되고, 어려움으로만 여겨지는 육아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원 정책의 홍보를 통한 정책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임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였고 전반적인 연구를 주관하였다.



[그림 1-3-1] 협동연구 참여 기관 및 역할

나)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어려움 및 지원 요구 수렴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의 결과 분석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지원 요구를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육아콘서트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려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 육아지원 정책 분석 및 정책 안내서 개발

부모에게 전달할 홍보의 주요 내용이 되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지원 정책을 영유아 연령별, 지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를 소책자 형태로 구성하여 출간하였다. 정책 안내서는 육아콘서트 현장에서 참여 부모에게 제공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서도 배부되었다.

라) 육아콘서트 개최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들의 소통의 장(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토크 형식의 콘서트를 기획·개최하였다. 연구진은 협동연구진과 더불어 육아콘서트를 2016년 4월 30일~5월 31일 사이 전국 4개 권역(서울, 경상·부산, 경기·인천, 전라·광주)에서 개최하였다.

마) 육아지원 정책 홍보 방안 구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담스럽기만 한 육아가 아닌, 행복하고 자신만만한 육아로 여겨질 수 있는 육아문화 마련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2)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역할

가) 육아콘서트 시 도입 및 정책 홍보 동영상 개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양육의 어려움과 그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전달하기 위해 2종의 동영상을 개발하였다. 그 하나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다른 하나는 육아지원 정책을 이용함으로써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개발한 동영상은 4차례의 육아콘서트 시 활용하였고,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EBS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나) 서울지역 콘서트 장소 제공 및 진행

영유아기 부모의 소통의 장으로 기획한 총 4차의 육아콘서트 중 1차 서울지역 콘서트를 2016년 4월 30일 EBS 스페이스홀에서 진행하였다. EBS가 지닌 전문성을 토대로 영유아 부모와의 토크 형식의 육아콘서트를 기획하고 출연진을 섭외하였다.

다) 교육방송(EBS 1TV)을 통한 육아콘서트 방영

EBS 스페이스홀에서 진행한 서울지역의 육아콘서트를 녹화하고 50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2016년 5월 31일 12시 45분부터 13시 35분까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종의 동영상과 더불어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 EBS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가) 정책수요자 부모 대상 의견수렴 과정 협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체로 영유아기 부모 대상 확보가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녔다. 이에 부모 대상 심층면담 또는 Focus Group Interview 실시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수요자의 지원 요구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지원하였다.

나) 홍보 방안 마련 과정의 협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은 각 지역별 육아지원 정책 현황을 수렴하여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관련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우수사업 사례를 발굴하였다. 이는 육아콘서트 시 대표 지자체 특색 정책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반영 되었다.

다) 소통의 장(場) 마련 시 협력

육아콘서트에 대한 홍보와 진행 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육아콘서트 진행을 지원하였다. 시청, 교육청 등 전달체계와의 사업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필요한 협력을 도출하였고 육아콘서트 시 참석요청, 육아콘서트 개최 장소 마련에 기여하였다. 특히 육아콘서트 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영유아 부모 참석 인원 확보에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4. 선행연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육아지원 정책이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해 영유아기 자녀양육,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부모에게 제공할 정책 안내서의 구성 시 필수적인 육아지원 정책의 유형화를 위해 선행연구의 관련 부분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육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조사 내용 구성 시 참고자료로 삼고자하였다.

가. 육아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향

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2013)은 다면적으로 확대되는 정부의 저출산 극

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출산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는 경제적 부담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추진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보편 확대되고 있는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제도에 초점을 두어 정부의 정책 목적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는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수당 도입과 바우처 사업에 의한 영유아 가구의 현금지원액 증가 경향을 확인하면서 소득공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조세감면 지원 정책이 수요자에게 체감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지원 정책들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신윤정 외, 2013. p 5), 정책 효과성 향상을 위해 소득수준을 반영한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부모와 자녀를 육아지원 정책의 수요자로 고려하고 정책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미화 외, 2011)도 이루어졌다. 연구는 자녀돌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의 정책이 육아지원기관 위주로, 경제적 지원 위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음을 지적하였고, 다양한 가족 형태 및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므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어 그 해소를 위한 정책 보완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자녀양육 지원 내용을 종합하여 대상에 따라 정리하고, 영아부터 취학 아동에 이르는 자녀 연령대 별로 양육지원 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자녀발달 단계별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는 자녀양육, 육아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제공자와 수요자라는 입장을 구체화하고, 내용과 수요자의 요구 사이의 합치점을 모색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였다.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육아지원 정책의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고 그 입장 차이를 줄이고자 한 점과 학교, 기관, 가정, 지역사회, 직장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부처별 제공 서비스 내용을 정리한 표가 육아지원 정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저출산 대응 사례로 가족과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 정책을 고찰한 고선주(2012)는 저소득층 위주의 이용에 치중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정책설계의 변화가 필요함과 남성,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육지원과 일·가정양립 지원 등의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임(고선주, 2012. p. 53)을 강조하였다. 연구는 이런 사

회적 변화를 위해 아버지 교육의 확대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등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들(고선주, 2012; 신운정 외, 2013; 이미화 외, 2011)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육아지원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육아지원 정책 유형화

본 연구에서 숙고하고자 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내용 정리 과정은 기존의 설정이 쉽지 않았다.

신운정 외(2013)는 OECD 자료(2011)³⁾에 기초하여 자녀양육 지원 정책을 현금지원 정책(in-cash), 현물지원 정책(in-kind), 휴가 정책(in-time)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신운정 외, 2013. p. 20), 국내 조세감면 제도, 현금수당 제도,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육아휴직 지원 정책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내용으로 검토하는 지원 정책 유형화 과정을 위한 분류기준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연구(신운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 2007)에서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는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의 경감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직접적 양육 비용의 경감(아동수당, 양육수당, 세제 혜택, 소득공제)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성휴가) 등으로 양분하였다.

지원 정책의 국제 비교연구인 김은지(2009)의 연구는 OECD 국가 간의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좌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정책의 국가간 비교가 쉽지 않은 원인으로 정책분류와 범주가 다양함을 지적하였다. 즉 권리라는 측면에서 노동권(보육)과 부모권(부모휴가)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도 하고(김나연, 2013; 윤홍식, 2006), 노동역할지원(출산휴가, 0-2세 보육)과 모성역할지원(가족수당, 3-5세 보육)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김수정, 2004). 이렇듯 다면적 특성을 지니는 육아지원 정책을 김은지(2009)는 노동지원 정책(출산 및 육아휴직, 0-2세 보육, 남성의 육아휴직)과 양육지원 정책(양육휴가, 양육수당, 3-5세 보육)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 육아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양민석·안현미·서영주·임양미·윤상미,

3)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2)에서는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의 매트릭스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정책을 기관 보육제공과 가정 내 양육지원으로 양분하고 그 하위 범주로 서비스 지원, 현금 지원, 거점센터 통한 지원, 건강서비스 지원을 재 구분하여 육아지원 정책을 도식화하였다.

이렇듯 영유아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의 구분은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자의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는 김은지(2009)가 강조하였듯이 이들 정책의 다차원적 속성과 다면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김은지, 2009. p. 75)으로 이해된다.

다. 육아 및 육아지원 관련 실태 조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현황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다룬 조사들도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이후 매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다면적인 정책을 실행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식 및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효율적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에는 온라인조사, 2007년, 2008년은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2011년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CAPI)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 고령화에 문제에 대한 인식, 자녀관 및 사회 분위기, 노후관 및 노후 대비,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 인지도 및 중요도, 저출산 고령화 관련 홍보 정책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진행되는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부분(서문희 외, 2012)에서도 영유아 부모의 육아 및 육아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많이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조사에는 영유아 양육특성,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이용과 요구, 개인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학원 및 개별교육 이용, 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 규모 실태조사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현황과 요구를 구체화시킴으로써 향후 정책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I. 육아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개인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이고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각 부처별 문의처나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상이한 통로로 안내되고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을 정책부문별, 영유아 연(월)령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육아지원 정책 분류 기준의 설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 중심으로 현행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정적으로 혹은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관련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현행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육아지원 정책을 종합·정리하였다. 이는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정부가 육아지원 정책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책을 종합·정리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행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부문별로 1) 비용지원, 2) 서비스지원, 3) 돌봄시간지원, 그리고 4)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첫째, 비용지원 부문에는 교육·보육료, 서비스 이용비용, 수당 등을 개별 가구에 제공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둘째, 서비스 지원 부문에는 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셋째, 돌봄시간 지원 부문에는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들 세 부문에 속하지 않는 정책들은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수요자들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영유아의 현재 연(월)령에 이용 가능한 정책들을 바로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가장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월)령별로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 8세, 10세, 12

세로 정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연(월)령 기준으로 나눈 정책 자료는 소득 및 재산 차등 지원 여부의 기준이 있는 정책으로 재분류하여 가독성 높은 그래프로 정리함으로써 정책수요자들에게 연(월)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른 정책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였다.

2. 정책부문별 지원

본 절에서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을 1) 비용지원, 2) 서비스지원, 3) 돌봄시 간지원, 그리고 4)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비용지원

1) 보육·교육비용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취학 전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가정은 대상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그리고 24~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가정 내 양육을 돕기 위하여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7만7천원, 24~36개월 미만은 15만6천원, 36~48개월 미만은 12만9천원, 그리고 48~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해당 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에 대하여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 영아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후 만 3~5세 유아가 국·공·사립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각 가정은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은 만 0세 영아의 경우 41만8천원, 만 1세 36만8천원, 만 2세 30만4천원, 그리고 만 3~5세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의 양육을 돕기 위한 보육료 지원 정책이다. 보육시간은 기준시간을 초과한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매월 60시간으로 한정한다. 지원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일반아동) 3천원, (장애아동) 4천원으로 한도액은 (일반아동) 180천원, (장애아동) 240천원이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의 법령상 명칭은 '일시보육'이지만, 2014년 이후 '시간제보육' 혹은 '시간차등형 보육'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유아 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만 6~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36개월 이상~만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반의 경우, 일부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운영 지속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 취업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벌이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기본형의 경우, 월 40시간에 대하여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천원(시간당) 중에서 2천원(시간당)을 지원한다. 맞벌이형의 경우, 월 80시간에 대하여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 4천원(시간당) 중에서 3천원(시간당)을 지원한다.

〈표 II -2-1〉 보육·교육비용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 기준 만 0~84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가정 양육 아동	○ 지원내용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급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77,000원 지급 ·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56,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29,000원 지급 · 48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0,000원 지급
보육·교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제외	○ 지원내용 -만 0세아: 418,000원 -만 1세아: 368,000원 -만 2세아: 304,000원 ○ 지원기준 -무상보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만 3~5세 누리과정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 -취학대상 아동(2008년 출생)이 취학을	○ 지원내용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를 신청일 기준으로 220,000원 지원 ○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시간연장형 보육료</p>	<p>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하여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아 무 상교육비 지원</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취학 전)를 지원하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법정지소득층 취학아 동과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 야간보육료: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 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 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은 물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게 지원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p>○ 지원내용</p> <p>- 시간연장형 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지원 한도액: 60시간, 시간연장보육 이용시간을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월 단 위 합산 후, 분 단위 절삭) · 보육시간: 기준시간 초과한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아동 시간당 2,800원 지원(지원한도액: 168,000원, 지원율: 기준액×100%) / 장애아동: 시간당 3,800원 지원 (지원한도액: 228,000원, 지원율: 기준액×100%)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p>- 야간 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 보육시간: 19:30~익일 07:30 · 지원단가: 만 0세 406,000원/만 1세 357,000원/만 2세 295,000원/만 3세 이상 220,000원 <p>- 24시간 보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 · 보육시간: 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동시 이용 · 지원단가: 0세 609,000원/만 1세 535,500원/만 2세 442,500원/만 3세 이상 330,000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	○ 지원대상 -종일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만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내용 -기본형(월 40시간):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 -맞벌이형(월 80시간):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www.mw.go.kr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2)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활동이나 다자녀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해당 정책은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하다. 해당 정책은 크게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어 지원된다. 시간제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간제와 종합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 시간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시간제의 경우, 부모의 귀가시간까지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식사·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학교·학원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단, 가사활동 제외)이며, 종합형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청소기 청소(1회)·결레질 하기, 아동 식사·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이다. 종일제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가구의 만 3개월 ~ 24개월 이하 영아를 지원하며,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영양, 건강, 위생, 교육 등)의 서비스이며, 보육교사형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활동계획에 따른 영아표준 돌봄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등이다.

〈표 11-2-2〉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이 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소득활동, 다자녀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정부지원 및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 취업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한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 돌봄 - 그 외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임원 등의 질병 중일 때 · 부 또는 모가 재학 중이거나 입증 가능한 취업 학원을 수강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 지원 금액 다름 -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부모 부담 (시간당 6,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 아동의 연령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 고려 차등 지원 -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과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 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시간제	공통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지원대상 및 선정기준</p> <p>-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p>	<p>부직원 불가</p> <p>○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휴원 등 미운영, 아동질병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문서 확인 후 지원 가능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종합형 서비스 이용 시, 동일시간에 한 아동은 종합형, 다른 아동은 시간제 돌봄(일반형) 별도 신청 불가
시간제	<p>○ 상세 지원기준(시간당 6,500원)</p> <p>-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p> <p>-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875원, 본인부담 1,625원)</p> <p>-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2,925원, 본인부담 3,575원)</p> <p>-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1,625원, 본인부담 4,875원)</p> <p>-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p> <p>-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p> <p>-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225원, 본인부담 2,275원)</p> <p>-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p>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단, 가사활동 제외)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합제 업무 병행) -이용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6,500원(야간, 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연 480시간 지원/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인부담 6,50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6,500원)</p>	<p>○ 지원내용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청소기 청소(1회)·결레질 하기, 아동 식사·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이용요금 · 시간당 8,450원(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시간제서비스(일반형) 시간 지원한도 내에서 차감</p>
종합형	<p>○ 상세 지원기준(시간당 8,450원)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875원, 본인부담 3,525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2,925원, 본인부담 5,475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1,625원, 본인부담 6,775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4,225원, 본인부담 4,175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p>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인부담 8,400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8,400원)	
	○ 지원대상 -정부지원 및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가구의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아동	○ 지원기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동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종일제 또는 보육교사형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중복 불가)
공통 영아 종일제	○ 상세 지원기준(월 200시간 기준, 월 130만원)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91만원, 본인부담 39만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65만원, 본인부담 65만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39만원, 본인부담 91만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30만원)	○ 지원내용 -이유식 먹이기, 칫솔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영양, 건강, 위생,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월 130만원, 시간당 6,500원 ·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월 200시간 지원/1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아동추가 할인율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보육 교사형	○ 상세 지원기준(월 200시간 기준, 월 156만원) ·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지원 91만원, 본	○ 지원내용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활동계획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인부담 65만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정부지원 65만원, 본인부담 91만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정부지원 39만원, 본인부담 117만원) ·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56만원)	에 따른 영아표준 돌봄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월 156만원, 시간당 7,800원 ·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지원/ 1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아동추가 할인을 적용: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 지원대상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 지원내용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으로 질병 완치 시까지 소득수준 상관없이 50%정부 지원 -정부지원시간 차감 없음 ○ 지원기준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시설 이용 확인서(재학 증명서포함)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자료: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idolbom.go.kr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mogef.go.kr

3) 건강관련 비용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의 일반/구강건강 검진을 전액 지원하고,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미숙아는 출생 시 몸무게가 2.5kg 미만의 신생아이거나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이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신생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후 수술을 받은 환아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지원은 의료비용별로 차등지원 된다.

취학 전 아동실명예방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내 가정에서 수술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대하여 안과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은 물론 수술전·후 치료 목적의 안경도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건강관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의 임신부를 지원한다. 특히,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이용권을 단태아 기준으로 10일 지급한다.

〈표 11-2-3〉 건강관련 비용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 2016년 지원대상 백신(16종): BCG(파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2016년 6월 예정) - 2016년 미지원대상 백신: 결핵 경피용, 로타바이러스 등 ○ 추가 지원내용 - 예방접종기록 전산화 통한 효율적 보관관리 -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료발급) -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사전알림서비스(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방접종 안전관리
6세 미만 영유아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 지원내용 - 총 7차의 영유아건강검진(일반/ 구강검진)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이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48시간~7일 이내):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6중에 한해 신생아 전원에게 무료지원 · 선천성대사 이상질환: 페닐케톤노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호모시스틴노증 환아, 단풍당노증 환아, 갈락토스혈증 환아, 기타 선천성 대사이상증 환아를 포함 - 환이관리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 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 검진 항목: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측측(신장·체중·두위),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건강교육 - 일반건강검진주기: 4~6개월/9~12개월/18~24개월/30~36개월/42~48개월/54~60개월/66~71개월 - 구강 건강검진주기: 18~29개월/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검사비용: 본인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0,000원/1인). · 검사항목: 페닐케톤노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노증, 단풍당노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6종 - 2차 정밀검사비용 지원: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1인당 5만원 범위 내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함.
미숙아 및 선천성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p>미만인 신생아로써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p> <p>-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p> <p>○ 선정기준</p> <p>-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p> <p>-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p>	<p>비 중에서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기준</p> <p>-미숙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 전액(100%) ·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 금액의 80% 적용 지원 · 500만원 초과 시 500만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 지원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p>-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p>-금액별 차등지원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②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만원까지는 ①, ②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최고지원금액까지만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뢰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보장 기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3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소득수준 관계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 - 가족 수 산정 방법 ·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 태아 포함 · 주민등록 및 생계와 추가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가족 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경우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의료비 신청시점 기준(최근 월의 납부 확인서) · 연별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 정산 월분으로 평가(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	○ 지원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 ·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10,000원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27,000원 · AOAE와 AABR 동시 실시한 경우 AABR 검사비 27,000원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의 범정 본인부담금 지원(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확진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선별검사인 AABR 또는 AOAE검사 지원 불가 ·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 번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취학전 아동실명예방</p>	<p>어 고지되는 경우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된 경우에는 보험료 합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 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외국 유학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회복 후 신청 <p>-수급증 확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p>	<p>상세내용</p>
<p>취학전 아동실명예방</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시력검사(시력검진사업): 자기표현이 가능한 만 3세~6세 -수술비지원 사업: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 (직장가입자일 경우 차량 소유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자)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시력검사(시력검진사업) · 가정용 시력검사도구 배부: 한국실명예방재단→전국보건소→유치원/어린이집→가정(시력검사 실시)→어린이집에서 취함 2차 검사 대상자 선별→보건소에 통보 · 2차 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이후, 절차에 따라 재검진, 정밀검사 등이 실시됨. -안질환(약시), 저시력 어린이 관리 사업 -약시 치료중인 어린이 교육자료 및 가림치료용 패치배부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의 소득 및 재산 등 고려 선정 · 소득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산산 및 유산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고,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 보호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있는 2촌 이내 직계가족(산모 배우자 등) 신청한 경우도 지원 ·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시 어린이 치료 순응을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배부 · 상담 및 약시 어린이 가림치료용 패치 무료지원(1년 중 6개월) - 저시력 어린이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기구 대여 - 수술비지원 사업: 안과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술전·후 치료목적의 안경 (연 2회, 특수처방안경 10만원, 일반처방안경 5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태아: 10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 20일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언어발달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진단, 언어·듣기능력 재평가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건강검진안내.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건강정보포털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health.mw.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childcare.go.kr
 G-Health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g-health.kr
 아가사랑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agasarang.org

4) 가구특성별 지원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69만 원)이면서 만 1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비용을 바우처 형식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 관련하여서는, 우선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인 복지카드(혹은 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아동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장애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정부는 양육 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으로부터 동법에 의거한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질환 혹은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 (청소년)한부모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2-4〉 가구특성별 지원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만 0~12개월 영아 ○ 선정기준 - 기저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만 1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에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특정질환(치료) 혹은 사망 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 특정질환(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등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구 0~12개월 영아 1인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정액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86,000원 정액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월 150,000원 정액 지원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동에 대해 보육료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38,000원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 438,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장애아동 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휴학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 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20만원), 차상위계층(월 15만원), 보장시설(월 7만원) 지원 - 경증장애인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월 10만원), 차상위 계층(월10만원), 보장시설(월 2만원)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입양아동</p>	<p>지원대상 및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타: 등록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1~6급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적용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없음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20세로서 초·중·고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진공과정도 「초·중·고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등급: 1~6급 장애아동 <p>○ 지원대상</p>	<p>○ 지원내용</p>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임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 「임양특례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의 임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민법에 의한 임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p>-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p>
장애아동 임양 양육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임양특례법상」 상 허가를 받은 임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 임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임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임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임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장애 임양아동: 월 551,000원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장애임양 아동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임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임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 까지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내역(시행령 제7조 2항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 제7조 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가정위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만 0세~18세 아동, 만 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유장애 보험금, 입원·통원 의료비,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상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상해보험료	이상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 포함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중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선정기준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정서 치료 필요아동 - 가정위탁기간 및 입양기간이 1개월 이상인 아동(입양아동의 경우 만 2세~18세) - 추천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한 아동	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과·납치·인질 사건 발생 시 위로금, 강력범죄 시 위로금, 상해로 인한 열골 성형,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배상책임지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비용 지원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4회 이상, 월 20만원 이내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5.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mw.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childcare.go.kr

〈표 II-2-5〉 기타 취약계층 지원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다문화 보육료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 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 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진처 또는 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세아: 418,000원 - 만 1세아: 368,000원 - 만 2세아: 304,000원 - 취학 유예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1회에 한하여 제지원 가능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10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만 18세 미만)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구 ○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아동(만 5세 이하만 해당) 양육비(월 15만 원/인),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인), 자립촉진수당(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월 10만 원) 지원 -전계층 대상 일반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됨.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지원대상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단,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입학료+수업료+교과서대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childcare.go.kr

나. 서비스지원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개인 및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주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표 II-2-6 참조). 아동통합서비스의 경우,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인 영양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교육 확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정부는 제공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및 자녀생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서비스의 경우, 방문지도사와의 1:1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국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 돌봄시간지원

정부는 현물 및 비용,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양육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시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표 II-2-7 참조). 이는 자녀양육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의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단태아 기준,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하는 조건으로 출산전·후 9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근속기간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월 135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3~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3일 미만의 휴가를 요청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3일의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정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 II-2-6〉 서비스 지원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동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p>○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 선정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필수 및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p>-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p> <p>-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p> <p>- 기타서비스</p> <p>-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p>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다문화 방문교육서 비스</p>	<p>○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 녀(만 24세 미만)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임신·신생아가: 임신확인시점~만 12개월 · 유아기: 만 12개월~48개월 · 아동기: 만 48개월~12세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도입국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단, 가족통합센터만 해당) ○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 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재혼 가정 자녀</p>	<p>○ 지원내용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서비스: 방문지도사와 1:1 한국어교육 ·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 가,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p>
<p>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p>	<p>○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지원기준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p>	<p>○ 지원내용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비용 부담 없음</p>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childcare.go.kr
드림스타트사업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dreamstart.go.kr

〈표 II -2-7〉 돌봄시간 지원 정책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모성보호 육아 (출산 전·후 휴가)	○ 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정규/비정규직 무관, 근속기간 무관)	○ 지원내용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 지원기준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태아 · 출산 전·후 90일 사용 가능(단,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이후 30일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월 135만 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 (단,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1,350천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최대 4,050천 원 지원. 또한 근로자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 -다태아 · 출산 전·후 120일 사용 가능(단, 출산 후 60일 이상 배정) · '대규모기업'은 최초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이후 45일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인 경우, 120일 모두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2,055천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 최대 5,400천 원 지원. 또한 근로자 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추가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 사용 가능. (사업주는 최소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함. 단,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유급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p>육아휴직 급여</p>	<p>○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p>	<p>○ 지원내용 -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지원기준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임가가 육아휴직 사용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을 지원 (단,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 기준 적용) - 육아휴직기간 중 퇴사 및 이직할 경우: 그 전일까지 지급</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p>	<p>○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기간과 합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p>	<p>○ 지원내용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15~30시간 근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의 두 제도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6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60%: 150만원 상한</p>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childcare.go.kr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http://www.moel.go.kr>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일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도 중 하나를 택하고 두 제도 이용기간의 합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 거점 센터 중심 지원

위에서 언급된 정책들 외에도 다양한 육아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부모들은 자녀양육 관련 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및 도서대여, 가족돌봄나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북도 고창군과 같은 군단위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어 부모들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 기관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구(區) 단위로 운영되고 많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등과 같이 지방의 시(市) 단위 지역에서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 II-2-8〉 거점 센터 중심 지원서비스 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 공통	○ 지원내용 -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19개소)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69개소) 개설 및 운영 ○ 사업내용 - 공통: 부모상담·부모교육·양육관련 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자체: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제공, 부모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그 밖에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 지원대상 - 관내의 영유아가 있는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및 자녀 맞춤형 부모교육	○ 지원내용 - 클로버 부모교육: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및 역할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 부모대상 1회기/2회기(소중한 나, 멋진 아이, 공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부모/자녀대상(체험) 영아편 6회기/유아편 10회기(공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자녀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하는 부모교육
	○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영유아 가족 맞춤형 양육 서비스	○ 지원내용 - 장난감·도서대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다양한 놀잇감 및 활동 공간, 놀이체험 프로그램 제공, 장난감·도서·육아용품 대여지원, 영유아 놀이 및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부모·자녀의 긍정적 놀이 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콘텐츠 개발: 가정에서 자녀의 놀이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부모 스스로 적합한 놀이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자녀양육상담(온라인상담) 및 아이사랑플래너 상담(영유아 문제행동, 가정 내 문제, 양육스트레스 관한 대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가족 돌봄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가족 봉사단: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내용을 ‘돌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 모두 가족 품앗이: 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그룹 운영 ·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요일 2시간, 연간 24시간 이상 -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준)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준)부모교육 ·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의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 가족상담 - 가족문화: 가족사랑의 날(월 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여가프로그램, 지역 참여 및 나눔 행사 등 -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관계향상교육, 놀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아 교육 진흥원 운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 지원내용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제공 -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및 대여 - 부모 간 자녀양육 경험 및 정보교류 기회 제공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기능
유아 교육 진흥원 운영	유아체험 교육 학부모 지원 만 3~5세 유아 및 학부모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교육을 통해 인성 및 창의성 신장 다양한 체험교육기회 제공으로 유아의 조화로운 심신 발달(각 지역별 프로그램 상이) ○ 유아문제행동,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각 지역별 상이)

자료: 여성가족부(2015).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www.familynet.or.kr

3. 영유아 연령별 지원

영유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고자 할 때, 자녀의 연(월)령으로 접근함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을 영유아 자녀의 연(월)령별로 재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앞 절과 같은 정책들을 분류기준만 새로이 하여 정리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연(월)령을 기준으로 분류한 정책들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지원 여부 기준이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만 간략하게 그래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비용지원은 물론이고 서비스, 돌봄시간 지원 등의 육아지원 정책이 전(全)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정책수요자에게 중요한 정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도되었다.

본 분류에서는 영유아의 연(월)령을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 8세, 10세, 12세로 정책을 분류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지원 여부도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표 II-3-1〉 영유아 연령별 지원 정책

정책/월(연)령(만)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10세	12세
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	—	—	—	—	—	—	—	—	—	—	—
	만 0~2세 보육료	—	—	—	—	—	—	—	—	—	—	—	—
	만 3~5세 누리과정	—	—	—	—	—	—	—	—	—	—	—	—
	시간연장형 보육료	—	—	—	—	—	—	—	—	—	—	—	—
	시간차등형 보육료	—	—	—	—	—	—	—	—	—	—	—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	—	—	—	—	—	—	—	—	—	—	—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	—	—	—	—	—	—	—	—	—	—	—
	즉기예방접종지원	—	—	—	—	—	—	—	—	—	—	—	—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	—	—	—	—	—	—	—	—	—	—	—
	육아휴직급여	—	—	—	—	—	—	—	—	—	—	—	—
서비스 지원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	—	—	—	—	—	—	—	—	—	—	—
	다문화가정 보육료	—	—	—	—	—	—	—	—	—	—	—	—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지원	—	—	—	—	—	—	—	—	—	—	—	—
돌봄시가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	—	—	—	—	—	—	—	—	—	—
	유아교육권 용원 운영	—	—	—	—	—	—	—	—	—	—	—	—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 및 재산 무관 지원
 소득 및 재산 차등 지원

4. 소결

정부는 개인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이고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부처별 문의처나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상이한 통로로 안내되고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책의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정책이 정책의 최종 수요자에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정책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기대하는 자녀양육 부담 경감의 효과 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렇듯 혼재(混在)되어 있는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나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그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을 정책의 부문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부처별로 제공되는 정책분류를 대동소이하게 활용하여 정책을 안내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을 부문별로 1) 비용지원, 2) 서비스지원, 3) 돌봄시간지원, 4) 기타 등으로 보다 정책수요자의 이용 목적에 맞도록 분류하여 보고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의 정책에 대한 활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자녀의 연(월)령 기준으로 정책을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이는 정책수요자인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현재 필요한 정책을 찾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자녀의 연(월)령임을 고려하여 시도한 정책분류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녀의 연(월)령에 맞는 정책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알리고자 영유아의 연(월)령을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 8세, 10세, 12세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월)령 기준의 분류 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수요자들에게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른 정책 이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Ⅲ. 정책수요자의 육아 실태 및 인식

본 장에서는 육아에 대한 핵심 정책수요자인 0~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실태, 육아에의 인식과 책임,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부모, 지역규모,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시간 등에 따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영유아 부모의 육아 실태

영유아 가구의 육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양육자, 하루 평균 양육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을 조사하였으며, 양육의 대체재로써 기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배경 변인별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육아정보의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가. 양육자와 양육 시간

1) 주 양육자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전체의 66.9%가 어머니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19.7%, 외조부모 6.1%, 조부모 5.3%, 아버지 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양육자가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76.2%, 유아 58.5%로 나타났고, 유아의 경우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영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주양육자가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89.9%로 맞벌이 가구 3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기관이용은 34.4%로 외벌이 가구 8.3%에 비해 높았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양육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기관 이용이 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기관이용 다음으로 외조부모 13.2%, 조부모 11.9%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시간별로 살펴보

면, 15시간 이상 양육하는 경우, 주양육자가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94.3%, 기관이용 비율은 3.1%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 혼자 양육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1〉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자녀를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

단위: %

구분	계(수)	모	유치원 어린이집	외조부 모	조부모	부	사설 베이비시터	친인척
전체	100.0(1,203)	66.9	19.7	6.1	5.3	1.3	0.5	0.2
자녀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76.2	9.6	7.1	5.9	0.5	0.7	0.0
유아(만3-5세)	100.0(631)	58.5	28.9	5.2	4.8	2.0	0.3	0.3
$\chi^2(df)$				81.057(4)***				
맞벌이 여부4)								
외벌이	100.0(673)	89.9	8.3	0.6	0.1	1.0	0.0	0.0
맞벌이	100.0(527)	37.3	34.4	13.2	11.9	1.7	1.1	0.4
$\chi^2(df)$				281.83(4)***				
양육시간								
3시간 미만	100.0(227)	67.5	16.5	8.7	6.5	0.0	0.9	0.0
3~6시간 미만	100.0(336)	44.2	28.9	12.0	11.1	2.4	0.9	0.6
6~9시간 미만	100.0(226)	62.8	30.7	2.2	3.5	0.9	0.0	0.0
9~15시간 미만	100.0(195)	79.3	13.7	3.5	1.0	2.0	0.5	0.0
15시간 이상	100.0(219)	94.3	3.1	0.9	0.8	0.9	0.0	0.0
$\chi^2(df)$				209.55(24)***				

*** $p < .001$.

2) 자녀양육 시간

응답자가 하루 평균 자녀를 돌보는 데 소요하는 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으며, 3-6시간 미만이 2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시간 미만 18.9%, 6-9시간 미만 18.8%, 15시간 이상 18.2%, 9-15시간 미만 16.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어머니의 양육시간은 10.96시간, 아버지는 4.78시간으로 어머니의 양육시간이 아버지보다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가구보다 외벌이 가구의 양육시간이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육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맞벌이의 가구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변수의 상호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4) 맞벌이 여부의 사례수가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맞벌이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후 모든 분석에서 맞벌이 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항목은 전체 사례수와 차이가 있음.

〈표 III-1-2〉 자녀를 돌보는 데 보내는 시간(평일, 하루 평균)

단위: %, 시간

구분	계 (수)	3시간 미만	3-6시간	6-9시간	9~15시간	15시간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203)	18.9	27.9	18.8	16.2	18.2	8.02(6.37)
자녀 연령							
만0세(㉠)	100.0(186)	12.1	25.5	8.0	19.1	35.4	11.36(8.08)
만1세(㉡)	100.0(192)	25.8	26.4	9.6	18.4	19.8	8.04(6.96)
만2세(㉢)	100.0(194)	19.4	27.0	17.4	18.4	17.9	8.12(6.38)
만3세(㉣)	100.0(214)	17.8	25.5	24.7	16.4	15.5	7.75(5.75)
만4세(㉤)	100.0(210)	17.6	31.9	24.7	13.4	12.4	6.83(4.89)
만5세(㉥)	100.0(207)	20.4	30.9	26.2	12.3	10.1	6.39(4.76)
F		35.611*** (㉠ > ㉡,㉢,㉣,㉤,㉥)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36.9	38.6	9.8	8.6	6.1	4.78(4.63)
모	100.0(630)	2.5	18.3	27.0	23.1	29.2	10.96(6.32)
t		-19.194***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19.9	17.6	18.4	18.6	25.5	9.31(6.98)
맞벌이	100.0(527)	17.7	41.3	19.0	13.3	8.7	6.35(5.02)
t		11.28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16.0	22.0	16.4	17.2	28.5	9.86(7.14)
201만원-300만원(㉡)	100.0(371)	16.5	22.6	19.8	20.0	21.1	8.88(6.67)
301만원-400만원(㉢)	100.0(291)	19.9	27.4	21.6	12.9	18.1	7.80(6.26)
401만원-500만원(㉣)	100.0(223)	22.4	34.0	18.0	13.7	12.0	6.80(5.82)
500만원 초과(㉤)	100.0(197)	19.5	35.5	15.1	16.4	13.4	6.99(5.60)
F		7.796*** (㉣ < ㉡,㉢,㉤ < ㉠)					

*** $p < .001$.

3) 부모 양육 참여 비율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비율은 평균 26.08%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의 아버지 양육참여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가구의 아버지 양육참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1.8%(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15), 기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9.6%이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 비율이 30%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도 불구하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책임을 우선시하는 양육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3〉 아버지 양육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계(수)	10%미만	10%~20%	20%~30%	30%~40%	40%이상	평균(표준편차)
전체	100.0(1,203)	6.2	20.8	28.4	24.3	20.4	26.08(17.03)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7.0	20.6	28.7	26.2	17.4	25.37(16.76)
유아(만3-5세)	100.0(631)	5.5	20.9	28.1	22.5	23.0	26.72(17.26)
t				-1.367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7.6	25.8	30.0	23.7	12.9	23.47(16.86)
맞벌이	100.0(527)	4.5	14.4	26.2	24.8	30.0	29.41(16.72)
t				8.213***			

*** $p < .001$.

어머니의 양육참여 비율은 평균 73.92%로 나타났으며, 영아와 유아 어머니의 양육참여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의 어머니 양육참여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양육참여 비율이 낮음을 통계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결과이긴 하지만 참여 비율의 차이는 약 6%로 실질적인 양육참여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여성이 일·가정 양립의 상황에서 여전히 양육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추측하게 하며, 실제적으로 맞벌이 가구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4〉 어머니 양육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계(수)	50%미만	50%~70%	70%~80%	80%~90%	90%이상	평균(표준편차)
전체	100.0(1,203)	5.9	15.1	24.5	29.0	25.4	73.92(17.03)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5.0	13.2	26.4	29.2	26.1	74.63(16.76)
유아(만3-5세)	100.0(631)	6.7	16.8	22.8	28.8	24.8	73.28(17.26)
t				1.367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5.0	8.6	23.8	30.9	31.7	76.53(16.86)
맞벌이	100.0(527)	7.1	23.5	25.2	26.6	17.6	70.59(16.72)
t				6.214***			

*** $p < .001$.

4) 대리 양육자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도움 받는 사람(또는 기관)이 누구인지 질문한 결과, 외조부모가 4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조부모 27.1%,

형제자매 6.9%,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5.5% 순으로 대부분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대리양육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양육 어려움이 보다 클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1-5〉 대리양육자(또는 기관)

단위: %

구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00.0(1203)	44.9	27.1	6.9	5.5	3.6	1.1	0.7	0.6	0.2	9.5
자녀 연령											
만0세	100.0(186)	59.8	22.6	5.9	0.5	1.1	1.6	1.1	1.6	0.0	5.8
만1세	100.0(192)	42.4	30.6	6.1	4.5	1.5	1.5	0.0	1.0	0.5	11.8
만2세	100.0(194)	39.4	30.1	8.2	5.6	4.1	0.5	0.5	0.0	0.0	11.7
만3세	100.0(214)	44.3	25.6	6.4	8.2	3.7	0.9	0.9	0.5	0.0	9.6
만4세	100.0(210)	43.4	26.7	6.6	6.2	3.3	1.4	1.0	0.0	0.0	11.4
만5세	100.0(207)	41.1	27.1	8.1	7.5	7.4	0.5	0.5	0.5	1.0	6.5
$\chi^2(df)$		49.219(18)***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44.1	23.0	7.5	5.4	4.6	0.7	0.6	0.7	0.0	13.3
맞벌이	100.0(527)	46.1	32.5	5.9	5.7	2.3	1.5	0.8	0.4	0.6	4.3
$\chi^2(df)$		32.48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34.8	28.7	10.7	4.1	5.5	0.8	0.0	1.6	0.0	13.7
200만원~300만원	100.0(371)	40.2	28.5	6.1	6.8	2.9	0.5	0.0	0.5	0.0	14.4
300만원~400만원	100.0(291)	46.5	22.7	7.4	7.5	4.8	1.7	0.0	0.3	0.3	8.8
400만원~500만원	100.0(223)	49.3	28.3	7.1	4.0	3.9	0.4	0.4	0.4	0.4	5.7
500만원 초과	100.0(197)	52.5	28.5	5.0	3.0	1.5	2.0	3.5	0.5	0.5	3.0
$\chi^2(df)$		90.51(36)***									

주: ① 외조부모 ② 친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⑤ 친구·이웃·동료

⑥ 아이돌보미 ⑦ 사설 베이비시터 ⑧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시보육기관 ⑨ 기타 ⑩ 없음

*** $p < .001$.

나. 교육·보육 기관 이용

1) 현재 기관 이용 현황

0~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 기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1,203명)의 33.7%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이용 기관에 응답한 경우, 어린이집 49.0%, 유치원 14.6%, 반일제 이상 학원(놀이학교, 영어학원 등) 2.7%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에 따른 현재 이용기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아와 유아 모두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영아 35%, 유아 61.7%),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영아의 약 2배 정도였다. 한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영아 62.6%, 유아 7.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선형성을 보이지는 않으며,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에서 학원 이용률이 다소 높다. 양육시간별로는 6~9시간 미만인 경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양육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긴 시간 양육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6〉 현재 이용 기관

					단위: %
구분	계(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용하지 않음
전체	100.0(1,203)	14.6	49.0	2.7	33.7
지역규모					
대도시	100.0(490)	16.0	45.4	2.6	36.1
중소도시	100.0(510)	13.6	52.9	2.6	31.0
농촌지역	100.0(203)	13.5	47.9	3.9	34.7
$\chi^2(df)$		9.60(8)			
자녀 연령					
영아(0-2세)	100.0(572)	0.0	35.0	1.7	62.6
유아(3-5세)	100.0(631)	27.8	61.7	3.1	7.5
$\chi^2(df)$		480.76(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9.5	39.9	1.7	49.0
201~ 300만원	100.0(371)	12.8	47.4	1.6	38.2
301~ 400만원	100.0(291)	14.3	50.4	3.0	32.3
401~ 500만원	100.0(223)	17.2	53.9	4.9	24.1
500만원 초과	100.0(197)	18.3	50.0	3.0	28.7
$\chi^2(df)$		37.71(16)**			
양육시간					
3시간 미만	100.0(227)	15.3	44.7	2.9	37.1
3~6시간 미만	100.0(336)	14.4	52.9	1.8	30.9
6~9시간 미만	100.0(226)	20.9	68.7	3.1	7.4
9~15시간 미만	100.0(195)	10.1	45.0	5.2	39.8
15시간 이상	100.0(219)	11.5	30.6	1.9	56.1
$\chi^2(df)$		138.49(16)***			

** $p < .01$, *** $p < .001$.

2) 기관 이용 시작 적절 시기

영유아 기관이용의 적정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 2세가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 3세 30.6%, 만 1세 15.9%, 만 4세 10.4%, 만 5세 5.8% 순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이후가 기관 이용의 적정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버지는 18.7%로 어머니(13.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관 이용의 적정 시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조금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만 4세 이후가 기관 이용의 적정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17.4%로 맞벌이 가구 14.5% 보다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미취업일 가능성이 높은 외벌이 가구의 기관이용 시기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늦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양육시간이 길어질수록 만 4세 이후가 기관 이용의 적정 시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데, 긴 양육시간이 조금 더 이른 기관 이용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III-1-7〉 기관 이용 시작 적절 시기

		단위: %					
구분	계(수)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100.0(1,203)	1.4	15.9	35.9	30.6	10.4	5.8
자녀 연령							
만0세	100.0(186)	3.2	19.5	32.9	30.6	9.0	4.8
만1세	100.0(192)	1.5	24.0	33.9	26.3	8.7	5.5
만2세	100.0(194)	2.5	19.3	40.3	27.1	6.1	4.6
만3세	100.0(214)	0.5	10.5	44.7	30.6	9.1	4.5
만4세	100.0(210)	0.5	12.4	36.6	37.6	11.0	1.9
만5세	100.0(207)	0.5	10.9	26.7	30.8	18.0	13.2
$\chi^2(df)$		86.55(25)***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2.1	15.1	33.7	30.4	12.2	6.5
모	100.0(630)	0.8	16.5	38.0	30.8	8.7	5.1
$\chi^2(df)$		9.96(5)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0.9	13.1	35.8	32.8	11.9	5.5
맞벌이	100.0(527)	2.1	19.5	36.2	27.8	8.4	6.1
$\chi^2(df)$		23.11(10)*					
양육시간							
3시간 미만	100.0(227)	0.4	15.6	31.6	32.8	14.4	5.2
3~ 6시간 미만	100.0(336)	3.0	13.8	38.1	27.2	10.0	7.9
6~ 9시간 미만	100.0(226)	0.4	17.0	40.4	28.2	8.5	5.5
9~15시간 미만	100.0(195)	2.0	17.1	34.7	34.5	10.2	1.5
15시간 이상	100.0(219)	0.4	17.1	33.6	32.7	9.0	7.2
$\chi^2(df)$		33.45(20)*					

* $p < .05$, *** $p < .001$.

3) 실제 기관 이용 시작 시기

현재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812명)를 대상으로 기관 이용의 최초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 1세가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 2세 31.5%, 만 3세 16.8%, 0세 11.4%, 만 4세 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 5세는 0.7%에 불과했다. 영아의 최초 기관이용 시기는 만 1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53.4%로 가장 높았고, 유아는 만 2세가 33.8%로 가장 높아 대략적으로 만 1세, 2세 정도에 처음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 보면, 외벌이 가구는 만 2세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맞벌이는 만 1세가 37.6%로 가장 높아 맞벌이 가구 영유아의 최초 기관이용 시기가 다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육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 기관이용 시기가 만 1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길게 나타나 장시간 양육의 대체제로 기관 이용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8〉 실제 기관이용 시작 시기

단위: %							
구분	계(수)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전체	100.0(812)	11.4	35.4	31.5	16.8	4.3	0.7
지역규모							
대도시	100.0(323)	11.5	30.2	32.4	20.1	4.7	1.2
중소도시	100.0(354)	11.2	41.2	29.1	13.7	4.8	0.0
농촌지역	100.0(135)	11.8	32.5	35.3	17.1	2.0	1.3
$\chi^2(df)$				18.14(10)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218)	21.6	53.4	25.0	0.0	0.0	0.0
유아(만3-5세)	100.0(594)	7.7	28.8	33.8	23.0	5.8	1.0
$\chi^2(df)$				123.83(5)***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404)	6.4	33.2	36.4	18.2	4.9	0.9
맞벌이	100.0(407)	16.4	37.6	26.4	15.5	3.6	0.5
$\chi^2(df)$				27.81(6)***			
양육시간							
3시간 미만	100.0(150)	10.5	30.8	33.4	20.0	4.0	1.3
3~ 6시간 미만	100.0(237)	10.4	38.2	28.9	15.4	6.6	0.4
6~ 9시간 미만	100.0(207)	10.3	32.8	34.6	18.6	2.4	1.3
9~15시간 미만	100.0(117)	16.8	35.9	29.4	12.7	5.1	0.0
15시간 이상	100.0(100)	10.9	40.0	30.6	16.4	2.0	0.0
$\chi^2(df)$				20.77(20)			

*** $p < .001$.

다. 양육 어려움 및 지원 필요 시간

1)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 부족 18.8%, 개인시간 부족 18.4%, 교육·보육 비용부담 10.2%, 체력 소진 9.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는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으나 어머니는 개인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 가장 높았으며, 외벌이 가구는 개인시간 부족이 19.9%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는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아 주양육자, 가구유형에 따른 경향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 III-1-9〉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100.0(1,203)	21.9	18.8	18.4	10.2	9.9	5.7	5.7	3.8	3.6	0.9	1.1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24.3	23.0	16.3	10.7	4.9	4.1	6.5	3.9	4.1	0.7	1.4
모	100.0(630)	19.8	14.9	20.3	9.7	14.4	7.2	5.0	3.6	3.1	1.1	0.9
$\chi^2(df)$		52.05(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17.6	15.3	19.9	10.9	11.5	7.0	7.2	4.1	4.5	1.0	1.0
맞벌이	100.0(527)	27.7	23.3	16.4	9.4	7.6	4.1	3.9	3.2	2.4	0.7	1.3
$\chi^2(df)$		37.93(20)***										

주: ①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이 부족하다

③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④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⑤ 체력적으로 힘들다

⑥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⑦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⑧ 수면이 부족하다

⑨ 기저귀, 분유 등 양육필수품 비용이 부담된다 ⑩ 기타 ⑪ 없음

*** $p < .001$.

2) 자녀 동반 외출 시 어려움

영유아와 외출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문화시설 부족이 3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이용 불편 27.4%, 편의시설 부족 17.1%, 안전시설 미비 8.8%, 주위시선 불편 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부모 집단 모두 문화시설 미비에 관한 응답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영아 부모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부족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기

관의 차이에서는 기관을 이용하는 집단과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관을 이용하는 집단에서는 문화시설 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 편의시설 부족 순으로 나타났지만, 기관 미이용 집단에서는 이 세 가지의 불편함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10〉 자녀양육와의 외출 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00.0(1,203)	37.0	27.4	17.1	8.8	5.8	0.5	3.5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30.2	27.4	26.8	7.9	5.3	0.7	1.7
유아(만3-5세)	100.0(631)	43.2	27.3	8.4	9.5	6.2	0.3	5.0
$\chi^2(df)$		84.468(6)***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40.9	22.6	16.3	10.3	5.6	0.5	3.8
모	100.0(630)	33.6	31.7	17.9	7.3	6.0	0.5	3.1
$\chi^2(df)$		17.622(6)**						
이용기관								
유치원	100.0(175)	46.4	28.8	6.7	7.3	4.5	0.0	6.3
어린이집	100.0(589)	39.7	25.4	13.1	10.5	7.2	0.3	3.7
학원	100.0(34)	32.4	26.8	11.4	20.8	8.7	0.0	0.0
이용하지 않음	100.0(405)	29.5	29.6	27.9	5.8	4.1	0.9	2.2
$\chi^2(df)$		86.904(24)***						

주: ① 자녀를 데리고 갈만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② 자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
 ③ 자녀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④ 자녀를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⑤ 자녀 동반으로 인한 주위의 시선이 불편하다 ⑥ 기타 ⑦ 없음

** $p < .01$, *** $p < .001$.

3) 지원 필요 시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로 하는 하루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평균 3.9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0세 자녀를 둔 부모의 휴식시간 요구가 타 연령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필요 휴식시간이 길었으며,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휴식시간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양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휴식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양육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집단과 3시간 미만의 집단의 차이는 평균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1-11〉 최소 필요 휴식시간(하루 평균)

							단위: %
구분	계(수)	3시간 미만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1,203)	24.5	29.8	17.4	13.7	14.6	3.94(2.55)
자녀 연령							
만0세	100.0(186)	15.5	28.0	20.1	15.8	20.6	4.23(2.15)
만1세	100.0(192)	24.4	31.7	18.9	10.7	14.3	3.97(2.83)
만2세	100.0(194)	25.0	28.6	19.4	14.3	12.7	3.84(2.29)
만3세	100.0(214)	24.7	34.7	15.5	11.5	13.7	3.77(2.16)
만4세	100.0(210)	22.3	30.5	16.7	17.2	13.3	3.94(2.10)
만5세	100.0(207)	34.3	25.4	14.3	12.7	13.4	3.95(3.48)
F				1.381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31.2	26.9	17.8	8.8	15.4	3.76(2.36)
모	100.0(630)	18.5	32.5	17.0	18.2	13.9	4.11(2.71)
t				-2.375**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23.2	28.8	18.3	12.6	17.1	3.97(2.31)
맞벌이	100.0(527)	26.3	31.0	16.3	15.1	11.3	3.91(2.84)
t				0.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a	100.0(121)	14.6	33.4	14.7	13.0	24.3	4.62(3.41)
201만원~300만원 ^b	100.0(371)	21.8	31.0	17.3	14.1	15.9	4.03(2.44)
301만원~400만원 ^c	100.0(291)	27.8	27.1	18.0	13.2	13.9	3.83(2.37)
401만원~500만원 ^d	100.0(223)	25.5	29.5	16.2	17.8	11.0	3.93(2.86)
500만원 초과 ^e	100.0(197)	29.7	30.0	19.5	9.5	11.4	3.54(1.91)
F			3.639**	(a > b, d > c, e)			
양육시간							
3시간 미만 ^a	100.0(227)	42.0	27.7	15.7	5.6	9.1	3.26(2.36)
3 ~ 6시간 미만 ^b	100.0(336)	29.9	29.6	16.7	10.9	12.9	3.68(2.26)
6 ~ 9시간 미만 ^c	100.0(226)	20.8	30.6	16.9	18.2	13.5	4.01(2.13)
9 ~ 15시간 미만 ^d	100.0(195)	16.1	31.3	21.3	14.7	16.5	4.22(2.73)
15시간 이상 ^e	100.0(219)	9.4	30.4	17.1	20.8	22.3	4.75(3.11)
F			11.417***	(e > d, c > b, a)			

** $p < .01$, *** $p < .001$.

라. 육아정보의 활용

1) 필요한 육아 정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와 주로 어디서 제공받는지, 유용한 정보 및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육아지원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우선 자녀양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III-1-12>

와 같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육아 정보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 정보(훈육,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로 전체의 45.0%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19.8%)와 건강에 대한 정보(19.7%)로 나타났으며, 학습에 대한 정보(8.0%), 놀이에 대한 정보(6.2%), 용품 구매에 대한 정보(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녀의 연령과 자녀와의 관계, 이용기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만0~2세)와 유아(만 3~5세) 부모 모두 양육에 대한 일반정보의 필요도가 높았으나, 영아 부모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24.4%로 높은 반면, 유아 부모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가 23.1%로 나타나 영아기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연령이 증가하고, 기관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정보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모의 응답에서도 공통적으로 양육에 대한 일반정보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높은 반면, 어머니는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의 필요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경향을 보여 육아에 대한 일반정보, 기관정보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학습정보에 관심이 높고,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있는 부모는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12〉 자녀양육 시 필요한 육아정보

단위: %

구분	계(수)	일반 정보	기관 정보	건강 정보	학습 정보	놀이 정보	육아용품 정보	기타
전체	100.0(1,203)	45.0	19.8	19.7	8.0	6.2	1.0	0.3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45.7	16.1	24.4	6.3	5.8	1.4	0.3
유아(만3-5세)	100.0(631)	44.4	23.1	15.5	9.5	6.6	0.6	0.3
$\chi^2(df)$				25.70(6)***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42.8	19.3	23.2	8.7	5.1	0.9	0.0
모	100.0(630)	46.9	20.2	16.6	7.4	7.2	1.1	0.6
$\chi^2(df)$				15.17(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46.2	18.7	19.7	6.6	7.8	0.7	0.3
맞벌이	100.0(527)	43.2	21.2	19.8	9.9	4.3	1.3	0.4
$\chi^2(df)$				12.52(12)				

구분	계(수)	일반 정보	기관 정보	건강 정보	학습 정보	놀이 정보	육아용품 정보	기타
이용기관								
유치원	100.0(175)	41.1	26.8	13.6	10.7	6.7	1.1	0.0
어린이집	100.0(589)	47.4	20.8	17.2	8.9	5.0	0.2	0.5
학원	100.0(34)	41.5	14.8	13.3	15.9	14.7	0.0	0.0
이용하지 않음	100.0(405)	43.7	15.7	26.4	4.8	7.0	2.2	0.2
$\chi^2(df)$				64.87(24)***				

* $p < .05$, *** $p < .001$.

2) 육아 정보의 주 제공처

<표 III-1-13>은 주로 육아정보를 어디 또는 누구에게서 제공받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에서 받고 있다는 응답이 52.0%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이웃·동료에게 받고 있다는 응답이 21.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자녀 연령과 자녀와의 관계,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만0~2세)와 유아(만 3~5세) 모두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순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지만, 영아 부모는 자녀의 친지에게 육아정보를 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유아 부모는 교육·보육 기관에서 정보는 제공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기관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의 주 제공처가 자녀의 이용기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향을 보여준다.

부모의 응답에서도 공통적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가 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하였지만, 아버지는 교육·보육 기관에서 받는다고 응답을 한 반면, 어머니는 육아 관련 서적에서 육아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외벌이의 경우는 전반적인 패턴과 동일하게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 육아서적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의 경우는 육아 서적을 이용하는 것보다 교육·보육 기관에서 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조사대상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른 육아정보 제공처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 순으로 기관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는 친지에게 더 많이 정보를 받고 있었으며,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있는 부모는 육아서적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아 양육 상황에 따라 육아정보의 주 제공처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13> 육아정보를 주로 받는 곳

단위: %

구분	계(수)	인터넷	친구	서적	기관	친지	외조부모	공공기관	대중매체	친조부모	기타
전체	100.0(1,203)	52.0	21.1	8.3	5.2	3.6	3.4	2.4	1.9	1.6	0.6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55.3	21.1	7.6	2.6	4.7	3.8	1.9	1.0	1.7	0.3
유아(만3~5세)	100.0(631)	49.1	21.2	8.9	7.6	2.5	3.0	2.8	2.7	1.4	0.8
$\chi^2(df)$					28.21(9)***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50.8	22.2	5.8	6.4	4.0	2.2	3.5	2.2	2.4	0.5
모	100.0(630)	53.1	20.2	10.5	4.2	3.2	4.4	1.4	1.6	0.8	0.6
$\chi^2(df)$					27.73(9)***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53.7	22.3	9.5	2.8	4.1	1.9	2.2	1.5	1.5	0.6
맞벌이	100.0(527)	49.8	19.6	6.8	8.3	2.8	5.2	2.6	2.5	1.7	0.6
$\chi^2(df)$					32.84(18)**						
이용기관											
유치원	100.0(175)	46.0	22.6	7.9	8.8	2.3	5.1	1.7	3.7	0.6	1.1
어린이집	100.0(589)	50.6	21.8	7.9	7.5	2.9	2.5	2.9	1.8	1.8	0.3
학원	100.0(34)	44.8	33.9	2.7	5.8	10.2	0.0	0.0	2.7	0.0	0.0
이용하지 않음	100.0(405)	57.3	18.5	9.5	0.2	4.6	4.1	2.2	1.2	1.7	0.7
$\chi^2(df)$					72.56(36)***						

** $p < .01$, *** $p < .001$.

3) 유용한 육아정보 제공처

<표 III-1-14>는 어디로부터 받은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이 32.7%, 친구·이웃·동료가 20.7%, 육아관련 서적이 13.5%, 교육·보육 기관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녀의 연령과 자녀와의 관계,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 양육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만0~2세)와 유아(만 3~5세) 모두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순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영아 부모는 친지로부터의 육아정보가 낮은 수준(2.7%)을 보인 반면, 유아 부모는 1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응답에서도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가 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하였지만, 아버지는 교육·보육 기관에서 받는 정보가 유용하다고 응답을 한 반면, 어머니는 육아 관련 서적이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외벌이의 경우는 인터넷(카페, 블로그), 친구·이웃·동료, 육아서적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의 경우는 교육·보육 기관 정보의 유용성에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미이용 모두 인터넷(카페, 블로그)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준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학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친구·이웃·동료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뚜렷한 경향 차이를 보였다.

〈표 III-1-14〉 가장 유용한 육아정보 제공처

단위: %

구분	계(수)	인터넷	친구	서적	기관	친지	외조부모	공공기관	대중매체	친조부모	기타
전체	100.0(1,203)	32.7	20.7	13.5	12.2	7.4	4.1	3.4	2.4	2.2	1.4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33.6	21.0	15.5	12.9	2.7	5.0	4.3	1.9	1.9	1.2
유아(만3-5세)	100.0(631)	31.9	20.4	11.8	11.5	11.6	3.3	2.7	2.8	2.5	1.6
$\chi^2(df)$					40.99(9)***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33.6	20.2	10.3	13.0	8.5	5.0	1.7	2.8	3.9	1.0
모	100.0(630)	31.9	21.2	16.4	11.4	6.4	3.3	5.0	2.0	0.6	1.7
$\chi^2(df)$					37.90(9)***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34.1	21.7	15.2	12.0	4.4	4.7	2.6	1.8	1.7	1.8
맞벌이	100.0(527)	30.9	19.5	11.2	12.4	11.3	3.4	4.4	3.1	2.8	0.9
$\chi^2(df)$					22.83(9)**						
이용기관											
유치원	100.0(175)	33.3	21.5	12.0	8.0	13.6	2.8	2.8	2.1	2.7	1.1
어린이집	100.0(589)	32.8	21.0	10.9	13.2	9.2	3.5	2.7	3.4	2.3	1.0
학원	100.0(34)	17.4	38.3	11.4	14.1	8.7	10.2	0.0	0.0	0.0	0.0
이용하지 않음	100.0(405)	33.6	18.5	18.1	12.4	1.9	5.1	5.0	1.2	1.9	2.2
$\chi^2(df)$					77.27(36)***						

** $p < .01$, *** $p < .001$.

2.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조사대상 영유아 부모의 육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함께 육아에 대한 부담의 정도, 부모들이 생각하는 육아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부모의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육아’에 대한 인식

1) 육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육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행복감, 가치로움, 자신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육아의 행복감과 가치에서는 자녀 연령이 0세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5세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 부담이 크지만 그에 따른 행복감과 가치로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육아의 행복감, 가치, 자신감 모두 아버지가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서 2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맞벌이 여부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시간에 따라서는 육아의 행복감과 가치에서 3시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육아에의 자신감과 관계없이 긴 양육시간은 육아의 행복감, 가치로움을 반감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하루 평균 휴식시간에 대한 조사결과(표 III-1-10 참조)에서 나타난 평균 3.94시간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육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일정시간의 휴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지원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III-2-1〉 육아의 주관적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수	육아의 행복감		육아의 가치		육아의 자신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03	3.40	0.60	3.62	0.54	2.73	0.74
자녀 연령							
만0세 ^a	186	3.54	0.56	3.74	0.48	2.77	0.73
만1세 ^b	192	3.44	0.57	3.66	0.52	2.78	0.74
만2세 ^c	194	3.36	0.65	3.56	0.58	2.65	0.73
만3세 ^d	214	3.39	0.62	3.59	0.53	2.77	0.81
만4세 ^e	210	3.37	0.57	3.63	0.51	2.71	0.68
만5세 ^f	207	3.34	0.61	3.53	0.57	2.71	0.77
F		2.84*		3.69** ^{a>f}		0.86	

구분	수	육아의 행복감		육아의 가치		육아의 자신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녀와의 관계							
부	573	3.53	0.56	3.71	0.49	2.91	0.71
모	630	3.29	0.62	3.53	0.56	2.57	0.74
t		7.16***		5.74***		8.06***	
맞벌이 여부							
외벌이	673	3.39	0.59	3.62	0.54	2.73	0.74
맞벌이	527	3.42	0.61	3.62	0.54	2.73	0.75
t		-0.85		-0.01		0.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21	3.38	0.61	3.50	0.62	2.67	0.76
201만원~300만원	371	3.35	0.61	3.61	0.53	2.70	0.75
301만원~400만원	291	3.44	0.60	3.65	0.54	2.73	0.75
401만원~500만원	223	3.42	0.61	3.60	0.53	2.79	0.76
500만원 초과	197	3.44	0.56	3.66	0.50	2.77	0.71
F		1.28		2.27		0.96	
양육시간							
3시간 미만 [㉠]	227	3.54	0.55	3.69	0.48	2.79	0.70
3~6시간 미만 [㉢]	336	3.46	0.61	3.66	0.54	2.88	0.76
6~9시간 미만 [㉡]	226	3.31	0.63	3.56	0.56	2.60	0.72
9~15시간 미만 [㉣]	195	3.34	0.57	3.54	0.54	2.69	0.73
15시간 이상 [㉤]	219	3.32	0.60	3.59	0.54	2.61	0.76
F		7.03*** ^{(a),(b)>(c),(d),(e)}		3.10*		7.23*** ^{(b),(a),(d) > (c),(e)}	

* $p < .05$, ** $p < .01$, *** $p < .001$.

2) 육아에의 부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체적 부담이 평균 3.0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이 2.83점, 심리적 부담이 2.56점 순이었다. 자녀 연령별, 자녀와의 관계,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러한 경향은 배경변인에 따라서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유아 부모의 육아 부담은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보다 육체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육아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양육시간별로도 양육시간이 증가할수록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의 육체적 부담은 양육시간과는 선형적인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III-2-2〉 육아에의 부담

단위: 명, 점

구분	수	육아의 육체적 부담		육아의 심리적 부담		육아의 경제적 부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03	3.03	0.72	2.56	0.81	2.83	0.80
자녀 연령							
만0세	186	3.11	0.72	2.58	0.80	2.81	0.80
만1세	192	2.97	0.76	2.49	0.80	2.77	0.82
만2세	194	3.07	0.69	2.63	0.83	2.73	0.82
만3세	214	3.07	0.75	2.56	0.85	2.84	0.81
만4세	210	2.97	0.66	2.54	0.78	2.92	0.77
만5세	207	3.00	0.70	2.59	0.81	2.92	0.76
F		1.45		0.64		1.85	
자녀와의 관계							
부	573	2.90	0.71	2.45	0.82	2.76	0.81
모	630	3.15	0.70	2.67	0.80	2.90	0.78
t		-6.04		-4.78		-3.02	
맞벌이 여부							
외벌이	673	3.06	0.71	2.55	0.83	2.85	0.82
맞벌이	527	3.00	0.72	2.57	0.79	2.81	0.77
t		1.49		-0.47		0.9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a)}	121	3.05	0.74	2.52	0.84	3.06	0.84
201만원~300만원 ^{b)}	371	3.05	0.72	2.57	0.81	2.96	0.77
301만원~400만원 ^{c)}	291	3.05	0.72	2.60	0.80	2.84	0.77
401만원~500만원 ^{d)}	223	3.02	0.72	2.55	0.84	2.72	0.81
500만원 초과 ^{e)}	197	2.98	0.68	2.54	0.79	2.58	0.76
F		0.38		0.32		11.01*** e) > d), c), b) > a)	
양육시간							
3시간 미만 ^{a)}	227	2.90	0.71	2.43	0.78	2.72	0.80
3~6시간 미만 ^{b)}	336	2.94	0.73	2.48	0.82	2.75	0.78
6~9시간 미만 ^{c)}	226	3.04	0.66	2.70	0.78	2.97	0.75
9~15시간 미만 ^{d)}	195	3.15	0.74	2.59	0.88	2.87	0.84
15시간 이상 ^{e)}	219	3.20	0.69	2.66	0.78	2.91	0.80
F		7.57*** e), d) > c), b), a)		4.90*** b) > a), c), d), e)		4.36** b) > a), c), d), e)	

** p < .01, *** p < .001.

3) 육아의 경제적 가치

‘육아’에 대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받아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월평균 227만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약 240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에 따른 양육의 부담이 경제적으로 환산한 육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양육 시간이 길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3〉 경제적으로 환산한 육아의 가치(월 평균)

단위: %, 만원

구분	계(수)	150만 미만	150 ~ 200만	200 ~ 250만	250 ~ 300만	300 ~ 350만	350만 이상	평균(표준편차)
전체	100.0(1,203)	10.3	19.0	40.5	9.0	14.7	6.5	227.88(189.03)
지역규모								
대도시	100.0(490)	9.6	19.0	40.0	8.8	15.4	7.2	224.25(100.15)
중소도시	100.0(510)	10.1	20.2	40.3	8.7	14.5	6.2	226.41(161.46)
농촌지역	100.0(203)	12.6	16.0	42.1	10.1	13.7	5.4	240.33(349.69)
F					0.35			
자녀연령								
만0세	100.0(186)	5.3	15.3	48.2	7.4	19.5	4.2	240.11(221.46)
만1세	100.0(192)	10.7	21.2	43.5	6.0	10.6	8.0	224.11(125.43)
만2세	100.0(194)	10.7	16.3	38.8	8.7	18.8	6.6	248.81(356.11)
만3세	100.0(214)	11.4	16.0	41.5	8.2	12.8	10.1	226.83(107.09)
만4세	100.0(210)	12.4	25.7	29.1	13.8	13.8	5.3	214.83(97.35)
만5세	100.0(207)	10.9	19.0	43.0	9.4	13.4	4.3	215.04(91.93)
F					0.89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12.1	22.1	39.5	7.6	13.9	4.8	220.54(223.60)
모	100.0(630)	8.7	16.1	41.4	10.3	15.5	8.0	234.56(150.79)
t					-1.51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9.7	17.5	41.4	8.8	15.7	6.9	227.74(144.06)
맞벌이	100.0(527)	11.0	20.9	39.4	9.1	13.5	6.0	228.31(234.79)
t					-0.9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16.1	20.2	32.5	10.3	9.7	11.2	254.72(293.12)
201만원~300만원	100.0(371)	11.5	14.1	45.5	8.0	15.4	5.6	235.18(269.51)
301만원~400만원	100.0(291)	8.5	18.9	41.0	11.2	13.2	7.1	221.77(91.56)
401만원~500만원	100.0(223)	10.1	22.6	38.2	7.6	16.3	5.3	215.48(92.88)
500만원 초과	100.0(197)	7.5	23.5	38.0	8.6	17.0	5.5	220.74(80.50)
F					0.61			
양육시간								
3시간 미만	100.0(227)	11.8	22.5	38.4	9.5	13.0	4.8	214.43(105.72)
3~6시간	100.0(336)	11.1	19.4	40.9	7.9	13.8	6.7	233.64(282.72)
6~9시간	100.0(226)	12.6	21.3	39.0	9.6	12.2	5.3	209.42(77.81)
9~15시간	100.0(195)	6.6	17.7	42.8	9.2	18.1	5.5	227.36(90.58)
15시간 이상	100.0(219)	8.4	13.3	41.5	9.4	17.5	9.8	252.52(219.00)
F					1.26			

나. ‘육아’에의 책임

육아에 대한 책임의 주체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88.3%가 부모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 9.6%, 기타 1.4%, 기관 0.6%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가 육아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와 모, 가구소득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육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응답으로는 부모와 국가라는 복수응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 기관, 국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III-2-4〉 육아의 책임 주체

단위: %					
구분	계(수)	부모	기관	국가	기타
전체	100.0(1,203)	88.3	0.6	9.6	1.4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89.0	0.2	10.1	0.7
유아(만3-5세)	100.0(631)	87.7	1.1	9.2	2.0
$\chi^2(df)$		8.21(3)*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87.6	0.7	10.7	1.0
모	100.0(630)	89.0	0.6	8.7	1.7
$\chi^2(df)$		2.27(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87.3	0.0	11.9	0.8
201만원~ 300만원	100.0(371)	89.7	0.7	9.0	0.5
301만원~ 400만원	100.0(291)	85.1	0.3	12.5	2.1
401만원~ 500만원	100.0(223)	87.2	1.8	9.3	1.7
500만원 초과	100.0(197)	92.4	0.0	5.6	2.0
$\chi^2(df)$		18.02(12)			

* $p < .05$.

3.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본 절에서는 주요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정책의 이용 경험 유무 및 이용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배경 변인과 상관없이 전체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지여부와 정책 이용 및 이용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가. 육아지원 정책 인지

육아지원 정책을 비용, 서비스, 일·가정 양립, 물품, 건강 관련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비용 지원에서는 가정양육수당, 만 0~2세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지원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육수당,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이 0-5세 부모 대상의 보편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는 79%,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는 76.5%,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은 6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과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은 각각 56.7%, 51.7%로 나타나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59.2%였으며,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과 공동육아나눔터는 각각 31.8%, 32.8%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이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원이 체험 프로그램, 교사 연수 등 주로 유치원·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분유 사업에 대해서는 62.7%가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에 따라 인지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 관련 지원 정책인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지원 정책은 약 95%로 대다수의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 91%이상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책 도입시기별, 수혜 대상별 홍보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3-1〉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지원 영역	항목	인지여부		
		계(수)	알고 있다	모른다
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100.0(1,203)	93.1	6.9
	만0~2세보육료	100.0(1,203)	93.4	6.6
	만3~5세누리과정지원	100.0(1,203)	93.2	6.8

지원 영역	항목	인지여부		
		계(수)	알고 있다	모른다
	시간연장형보육료	100.0(1,203)	56.7	43.4
	시간차등형보육료	100.0(1,203)	51.7	48.3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100.0(1,203)	79.0	21.0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100.0(1,203)	76.5	23.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100.0(1,203)	66.4	33.5
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00.0(1,203)	59.2	40.8
	시/도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원	100.0(1,203)	31.8	68.2
	공동육아나눔터	100.0(1,203)	32.8	67.2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전/후 휴가	100.0(1,203)	91.5	8.5
	배우자 출산휴가	100.0(1,203)	92.1	7.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00.0(1,203)	67.5	32.5
	육아휴직제도	100.0(1,203)	92.6	7.4
물품지원	저소득층영유아 기저귀분유사업	100.0(1,203)	62.7	37.3
건강관련 지원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100.0(1,203)	94.9	5.0
	국가예방접종지원	100.0(1,203)	96.8	3.2

나. 육아지원 정책 이용 및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만 0~2세 보육료는 각각 78.3%, 73.6%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48.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31.2%로 절반을 넘지 못하였으며, 시간연장형 보육료(8.2%), 시간차등형 보육료(3.8%),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5.4%),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2.7%)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물품지원인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도 4.3%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다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이용여부 응답의 경우 조사대상 절반 정도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연령이기에 이용여부가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관련 지원정책은 모두 85%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비스 지원정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여부는 21.5%,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은 9.7%, 공동육아나눔터는 5.7%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정책이 43.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육아휴직제도는 26.6%, 배우자 출산휴가는 2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한편 육아지원 정책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에 대하여 5점 만점

기준으로 2.59점~3.13점의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건강관련지원 정책과 서비스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비용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3-2>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 및 이용 만족도

지원 영역	항목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비용 지원	가정양육수당	100.0(1,120)	78.3	21.7	2.64(0.75)
	만0~2세보육료	100.0(1,124)	73.6	26.4	2.78(0.77)
	만3~5세누리과정지원	100.0(1,121)	48.8	51.2	2.67(0.83)
	시간연장형보육료	100.0(681)	8.2	91.8	2.84(0.80)
	시간차등형보육료	100.0(623)	3.8	96.2	2.62(0.72)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100.0(951)	5.4	94.6	2.59(0.87)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100.0(920)	2.7	97.3	2.60(0.77)
서비스 지원	산모/산쌍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00.0(799)	31.2	68.8	2.82(0.73)
	육아종합지원센터	100.0(712)	21.5	78.5	3.00(0.72)
	유아교육진흥원및체험원	100.0(382)	9.7	90.3	3.02(0.85)
일·가정 양립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100.0(394)	5.7	94.3	3.00(0.61)
	출산전/후 휴가	100.0(1,101)	43.6	56.4	2.81(0.86)
	배우자 출산휴가	100.0(1,108)	24.5	75.5	2.64(0.8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00.0(811)	5.9	94.1	3.02(0.78)
물품 지원	육아휴직제도	100.0(1,114)	26.6	73.4	2.89(0.88)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100.0(754)	4.3	95.7	2.79(0.70)
건강관련 지원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100.0(1,142)	85.5	14.5	3.00(0.73)
	국가예방접종지원	100.0(1,165)	88.7	11.3	3.13(0.69)

4.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본 절에서는 현재 제공되는 정책유형을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지원에 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가.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표 III-4-1>을 살펴보면, 현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원은 비용 지원으로 전체의 약 66.8%가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17.7%였으며, 서비스 지원(5.4%), 건강관련 지원(3.6%), 양육정보 지원(3.3%)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과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영아(만0~2세)와 유아(만 3~5세)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이 차이가 있었으며, 외벌이 경우는 비용 지원에 응답한 부모가 72.4%였지만, 맞벌이는 59.8%로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요구가 큼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I-4-1> 가장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 정책

단위: %

구분	계(수)	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양육 정보 지원	물품 지원	기타
전체	100.0(1,203)	66.8	17.7	5.4	3.6	3.3	2.1	1.1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64.0	20.4	5.3	3.3	2.6	3.1	1.4
유아(만3~5세)	100.0(631)	69.3	15.3	5.5	3.8	3.9	1.2	0.9
$\chi^2(df)$				13.14(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72.4	11.8	5.5	3.0	3.8	2.1	1.4
맞벌이	100.0(527)	59.8	25.1	5.4	4.1	2.6	2.2	0.7
$\chi^2(df)$				22.61(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76.9	5.6	4.1	2.3	5.7	3.9	1.5
201만원~300만원	100.0(371)	71.4	13.5	5.3	2.9	3.7	2.7	0.5
301만원~400만원	100.0(291)	68.9	18.2	5.4	3.4	2.7	0.7	0.7
401만원~500만원	100.0(223)	65.3	18.3	5.8	4.4	3.5	1.8	0.9
500만원 초과	100.0(197)	50.4	31.5	6.0	5.0	1.5	2.5	3.0
$\chi^2(df)$				67.88(24)***				

* $p < .05$, *** $p < .001$.

나. 기관 미이용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표 III-4-2>는 기관 미이용 부모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육아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의 52.7%가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에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

보미 포함)에(18.7%) 응답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월평균 가구소득, 이용 기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에 대한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으나 아버지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에 응답한 비율은 감소하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응답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기관 미이용 모두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 내 놀이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요구하는 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차별화된 육아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III-4-2〉 기관 미이용 부모들을 위한 우선 제공 육아지원 정책

		단위: %							
구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00.0(1,203)	52.7	18.7	10.8	9.9	4.6	2.4	0.8	0.2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54.8	19.1	9.1	8.5	4.6	2.8	1.0	0.0
유아(만3-5세)	100.0(631)	50.7	18.4	12.2	11.1	4.5	2.0	0.6	0.4
$\chi^2(df)$		9.74(7)							
자녀와의 관계									
부	100.0(573)	55.0	19.1	9.4	8.1	4.1	3.1	1.2	0.0
모	100.0(630)	50.6	18.3	12.0	11.5	5.0	1.7	0.5	0.4
$\chi^2(df)$		14.21(7)*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56.1	15.8	11.0	9.1	4.2	2.7	1.2	0.0
맞벌이	100.0(527)	48.2	22.5	10.3	11.0	5.1	2.1	0.4	0.5
$\chi^2(df)$		22.05(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64.6	7.2	8.2	8.9	6.5	1.7	1.5	1.4
201만원-300만원	100.0(371)	55.9	14.6	9.6	10.8	4.8	3.2	1.1	0.0
301만원-400만원	100.0(291)	53.8	19.5	10.1	10.4	4.4	1.0	0.3	0.3
401만원-500만원	100.0(223)	45.9	25.0	14.1	8.4	3.9	2.2	0.4	0.0
500만원 초과	100.0(197)	45.4	25.1	11.5	9.4	4.0	3.5	1.0	0.0
$\chi^2(df)$		53.75(28)**							

구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이용기관									
유치원	100.0(175)	48.8	21.8	10.8	12.0	4.4	1.7	0.6	0.0
어린이집	100.0(589)	49.6	19.1	11.9	10.0	5.4	3.0	0.5	0.5
학원	100.0(34)	50.6	18.8	13.5	5.4	3.1	5.4	3.3	0.0
이용하지 않음	100.0(405)	58.9	16.7	8.9	9.1	3.6	1.5	1.2	0.0
$\chi^2(df)$		41.53(28)*							

주: ①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 ②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 포함) ③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④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⑤ 양육관련 정보제공 ⑥ 또래맘 네트워크 구축 ⑦ 기타
 ⑧ 없음

* $p < .05$, ** $p < .01$.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표 III-4-3>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육아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26.4%)와 부모육아휴직 활성화(24.2%)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국가차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15.9%)와 질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확대(15.3%),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시간 확대가 12.4%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과 이용 기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만0~2세) 부모는 부모육아휴직 활성화(26.6%)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유아(만 3~5세) 부모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28.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한편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살펴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육아휴직 활성화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 경향을 차이를 보였다. 종합하면 자녀의 연령, 현재 기관이용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비용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을 정책에의 요구가 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3>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선 제공 육아지원 정책

구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00.0(1,203)	26.4	24.2	15.9	15.3	12.4	2.4	1.6	1.4	0.2
자녀 연령										
영아(만0~2세)	100.0(572)	24.8	26.6	17.5	15.6	9.3	2.6	2.1	1.6	0.0
유아(만3~5세)	100.0(631)	28.0	22.0	14.6	15.0	15.2	2.3	1.2	1.2	0.4
$\chi^2(df)$		18.35(8)*								

단위: %

구분	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맞벌이 여부										
외벌이	100.0(673)	27.6	24.0	15.6	16.4	10.8	2.4	1.6	1.3	0.1
맞벌이	100.0(527)	25.0	24.5	16.3	13.8	14.5	2.4	1.7	1.5	0.3
$\chi^2(df)$					9.0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100.0(121)	30.2	23.9	15.3	8.1	15.3	2.5	2.4	0.8	1.4
201만원-300만원	100.0(371)	28.8	24.8	14.9	13.8	11.7	2.3	1.9	1.9	0.0
301만원-400만원	100.0(291)	25.7	26.7	13.9	15.6	12.5	3.3	1.0	1.3	0.0
401만원-500만원	100.0(223)	25.6	20.2	15.9	17.6	15.9	2.6	1.3	0.9	0.0
500만원 초과	100.0(197)	21.9	24.0	21.5	19.4	8.1	1.0	2.0	1.5	0.5
$\chi^2(df)$					41.88(32)					
이용기관										
유치원	100.0(175)	30.4	16.4	16.3	14.1	19.0	3.3	0.6	0.0	0.0
어린이집	100.0(589)	28.1	21.6	14.9	15.2	14.7	2.2	1.2	1.7	0.5
학원	100.0(34)	33.5	33.5	16.3	3.4	8.0	5.5	0.0	0.0	0.0
이용하지 않음	100.0(405)	21.8	30.5	17.4	16.9	6.6	2.2	2.9	1.7	0.0
$\chi^2(df)$					70.14(32)***					

주: ①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② 부모육아휴직 활성화 ③ 국가차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④ 수준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확충 ⑤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 확대 ⑥ 사설 배아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
 ⑦ 영유아 건강관련 지원 확대 ⑧ 기타 ⑨ 없음

* $p < .05$, *** $p < .001$.

5. 소결

본 장에서는 육아에 대한 핵심 정책수요자인 0~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실태, 육아에의 인식과 책임,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부모, 지역규모,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 월평균 가구소득, 양육시간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 부모의 육아 실태

0-5세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동안 자녀를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은 어머니(전체 응답자의 66.9%)였으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약 8시간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참여 비율은 평균 3:7의 비율로 어머니의 양육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맞벌이의 경우도 유사한 수준으로 직업 유무를 떠나 양육의 주체, 역할이 여전히 어머

니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영유아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고 맡길 수 있는 기관 부족이었으며, 자녀 동반 외출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시설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으로 국공립 확충, 공공형 확대 등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공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은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행복한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영유아 부모가 육아정보를 주로 제공받는 곳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이었고,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연령,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에 3, 40대의 젊은 부모를 타겟층으로 한 육아정보의 선별과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홍보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나.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영유아 부모의 육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부담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의 가치로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육아에 대한 자신감은 2.73점으로 낮았다. 특히 육아에 대한 가치로움과 행복감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육아 부담은 크지만 그에 대한 행복감과 가치로움을 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행복감, 가치, 자신감 모두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서 2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육아의 가치로움과 행복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부모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보다는 육체적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고, 양육시간이 길수록 육체적 부담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체력적 소진이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긴 양육시간에 대한 대체제로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보건복지부, 2016)하지만 맞벌이, 외벌이 가구 모두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이용대상을 유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 3세 이상의 시설 이용률이 90%에 가깝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육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와 육아에 지쳐있는 부모들을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다.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을 비용, 서비스, 일·가정 양립, 물품, 건강 관련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과 같은 비용 지원에 대한 인식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에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아 정책의 구조적 차원,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 전략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아지원 정책의 이용 여부, 이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지원 등 건강 관련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과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비용 지원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67%가 비용 지원에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비용 지원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추가적인 지원 요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용 지원에의 요구는 맞벌이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여

일·가정 양립에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가구소득과 맞벌이 여부와 연계된 차별화된 비용 지원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 미이용 가구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가 높게 응답되었다. 자녀 연령, 현재 이용기관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부모는 비용 지원에의 보편적 요구가 있으며,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요구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에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IV. 정책수요자 특성별 육아인식 및 경험 분석

본 장에서는 정책수요자 특성별로 진행된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육아지원 요구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육아의 양상과 어려움, 그에 따른 요구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와 유아 자녀를 둔 경우, 임신부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맞벌이 가정과 농어촌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그 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GI에 대한 분석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자녀 연령별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가. 영아 자녀 가정의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1) 육아실태

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 부족

무엇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의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발성이 떨어진다고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아버지 양육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균형 있는 일·가정양립의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이제 신랑이 저녁에 들어오면 한 30분~1시간 정도는 봐주다가 이제 피곤하면 자고, 대체적으로 보는 게 주말에 시간이 좀 나서. 심지어 주말에도 회사에 가거든요. (대도시 영아 부모 B)

남편하고 문젠데 ... 그때 애 한창 키울 때, 그냥 자기가 주로 해야 되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제... 그냥 마인드 셋팅 자체가 자기는 내가 막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탁하면 해주고 뭐 이런 게 저는 엄청 서운하고...(대도시 영아 부모 C)

저희는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제가 하다가 급하면 아빠 이것 좀 해주 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것도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면 잠깐 봐주는 정도. 그 리고 밖에 나가면 잘 뛰어 놀아줘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나)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 때

영아를 양육하면서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육아경험이 부족할 때, 본인이 아 플 때, 자녀 동반 외출 시에는 수유 공간이나, 기저귀 가는 공간의 부족, 유모차 이용에 대한 공간배려 부족, 자녀 행동에 대한 타인의 시선 등이 어려움으로 나 타났다.

저는 오히려 아기가 50일 정도. 이 때 뭐 네이버로 키웠거든요. 애기를 안아줘도 울고 내려놔도 울고... 정말 좌절 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교감, 소통 이런 언어 가 조금씩 되면서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게 약간 지 언어표현이 되니까 괜찮은 데 그때는 진짜...(대도시 취업모 P)

내 몸이 아플 때죠. 왜냐면 내가 제일 힘이 있어야 하고 제가 제일 밝아야 하고 제가 행복해야지 아이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참 좋아 보이고... 그러면 보고 있는 입장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힘든 게 내가 아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유해야 하는데 수유하는 데가 없는데도 많고 하니까...어떨 땐 보자기 앞에 이렇게 해서 앉아서 모유 수유 할 때도 있었 고 또 계단이 많은 데는 정말 불편해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뭐, 내가 유모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곳엔 유모차가 없다는 거. 그래서 유모차 같 은 거, 아니면 뭐 수유를 할 수 있는 장소(부족).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곳엔 못가 고 영똥한 소비를 하게 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고... (대도시 부모 L)

그리고 기저귀 가는 거치대도 많이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유모차 이런 거 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대도시 영아 부모 B)

울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솔직히... 신체적으로 힘든 거는 단련 되서 그런가 괜찮은데 나갔을 때 애가 떠 들어서 사람들이 뭐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에 지레 좀 마음에 부담되고 ‘아 여기 가도 될까? 애 때문에 어떻게 안 될까?’ 그런 불편함...(대도시 영아 부모 C).

영아를 양육하면서 사회적 단절감과 육아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출하기 힘들니까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아이가) 떼를 부렸을 때 제가 컨트롤 못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안됐을 때 너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다) 기관 이용 적절시기

기관이용의 적절시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자녀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컸을 때, 두 돌 이후에,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우려되어 보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자기가 정말 심심하고 사회성이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냈거든요. 엄마의 품속에서 충분히 있다가 친구가 필요할 때... (대도시 영아 부모 A)

최소 만 36개월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우리 ○○가 첫 번째 (어린이집)에 적응 못한 이유가 제 생각엔 애 성향도 있지만 진짜 36개월 안 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딱 9월이 36개월 되던 시기였거든요. 진짜 적응 잘 하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일단은 걸음을 완벽하게 했을 때고 말도 약간 간단하게라도 의사표현을 ‘야야’라던지 ‘우유’라든지 자기가 정말 긴박한 거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니까 그때가... (대도시 영아 부모 E)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미쳐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일찍 보낸다고 다 뭐라 했는데 내가 살려면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애보내고 여유 시간 가지고 내 시간 좀 가지고 나면 이게 상태가 괜찮아 지는 거예요. (대도시 유아 부모 H)

솔직히 0세, 1세, 2세는 너무 이른 것 같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나는 3세도 빠르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세 살 정도면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H)

라) 육아정보

육아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또래엄마들 또는 친구와 면대면 만남,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산후조리원 동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TV 육아프로그램, 동사무소 안내 등의 의견을 주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한 애기 엄마들이랑 주고받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거의 알아보는 경우도 TV 보면 육아프로그램 한번씩 보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이런 것들... (대도시 영아 부모 E)

인터넷으로는 거의 엄마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데 질문을 하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큰 애 같이 낳았던 조리원 동기들...(대도시 영아 부모 C)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엄마들하고 주고 받고 이러거든요. (대도시 영아 부모 B)

엄마들은 이제 거의 보육포털을 의무는 아니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팝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게 연계해가지고. 아니면 배너가 많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도시 영아 부모 C).

이쪽으로는 아예 인터넷으로 안 찾고(웃음) 동사무소나 보건소 같은데 가면 안내장 같은 것, 저는 그거를 주로 보는... 거기서 저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전문상담원하고 담당자로 일대일로 대화받길 원하고 그런 식으로 정보 수집하고 있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영아의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정보 내용은 그 시기 음식, 육아 관련 행사 등이며 이와 함께 정보의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애기 먹이는 거 있잖아요. 먹이는 게 매일 고민이에요. 매일 반찬 똑같은 반찬 돌리고 식단 같은 거 참신한 거 이런 거 보고 따라 만들 데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대도시 영아 부모 C)

엄마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드니까 돈이 안 들면서 애들을 체험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거. 뭐 지역축제나 행사 같은 거. 사실 내가 어떻게 신문 같은데 보거나 인터넷 보거나 지나가며 보고 어 저기 있네. 이렇게 해서 아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거를

정리 짝 해서 5월 어디 무슨 지역축제나 행사일정 짝 이런 거 있으면 주말마다 고민 안 하고...(대도시 영아 부모 C)

저는 좀 (정보를)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주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하니까 (대도시 영아 부모 D)

2) 육아에의 인식 및 책임

가) 자녀를 양육함이 행복하다

행복하다기 보다는 이제 내 자식이니까 라는 그 생각이 더 크고(웃음) 사실은...(대도시 영아 부모 A)

이 아이가 커 가면서 보여 지는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엄마라고 불러 줬을 때 그 느낌, 그런 게 행복이 사소한 거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아주 커다란 행복을 바라기 보단 애가 만약에 발을 한 발짝 떼었어요. 걸었어요. 그런 거 보는 사소한 그런 소소한 거 있잖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나) 자녀를 양육함이 가치있다

저도 진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거, 그거보다 열배, 백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사일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아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보는 거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자녀를 키우는 일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네.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커간다는 느낌이 들 때 내 스스로가 어른이 되구나. 그래서 꼭 얘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대도시 영아 부모 E)

다) 자녀를 양육함이 자신있다

나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내가 첫째도 이렇게 키웠지

만 둘째도 이렇게 키우고 셋째도 이렇게 키우지만 항상 생각이 너무 바뀌는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자신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리니까 먹고 물리적으로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런 거야 자신있는데 점점 클수록 교육을 해야 되고... 내가 과연 진짜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자신감. 자신감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커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죠. (대도시 영아 부모 E)

라) 자녀를 양육함이 만족한다

여러 가지로 만족은 아닌 것 같고 불만족도 아니고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못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게 아쉽고 그래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근데 육아에서 만족스럽다는 것은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정도지, 노력한다 이런거지, 이걸 완성이 됐다거나 만족스럽다거나 뭔가 다 갖춰진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대도시 영아 부모 E)

마) 자녀를 양육함이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죠.(대도시 영아 부모 A)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외벌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좀 크고(대도시 영아 부모 C)

아이가 크면서 제 가치관이나 제 그런 거에 너무 좀 속박 될 까봐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대도시 영아 부모 C).

분명히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책임감, 의무감 같은 그런 일. 안하고 싶어서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니까 그런 무게감이 많이 큰데...(대도시 영아 부모 D)

저도 아이들한테 받는 기쁨이 크긴 하지만 육아 자체가 너무 힘들고, 혼자서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혼자 이겨내야 될 게 많으니까. 힘든 점이 있죠. 항상 힘에 부치고... (대도시 영아 부모 E)

바) 경제적으로 환산한 육아의 가치

저는 종전에 직장생활하면서 받아왔던 그 금액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웃음) 그걸 포기하고 내가 엄마라는 직업을 다시 가지니까 한 3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대도시 영아 부모 D)

월급으로 될까요? 그냥 우리가 직장 다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유아, 어린이 집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 월급 적게 받고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24시간을 아이 옆에서 꼬박 쭉그리고 자면서 보거든요. 음. 한 달에 한 800만원은 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힘들게 일하는 거고 나도 뭐 밖에서 일하는 대신 집에서 아이 보는 것도 일이라 생각하면 그냥 한 500만원 정도... 우리 신랑도 자기가 밖에서 일을 하지만 집에서 하루 아이를 보면 이게 훨씬 힘들다고 하거든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3)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부모들은 임신·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비용지원에 대한 정책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받는 거 보육료, 애기 보육료랑 그 다음에 출산 그거랑 또 애 키우면 양육비. 그게 다고 다른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제가 누리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학비지원. 그리고 가정지원센터, 혼란스러울 때 가서 면담도 받고 뭐 부부교육 있을 때 혼자지만 가서 이론적으로 강의 이런 것도 관찰했던 거 같고 애들을 위해서 이용한 거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대도시 영아 부모 D)

제가 받은 거는 다 유용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얘기 들어보면 양육수당 받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그거(양육수당)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유를 안 먹으면 다른 것

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양육수당이 가장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대도시 영아 부모 E)

가)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이용에의 어려움은 아이돌보미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영아 가정으로 타인이 방문한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긴급 상황에서 이용의 어려움 등이다.

그걸(아이돌보미) 이용하는 게 저는 좀 그 엄마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가정에서 또 그걸 해야 된다더라고요, 엄마가 처음 온 사람한테 믿을 수 있다는 그거를 준다든 거 자체가 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온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또 항상 무슨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이용하기가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아이돌보미 그거를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또 급하게는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검증됐다.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연수도 받고 하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C)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오신 분에게 잠시 그렇게 맡기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일단은 절차 자체도 복잡하구요. 진해에 있을 때 몸이 아파서 신청을 해봤는데 기다리라는, 대기 신청자가 많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대도시 부모 K)

나) 시간제 보육

양육자에게 refreshment 개념의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업주모의 경우 양육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시간제 보육 이용에 대해 필요하기는 하나 자칫 도덕적 해이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 양가적 감정을 지니기도 한다.

정말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보는 게 저는 힘든 게 하루 종일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중략) 우울증 가까이도 오고 ... 한 2~3시간씩 시간제 돌보미를 쓰면서 제가 자유가 생기니까 자유라기보다 장보거나 보통 그랬거든요. 그런 거라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대도시 영아 부모 E)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애 엄마가 직장도 안 다니는데 누가 손가락질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애한테도 스스로도 불안하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해 봤어요. 있는 건 아는데... (대도시 영아 부모 D)

제가 시간제 보육도 신청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 얘기를 2시간만 딱 이렇게 해서 낯선 환경에 두고 적응할 때 짬 데리고 오는 것도 애한테 스트레스 일 것 같고...(농어촌 부모 C)

다)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엄마들로부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자녀양육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가족품앗이, 육아정보의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들 모아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품앗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혼자면. 둘째 놓고 나니까 힘들어 지더라고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엄마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행사가 있다. 같은 나이 또래이니 까 우리 애는 이런데 너희 애는 어떠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제일 친근한 누워서 보는 건 인터넷인데 그래도 직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하고 또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라) 육아지원 바우처

바우처인데...통합놀이처럼 동화를 읽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뭐든 동물이나 사물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런 같이 통합놀이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급여수준, 생활수준에 따라서 등급별 기준으로 서류를 받고 그 애들만 특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걸 평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4)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부모의 적극적 탐색의 필요성,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기능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동사무소를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품앗이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공기관 이런 데 이용을 해야지 정보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대도시 영아 부모 A)

그러면 이제 애들 육아정보나 이런 거를 쉽게, 쉽게 우리가 찾아서 안 들어가도 보육포털에 밑에 배너나 광고든 이용해 가지고 좀 관심 있는 엄마들은 클릭하면 연결될 수 있게... (대도시 영아 부모 C)

정책이 정치적 의도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과정 비용지원의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 추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대통령에 따라서 아니면 국회의원 당선 공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많더라 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집은 대개 크게 타격을 받기도 하니까 그런 게 좀 잘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국가에서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즐기지 않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 할 수 있는 한계인 거 같아요. 없앤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대도시 영아 부모 A)

영아기에는 야간에 자녀가 아프기 쉽고, 갑작스런 병원 이용이 많아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아니 오전에는 괜찮은데 밤늦은 시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119 밖에 믿을 수...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달빛 병원 뭐 있다고 해서 그 가깝지도 않아요. (대도시 영아 부모 A)

아이돌보미(시간제 돌보미) 제도의 홍보 부족과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음. 저는 시간제 돌보미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잘 쓰고 있었고 만족도가 높아서 주위에 얘기했는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조금 알고 있어서 불신을 하고 저는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분이 이웃에 사는 분이기도 했고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거긴 한데 그런 사람이 그분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필요한 육아관련 정보와 지식을 전해 줄 육아 멘토를 필요로 하고, push service로 정보를 제공해줌에 대한 요구가 있다. 부모 스스로가 놀이 방법, 훈육 방법 등 실제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강제는 아니더라도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격연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부모 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이수하면 도서상품권 한

장... (대도시 영아 부모 C).

엄마가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훈육방법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워 예비군 민방위 훈련처럼 엄마들도 나라에서 시간을 빼서 워킹맘들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전업주부들은 자극을 받을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니가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생겨야지만 자극이 되고 헛갈렸던 것들도 분명해지고 이런 게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영아 부모 E)

부모교육이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였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했던 예비군 훈련처럼 엄마들이 이제 몇 세부터 몇 세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통지서가 와서 워킹맘도 시간을 내서 몇 시간 동안 엄마들도 다른 일하다가도 이걸 꼭 들어야 하는 필수적인 게 됐으면 좋겠어요(대도시 영아 부모 E)

전업주부로 육아전담 상황에서 refreshment 기회가 필요하며, 행복한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한 육아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좀 더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도시 영아 부모 A)

방금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행복할 수 있게 진짜 애 낳아서 기르는 게 우리가 좋아서 낳았으니까 마땅히 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즐겁게 육아 할 수 있게 이제 엄마들을 위해서 뭐 연수 같은 거도 좋고..(중략) 그거처럼 엄마들 좀 응원하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연수... (대도시 영아 부모 C)

전업주부기 때문에 워랄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식의 육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기를 어린이집에 놔두고 뭐 하러 돌아다니는데’ 뭐 이런 식의. 왜 집에 노는 여자가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어쩌면 워킹맘들은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시간과 공간을 누리고 그리고 상도 받지만 전업주부는 그런 게 일절 없으면서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육아.. 음.. 참 어렵네요. (대도시 영아 부모 D)

나. 유아 자녀 가정의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1) 육아실태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족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오롯이 자녀양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음. 지금은 유치원을 가니까 유치원 가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양육에 무조건 저를 올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유아 부모 F)

뭐 밥 요리하거나 그런 시간 빼고는 항상 묶여져 있죠. (대도시 유아 부모 G)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으므로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통 좀 빨리 와도 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잠시 놀아주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하루 많이 놀아주면 한 30분. 대부분 평일에도 1시간 놀아주면 진짜 많이 놀아준 거고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책 같은 건 아빠가 읽어 주면 좋다해서 억지로라도 책하고 퍼즐은 아빠가 해라해서... (대도시 유아 부모 G)

일단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놀이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라 매일 있는 게 지겹지 솔직히. 지겹지. 아이들도. 그런데 아빠가 놀아주면 확실히 우리하고 노는 거랑 좀 다르게 몸으로 놀아주니까 팔에 매달리고 몸으로 씨름 같은 거 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어머니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또 아버지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시간 만큼은 육아로부터 벗어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일단 온종일 저만 아이들을 보다가 신랑이라도 오면 저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부탁하면서 공통으로 할 수 있어서.. 분담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대도시 유아 부모 I)

저는 많이 도움 되죠. 많이 봐주니까. 저는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TV를 보던지 제 생활을 하고 남편은 애들이랑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몸으로 놀아주기를 자기 전까지 해주고... (대도시 유아 부모 H)

한 번 씩 이렇게 외출하고 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루 휴가를 주는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게, 하고. 근데 저는 솔직히 불안해서 못가요. 저 같은 경우 에는. 아빠도 물론 잘 볼 텐데... (대도시 부모M)

갑작스런 돌봄 필요 상황에서는 부부뿐 아니라 성장한 자녀의 도움이 있기도 하였다.

저는 (아이) 위에 큰애가 있거든요.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간단 간단 한 몇 시간씩은 자기들끼리 있을 수도 있고 또 밑에 친구 집이 있으니까 잠시 부탁해서 갈 수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수월해졌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나)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 때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대한 질문에는 자녀가 아플 때, 육아정보 부족 할 때, 동생이 생긴 큰아이로 인해, 어머니로서 현명하게 하고 있으나 스스로 역량에 대해 자신없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저는 아이 아플 때,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꼭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대도시 유아 부모 F)

아기일 때 태어난 지 얼마 안됐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정보는 얻을 데도 없고 아기는 갑자기 막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도시 유아 부모 G)

동생 생기고 애가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데 (중략) 자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울기 시작하는데 달래지지도 않고 이럴 때는 막 어쩔 줄 몰라서 딱 한 번 껴안고 같이 울었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엄마로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잘 안될 때... (대도시 유아 부모 H)

다) 기관 이용 적절시기

기관 이용 적절시기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기로 3~4세 이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제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3~4살 때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G).

그러니까 어중간한데 저는 아이를 그때(28개월) 보내게 된 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래 문화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전부 요즘 일찍 가니까 놀이터 가도 아이들도 없고 엄마랑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또래)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문화센터 가는 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두 돌 지나고 4살이고 아이가 말도 잘하고 해서 보내기는 했거든요. 보냈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 보낼수록 적응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라) 육아정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육아정보를 TV 방송, 핸드폰 어플, 동영상, 책, 지역 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얻는다고 하였다.

EBS 부모 그거도 좀 보고 그리고 예전 프로그램인데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아니면 요즘에 카카오토리 보면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이란 어플도 있고...그러면 소식 받기를 해 놓으면 읽든 안 읽든 소식이 오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겠다 싶으면 고거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그거(즐거찾기) 해봤다가 보고 이런데... (대도시 유아 부모 F)

동영상, 유튜브나 그런 거 아니면 추천하는 책, 가끔씩 인터넷 하다가 무슨 카페, 맘스 카페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런 이런게 있다더라 하면 찾아보고... (대도시 유아 부모 G)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지침서, 훈육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이들 마음을 잘 모르니까 (중략) 지침서 같은 뭐 아이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는지... (대도시 유아 부모 F)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들이 화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훈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제가 딸을 혼내는 걸 보면 둘이 그냥 싸우는 것 같대요. 제가 엄마고 딸은 딸이 아닌 거고 둘이 동등한 입장에서 치고 박고 싸우는 것 같다고 ‘훈육이 절대 아니다 니가 지금 하는 건 훈육이 아니다’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G)

2) 육아에의 인식 및 책임

가) 자녀를 양육함이 행복하다

힘은 들지만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로 내려가면서 더 사랑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녀가 주는 반응이 행복을 준다는 것이다.

양육 자체는 행복하다.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고 한데 저는 진짜 똑같이 너무 사랑스럽고 애들이 잘 때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I)

힘은 드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기도 한데 그냥 아이들이 웃거나 ‘엄마, 엄마’하고 와가지고 그냥 예쁜 말 한마디하고 뽀뽀 한 번 해주고 하면 그냥 이때까지 힘들었던 게 뭔가 그냥 아무 생각이 안나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제가 화가 나면 와가지고 ‘엄마 아프지’ 하면서 해주니까 정말 귀엽고 그래서 행복도 느끼는 거 같고... (대도시 유아 부모 J)

행복하지만 지원 없이 우울증을 초래할 만큼 힘든 육아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호소한다.

혼자서 정말, 타지에서 또, 애기 혼자 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우울증이 오지. 애기만 보면 예쁜데, 혼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건. 첫째 때는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둘째는 쉬운데... (대도시 부모 M)

행복 부분은 거의 정말 없지만, 애들이 웃고 엄마한테 안기고 애교를 부리고 그럴 때 그래도 이 맛에 참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노동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수는 하나도 없는 진짜 봉사. 그래도 내 애니까 참고 견디고 보는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A)

나) 자녀를 양육함이 가치있다

자녀의 양육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반드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저는 제가 능력이 되고 이러면 아기 기관 같은데 안보내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기가 어리니까 큰 애한테 전혀 못해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아이한테 유치원도 적게 보내고 될 수 있으면 여행 같은데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아이 키우는 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가치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들지 엄마 손에서 애가 만들어 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새 스트레스예요. (대도시 유아 부모 G)

지금 이 시기가 딱 한 번 밖에 없는 시기니까 제가 돌볼 수 있고, 아주 가치로운 일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농어촌 부모 B)

유아기에 들어서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느낌이 서운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점점 커가면서 조금씩 반항도 하고(웃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로운 건가? 이렇게 회의감이 들 때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가치로운 일이겠지요. (농어촌 부모 A)

다) 자녀를 양육함이 자신있다

양육에 자신은 없으나 정답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신없어요. 자신없는데 육아서적 가끔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진짜 애기 키우는 데는 정석이 있다든지 왕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현재는 자신있지만 향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역할 감당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하였다.

자신있는 게 지금 유아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는 것도 그렇고 알아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보여 줄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너무 즐겁고 좋은데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수준이 높아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로서 내가 이 시대의 그 수준에 못 맞추게 될까봐 살짝 걱정되는 그런 건 있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I)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아이가 커가니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제가 이 아이를 잘 낳은 게 맞나 내가 엄마로써 이 아이한테 안 좋은 게 생길까봐, 잘못 키워 지지는 않을까 그 불안감이 요즘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A)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 그런데 잘 할 수 있다는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부모 B)

라) 자녀를 양육함에 만족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바람직한 부모라는 확신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또래 자녀를 둔 다른 부모와의 상대적 비교 시 만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만족은 하는데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조금 더 많이 강의도 듣고 싶고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들어서 아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싶죠. (대도시 유아 부모 J)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육아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온 거고 또 EBS '부모'를 항상 보거든요. 되게 도움이... 너무 지식이 없어서 애가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진짜 처음 엄마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정말 배워야 되겠다. (대도시 유아 부모 G)

다른 엄마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면 주위에 엄마들이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긴 하는데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 같은 거 하지말자 비교 같은 거 안 한다. 이러면서도 내가 우리 애한테 뭔가 부족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들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완전 만족하지는 못하며 특히 자녀양육으로 어머니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인지할 때 그런 경향을 보였다.

100% 만족하지 못해요. 모든 게 다 아이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침에 눈뜨면 뭐 챙기는 거부터 시작해서 애(등원)보내고, 보내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또 아이생각 아이는 뭘 할까, 몇 시에 데리러 가야하지 오면(하원하면) 또 뭘 하고 같이 지내줘야 하는데 뭘 할까 잠자기 전까지도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면서도 자고나서도 또 깨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내 시간을 보낼 때도 항상 아이한테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이 키우려고 사는 사람은 아닐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조금 불만스러워요. (대도시 유아 부모 I)

마) 자녀를 양육함이 부담스럽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독박육아를 하다보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극에 달하면서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정 내 아동학대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부담은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안했어요. 내 새끼라서...(대도시 유아 부모 F)

아직까지는 부담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G)

제가 혼자 육아를 딱 했을 때 진짜 아무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뉴스에서 이상한 요즘 참 안 좋은 일이 나오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완전히 (육아에) 올인 하고 있으니까. (대도시 유아 부모 G)

특히 3살까지의 영아기가 양육이 어려워 후속출산을 계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 계획이 가족계획이 애 들인데 지금 못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람을 만들어 놔는데 또 다시 임신을 해서 낳아서 솔직하게 3살까지 남이 키워주고 그 이후에 저 좀 키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유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다시 만들려면 못하겠다. (대도시 유아 부모 G)

바) 경제적으로 환산한 육아의 가치

한 500만원은 받아야죠.(웃음) 회사 다니면서 받았던 평균 월급도 있지만 회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6시까지 마치고 식비하고 다 나오고 근데 저희는 밤에도 뭐 주말도 없이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면 적나? (대도시 유아 부모 G)

(환산이) 안 될 것 같아요. 환산이 안될 만큼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다. 환산을 해봤는데 누가 일당을 만약에 십만원 준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케어하라고 하면 누가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이것(자녀양육)은 진짜 무한대의 가치를 넘어 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생각하면 돈은 모르겠고 남의 아이를 우리 아이로 보라고 하면 한 500만원요. (대도시 유아 부모 I)

저는 최소 300만원 정도요. 만약에 이제 제가 딱 아이를 봐준다면 근데 단기간은 가능하지만 장기간 300만원 받고 계속 하려면 그건 또 못할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저는 일, 이백 주면 안 해요. 이 일을 안 하고 말죠. 아 참, 내 새끼니까 키우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 셋째를 가졌다고 했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아, 안 되는데, 하면서. 아 차라리 그냥 나가서 나도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둘째 좀 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앞에 다가오는데 이제 셋째를 가졌다고 하니까 좀 처음엔 많이 절망적이었어요...글쎄요, 노동의 강도로 본다면 한 300만원 줘야 되지 않을까요? 멀티인데 멀티... (대도시 부모 K)

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애들 더 많이 챙겨준다고 할 순 없지만, 뭐 돈으로 따지면 두 애 키우면서 직장생활 할 때 월급보단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보다 내 몸도 너무 힘든데 그때보단 제가 심적으로 훨씬 행복하거든요.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200만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대도시 부모 N)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왜 우스갯소리로 그게 있잖아요, 애들이 자야 내가 퇴근시간이다. 그리고 애들 깨면 야근.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보통 임금의 한 1.5배 정도는, 두 배까지는 못해도 1.5배까지는 된다고 생각해요. (대도시 부모 M)

저는 500만원이요(모두 웃음) 한 인간의 생명을 낳고, 낳는 것도 정말 가치롭고 정말 힘든 일이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부수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500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A)

제일 비싼 노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농어촌 부모 C)

3)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육아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육아지원 정책 이용이 적다고 하였다.

그런 걸 모르니까 이용 안하는 게 훨씬 많은 거 같아요. 백가지라면 제가 나라에서 하는 게 아는 거라곤 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지역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지원 등을 들었다. 역시 부모들은 비용지원에 대한 부분의 체감도가 높았다.

첫째는 육아수당, 임신하면 왜 출산(지원금) 그거 주잖아요. 바우처 그런 거 받아봤고 그리고 뭐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기관에서 주는 양육자녀 교육비... (대도시 유아 부모 F)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지원금... (대도시 유아 부모 G)

국가의 보육료 지원 제도 자체가 처음에는 고마웠으나 점차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는 그 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

보육료 지원도 되지 네 제일 처음 저희 첫째 때, 일곱 살 때는 그런 게 광고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답답해서 저한테 계속 설명해주시고, 그런데 그걸 나라에서 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너무 이

제 터무니없이 나라에서 왜 애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돈을 주냐, 아니면 내가 아직 키우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뭐 나한테 돈을 준다 이렇게 하기에, 그게 이해가 안됐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당연한 듯이 됐는데, 그게 이제 엄마들한테 터무니없게 작은 돈이고... (대도시 부모 L)

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짜 일주일에 딱 하루는 (정보 찾는 것이) 그냥 하루일과예요. 여기 도서관 들어가서 뭐있나, 저기 도서관 들어가서 뭐있나, 오늘은 육아교육진흥원에 무슨 창이 났나, 그러니까 이 구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다 들어가 보고 주말에는 어디 데려가야 하니까 저도 집에서 나오고 싶고 그러면 행사 다 찾아보고... (대도시 유아 부모 I)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처럼 영유아 부모 간 연계와 재능공유 등에 대한 호응이 높았고, 지역도서관에 대한 이용도 많았다.

품앗이로 엄마들 4명에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부산맘 (카페)에 모아서 했어요. 둘째 임신할 때 부터해서 지금 4~5년 되나, 품앗이도 3~4년 되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이런 정보도 있더라하고... (대도시 유아 부모 H)

저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이 프로그램도 알차고...(대도시 유아 부모 H)

4)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육아정책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가정으로 배포되는 정보나 사이트의 활성화를 들었다. 특히 육아정보를 연령별, 상황별로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원하였다.

그런 쪽의 정보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라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아이 놓고 나서 출산 신고하러 가서 잠시 이런 게 다지.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나 사실은 모르거든요. 아니면 또 알음알음 아는 엄마들이 전화 와서 어디 뭐 있다더라 들어가 봐라 이러면 들어가던지 누구를 통해서 듣고 하지. (대도시 유아 부모 F)

아무래도 이런 정보 같은 게 내가 조금 빨리 알 수 있게끔 가정으로 바로 배포된다거나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육아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면 딱 들어가면 아이에 대해서 요 나이 연령대니까 이런 나이 연령별로 이런데서 뭐라 해야 되나? 정보방이 있다든지 이러면 들어가서 찾아보고...(대도시 유아 부모 F)

집에 전업주부들은 스스로 찾아서 교육도 들으러 가고 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제가 계속 직장을 다녔었으니까. 그런 책자 같은 것을 개월수에 맞게 프로그램 이라던지 들어야 할 것들을 해서 미리 엄마들에게 정보를 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육아과정에서의 정보력이 주요하다는 의견과 역시 유아 부모들도 push service 개념으로 육아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첫 접근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근데 정보력의 문제인 거 같아요. 저는 보건소가서 그런 이야기를 수업, 아기마사지하는 방법 등의 수업이 있어서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엄마들의 정보력 문제인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H)

그러면(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중략) (아이 예방접종처럼) 날라 오듯이 그런 거라도 날라 와주면... (대도시 유아 부모 G)

제 생각에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관심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찾아보지 않을까? 몰라서 처음에 시작을 못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작이 힘든 거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바람직한 양육환경으로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아 멘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부모교육 해가지고 정말 임신했을 때부터 배우면 좋겠는데 꾸준히 아이가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이런 발달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모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유아 부모 G)

진짜 이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돼야 하잖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F)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 가졌을 때 부모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6개월 정도 장기간 프로젝트로 해서요. 엄마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으면 훨씬 더 잘 키웠을 텐데... (대도시 유아 부모 J)

요즘에 예비맘, 산모교실이라고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거나 TV광고를 봐야지만 알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홍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적으로 예비맘들은 요즘 국가에서 돈을 주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카드를 쓸 수 있게 그런데 이거(예비엄마교육)을 수행해야지만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도시 유아 부모 I)

아이 어릴 때 한 살에서 두 살 사이에 그때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미리 키워봤던 사람하고 상시 대화할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지 않지만 refreshment 개념으로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한 숨 돌릴 돌봄 제공에 대한 의견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이 다 키운 엄마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 주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잠시 봐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라도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애를 잠시라도 맡기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잖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H)

육아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지원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울증도 오고 털어 놓을 사람이 상담사가 있으면 저는 그건 좀 이용해 볼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I)

키워본 사람들은 이때 이런 단계를 다 알잖아요. 키우고 나니까 그게 들어오지만 그 전에는 막연하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다. 출산 전 가정의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1) 육아실태

출산전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으로 체력적인 부분과 가족 내

역할 부담이 미미한 것을 꼽았다. 특히 노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요. 다둥이가 될수록 위에 애들도 챙겨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면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가사분담을 많이 안 해 주거나 참여도가 극히 낮잖아요. 휴일도 잘 없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요즘엔 특히 노산인 경우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대도시 부모 K)

첫 출산 시기에는 육아 경험 부족으로 육아상황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둘째부터는 여러모로 내려놓는 육아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병원을 가야되는지 안 가야되는지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엄마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태교나 뭐 육아 용품 이런 거나 신경 쓰지, 애가 아플까봐 미리 신경 쓰는 엄마는 없거든요. 낳을 때부터. 초산일 때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게 크게 그건 안 와 닿고, 육아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초산일 때는... (대도시 부모 K)

애들 키워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아이의 성향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인지 좀 지켜보고... 그냥 애 성향을 좀 보고 그 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대도시 부모 L)

2)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임신·출산 지원하는 카드, 보육료 지원 등 비용지원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카드가 지원하는 비용이 실제 병원 이용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신하면 고운맘 카드 지원 되잖아요.... 쓸쓸했죠. 셋째 때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많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산모들 보면, 산부인과 자주 안가고. 우리나라가 산부인과를 많이 가는 문화라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혜택은 좋죠. (대도시 부모 K)

그리고 고운맘 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뭐 산모들이 병원 가는 날짜 너무 잘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작아요. 결국에 8개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되고, 본인의 돈이 이제 그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많이 하다보니까... (대도시 부모 L)

임산부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출산 시 병원과 동사무소를 통한 정책 안내가 효과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병원에서 얘기를 또 해주니까. 보통 뭐 산부인과에서 기본적으로 신청하라고 딱 내려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대도시 부모 L)

근데 그것도, 어차피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그나마 정보습득이 쉬운 것 같아요. (대도시 부모 K)

좀 바뀐 게, 언니가 최근에 (아기를) 낳았는데, 동사무소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하니까, 다음 달에 바로 보험료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따로 신청을 뭐 굳이... 안 해도 출생 신고하면 바로바로 나오게 돼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대도시 부모 L)

셋째 자녀는 각종 세금 같은 거 좀 혜택이 있어서 예전에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올해부터는 이제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전기세, 워 수도세 이런 거 감면해주는... (대도시 부모 L)

확실히 복지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고 있네요. (대도시 부모 K)

그러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마음놓고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육아가 너무 엄마에게 의존하여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아이돌보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대도시 부모 K)

3)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정책의 홍보 부족으로 활용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는 현재 마련한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정책 접근성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다른 거는 소식을 몰라서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아는 언니가 얘기하는데... 뭐 나라에서 쌀도 주고, 뭐 애기 우유도 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별로 홍보 자체를 잘 안하니까... (대도시 부모 L)

다면적인 지원으로 출산 부담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었으나, 산후조리 과정에

대한 지원 요구도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첫째 때는 별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둘째, 셋째 되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와 달더라고요. (대도시 부모 K)

산후 조리원이 되게 부담이 되요. 비용도 그렇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비용이 해결된 사람도 첫 애, 둘째를 맡길 데가 없거나,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돈을 떠나서 애를 낳으면 1-2주라도 쉴 수 있게끔 나라에서 해주면 참 좋겠다... (대도시 부모 K)

가족 내 양육 역할 분담이 균형적이지 않아 어머니 혼자의 '독박육아' 현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대안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요즘 대부분 핵가족화 되어있고, 아빠들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아빠 육아 휴직이나 이런 게 별로 보편화 되어있지 않아서, 대부분 독박육아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대도시 부모 K)

출산 예정인 부모의 입장에서 육아 경험이 부족하여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나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되므로 24시간 상담 가능한 창구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엔 핵가족화 되어 어른들이 안계시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네이버의 도움을 받지요. 막, 카페 이런 거 도움을 받는데. 이제 그 때 이제 아이가 많은 엄마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그거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든지 육아에 대해서 24시간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도시 부모 K)

2. 부모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육아 지원 요구

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1) 육아실태

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족

맞벌이 상황에서는 부부 간 육아의 분담이 비교적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가정도 많았다.

저는 좀 제 생활을 가지고 싶어서요. 1~2시간 정도 책도 보고, 아기 잘 때 밖에도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하루 제가 그렇게 야외활동을 하면 남편은 그 다음날 자기 시간을 주고 교대로 번갈아서 대신 평일에는 둘 다... (대도시 취업모 N)

주말에 이제 시간이 나면 오롯이 남편이랑 같이 무조건 24시간을 가사와 육아를 같이... (대도시 취업모 P)

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나 급할 때 혈연가족의 지원이 있거나 부부 중 한사람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뭐 친정이나 시댁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양가 부모님들께 맡기는 편이에요. (대도시 취업모 P)

저는 없어서 일단 엄마 아빠 두 명 중 한 명은 무조건 포기를 해요. (대도시 취업모 N)

자녀양육 자체가 맞벌이 부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직장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정이라는 게 공존은 하지만 맞벌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있는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확실히 가정에 대한 행복의 가치라던가 그런 결연체로서 결속력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커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딴 생각을 안 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분명히 스트레스 받은 부분에서 되새기면서 잠이 들면서 내일 하루 어떻게 시작하지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오롯이 그 시간에 아이와 있는 그 삶을 즐길 수 있어서 아 이게 행복하고 그냥 현실을 살고 있는 약간의 삶이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대도시 취업모 N)

나)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 때

맞벌이의 경우, 육아는 전쟁 같은 상황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전쟁이거든요. 아침에 애들 막 보내야 하고 밤에 오면 밥해서 먹여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 자체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또 쉬어야 되지. 너무 피곤하고 한니까... (대도시 유아 부모 J)

맞벌이여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기관이나 대리양육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인데 주위에서는 계속 영아기 부모의 직접양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을 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제일 스트레스거나 속상한 부분은 내가 아이를 맞벌이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관에 맡기고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누가 물어봐요. 그럼 그걸 대답해 줄 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오래?, 그렇게 어린데?’ 이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도 제일 잘 안다고요. 3년 동안 (가정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다는 거를. 근데 그걸 자꾸 반 강요식으로 모범답안을 나에게 제시해 주듯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도시 취업모 N)

자녀양육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저도 똑같이. 저는 거의 애기랑 붙어있는 일을 이렇게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 이유도 이 아이의 시간에 맞춘 걸(직장으)로 구한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대도시 취업모 P)

다) 기관 이용 적절시기

언어적 자기표현이 가능한 4세 정도, 또는 아예 어린시기에 더 적응이 쉬울 수 있으므로 12개월 이전 등 기관이용의 적절시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였다. 그러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기관 이용 시기를 자의로 정하기보다는 직장 상황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자기표현이 잘 되는 4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도시 취업모 O)

저는 오히려 돌 전. 12개월 전, 10개월 이럴 때 (중략) 적응하는 게 돌 지나면서 가는 아이들은 적응을 오히려 더 못하더라고요. 엄마 품이 너무 그리운 거고 개네들은 한창 낮가림이 심할 때니까 조금 더 적응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대도시 취업모 P)

자아가 아니라 조직이 정해준 어떤 시간 이후에 맡겨야 되는 수 밖에 없는 거고, 분명 부모님들이 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2가지 일거예요.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보육이 필요해서,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아이 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일 텐데 지금 저희가 선택하는 거는 어쩔 수없이 다 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아 나 2년 동안 설 수 있는데 12개월에 보내야지. 이게 아니라 1년 이후에 복직해야 하기 때문에 10개월 이후에 보내야해! 라는 머스트 조건이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아 막 비교해보고 좋을 때 보내야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대도시 취업모 N)

라) 육아정보

면담을 통해 인터넷, 아이 키워본 선배 등이 주요 정보처임을 알 수 있었다.

전부다 진짜 네이버로 키워요. (웃음) 전부다 검색으로 뭐. 또 애를 키워본 육아 선배들... (대도시 취업모 P)

필요한 육아정보는 연령에 맞는 놀이 방법, 의식주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

놀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령에 맞는 놀이요. (대도시 취업모 P)

의식주. 의식주라고 해서 아이들이 클 때 날씨별로 월 입혀야 하는지...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간식들을 단계적으로... (대도시 취업모 N)

나는 아플 때에 대한 것.(중략) 집에서 간편하게 고열이 났을 때 그런 응급 처치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가정에서 할 수 있게... (대도시 취업모 O)

영유아기 부모 간에 육아 정보 활용의 격차가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정보가 부족하기 쉽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되면 좋잖아요. 아는 엄마들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직장맘들이 많잖아요. 그런 엄마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대도시 유아 부모 J)

2) 육아에의 인식 및 책임

취업모의 경우, 직장근무로 인해 육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전업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양육시간과 무관하게 크다고 느끼고, 가치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고, 경제적, 사회적 책임감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 자녀를 양육함이 행복하다.

저는 힘든 거는 분명히 있고 삭막하다는 느낌 대게 많이 받는데 왜냐면 아침에 아이를 보내고 이제 돌아오면 밤이잖아요. 근데 양육 자체에 대한 행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대도시 취업모 N)

어떻게 보면 너무 시간이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 뽀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예쁘다 생각하고 아 지금 밖에 못 봐준다고 그 미안함과 죄책감 플러스 이 모습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때 캐치하지 않으면 내가 영영 못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도 대게 더 행복하다 하는 걸 스스로 주지하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도시 취업모 N)

아이가 어리면 재가 재롱을 싹 부리면서 ‘엄마 좋아, 사랑해’ 이런 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죠. (대도시 취업모 P)

나) 자녀를 양육함이 가치있다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아이니까. 좀 행복감이나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좀 부모라는(울음).....네. 하나의 사회적 지위를 또 주는 아이니까.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진짜 그래요. (대도시 취업모 P)

다) 자녀를 양육함이 자신있다

자녀양육에 대해 어린이집 지원을 받으므로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

나보다 어린이집이 더 잘 볼 수 있겠다하는 나도 모르는 의지를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거에 대한 자신감, 어 나 정말 잘 키울 거야! 대단한 아이가 될 거야! 이것보다는 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이런 기관과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훌륭히 해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나 혼자 하면 분명히 어려울 거야 하는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은 존재해요. (대도시 취업모 N)

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드는 딱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대도시 취업모 O)

라) 자녀를 양육함에 만족한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 못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이는 애착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만 아 그런 만족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 같아요. (대도시 취업모 N)

마) 자녀를 양육함이 부담스럽다

부담이 되긴 되죠. 둘째를 굉장히 망설이게 낳았어요. 이게 뭐 좋은 일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나를 바라보는 내 책임감이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부담이 되긴 되요. (대도시 취업모 P)

경제적인 부담. 그래서 사실은 일을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도 못 그만두는 이유

가 내 아이를 어쨌든 조금 더 넉넉한 환경에 풍족한 환경에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도시 취업모 O)

바) 경제적으로 환산한 육아의 가치

양육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들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어머니들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사랑 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정신적 교감이라든가 신체적 교감을 가지는 시간이 적은 거 같아요. 기껏해야 업고 설거지하기. 설거지라는 노동 플러스 정신적인 아이와의 교감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육아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시급 만원 정도... (대도시 취업모 N)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집에서 아이를 보는 시간이 7시간 정도니까. 7시간이라 해도 막 중노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내 휴식시간도 있으니까 그냥 내 월급에 비례해서 200만원 정도... (대도시 취업모 O)

저도 누가 제 아이를 딱 육아만 해서 본다고 하면 200만원을 줄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도시 취업모 N)

3)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임신·출산지원 정책으로 보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해 보건소를 자주 가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엽산제, 철분제. 미역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산모 정책도 해주고 하지만... 네. 보건소에서 했던 정책... (대도시 취업모 N)

나는 사실은 뭐 보건소에서는 출산도우미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출산 보조금 나오는 것 (중략) 보건소를 직장 다니면서 자주 갈 수가 없어 보건소 혜택을 잘 누리긴 사실은 어렵긴 하죠. (대도시 취업모 O)

출산휴가는 취업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 정책이었다.

첫째 때 출산 휴가 받은 거랑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그 정도 받은 게 다예요. (대도시 취업모 P)

4)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취업모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산 도우미도 인터넷 신청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직접 오라고 하는지 난 출산 도우미 신청 때문에 병원 갔다가 이제 얘기하고 일부러 가니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가서 또 서류작성 다해야지, 무슨 정보제공 동의 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서 시간을 자꾸 빼면서 가야 되니까... (대도시 취업모 O)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여건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그 대안으로 대체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들었다.

육아휴직 같은 거. 보통 그게 제일 큰 거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도시 취업모 O)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리한 조건이 생기지 않는다는 어떤 처우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의 고용불안... (대도시 취업모 N)

제 친구는 실제로 여직원들이 많은 카드회사에 다니는데 나가지 왜 나오지 애가졌으면 육아휴직 쓰고 가라고 왜 우리한테 일을 더 많이 주려고 저렇게 버티고 나오느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다지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도시 취업모 P)

그래서 제가 외국사례들을 조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켁거루 워커 이런 식으로 해서 켁거루 뒤틀듯이 이 사람은 비슷한 행정업무를 할 때 여기 1년 파견 갔다 저기 파견 가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하게 공기업만 다 지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근로 대체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에서 비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대도시 취업모 N)

나. 농어촌 가정의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1) 육아실태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부족한 곳에서 품앗이 형태의 부모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말 믿을 만한 곳이 있다면 조금 보내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만 한 곳이 없어요. (농어촌 부모 A)

아이 기르는 엄마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모같이 품앗이 식으로, 월요일엔 내가 좀 봐주고, 화요일엔 누가 급하면 봐주고, 그러면 믿음이 되고, 같이 키우는 엄마들끼리요. (농어촌 부모 C)

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어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만 3세 이후를 선호하였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이용 시기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시기보다 이른 경향을 보였다.

저는 다섯 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는 아이가 의사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다섯 살 이전에는 병도 잘 옴아오는 것 같아요. 수족구도 많이 옴아오고, 감기는 기본으로 옴아와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고... (농어촌 부모 A)

만 3세가 되어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쯤 되면 몸도 좀 크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발달이 다 되었을 때... (농어촌 부모 B)

너무 아이하고 저하고만 있다 보니까 제가 우울해져서 우울증도 왔었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3살 때 보내게 되었어요. (농어촌 부모 A)

육아정보의 부족으로 유사경험을 하는 부모와의 연계를 희망하였다.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걸(모임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애를 키우다 보니깐 애랑 딱 똑같은 키우는 사람들 입장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발달도 그렇고, 뭘 하고 놀아 주는지 그런 게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과 소통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B)

이용하는 육아정보로는 인터넷과 인기 있는 양육지원서 등이 있었다.

음. 이유식 같은 것도 많이 찾아 봤었고요. 이 아이들 성향. 이 아이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서 EBS에 부모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인터넷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리고 119 책도 아팠을 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A)

2) 육아에의 인식 및 책임

저는 혼자서 아무래도 보니까. 벅차니까. 애한테도 많이 화를 내고, 미안하고. 근데도 엄마 좋다 좋다 할 때 보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농어촌 부모 E)

제가 목욕탕에 애들을 자주 데리고 가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워킹맘들의 할머니.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고 엄마가 애 키워야 되는데 나중에 늙어봐라 다 손해 본다 돈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가치있는 일인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F)

제가 만약 나가서 정말 500, 600을 벌지 않는 이상. 애 돌보는 일에 돈 써야 되고 내 꾸미는 것에 돈 써야 되고 이런 것 치면 그냥 엄마가 애를 온전히 보는 것이 저는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들 자라나는 인성 부분이라던 지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어촌 부모 F)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각자 집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 똑같구나 생각 들고. 그리고 육아 정책도 이제 위에 나이들 한 10살 정도 차이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때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지원도 하나도 없었다 하니까. 아 그렇다. 이렇게 좋은 거만 보면 정말 지금도 많이 애들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더 좀 살기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농어촌 부모 F)

3)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특성화한 정책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산후도우미요. 그건 소득에 따라서 해주긴 하는데, 정관은 기장군 자체에서 도우미 지원을 해줘서 좋았었고요. (농어촌 부모 B)

그리고 산후도우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애들 태어난지 100일? 그거를 좀 더 늘려주면 좋겠는데... (농어촌 부모 A)

출산장려금. 예. 둘째부터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총 120만원을 주는데, 일시불로 주면 좋겠는데. 나눠서 주니까 돈이 안돼. 한달에 10만원씩 달달이 이렇게 주거든요. (농어촌 부모 E)

4)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부모들도 양육수당 인상이 부담스런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고, 또 조부모 양육 지원과 찾아가는 상담,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 정책, 부모교육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언하기도 한다.

이건 좀 웃긴 얘길 수도 있는데 나라에서 육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더 많이 올려서 준다면 부모님들도 일을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할머니가 봐주면 또 그것을 지원해준다면,.. 관철을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A)

교육하시는 분들이 와서 두 번씩 정도 방문해서 애를 보면서, 왜냐면 똑같은 애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고 우리한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어촌 부모 C)

상담 선생님 같은 거. 이제 육아 상담이랑. 편하게 좀 물어볼 수 있는. 왜 육아 상담이라고 하면 애들이 정말 조금 뒤떨어지거나 너무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 일상적인 거도. 이 아이가 뭐 잘못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부담없이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어촌 부모 F)

또 정책적으로, 남자도 많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남편들 그런 것에 관심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서 출산했다고 하면 같이 가본다던가, 나중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돼서 지금 우리 세대에는 누리지 못했지만, 애들 세대에는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농어촌 부모 C)

학교(대학)를 다니는 학생들이 부모교육을 많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육아, 유아교육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를 책임감 있게 낳고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교육도 되고요. (농어촌 부모 A)

다. 아버지 육아 특성 및 지원 요구

1) 육아실태

자녀가 출생 후 100일 정도까지가 아버지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하였다.

저는 한 100일 정도, 애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도 힘들었지만, 저도 그때는 애는 계속 일어나서 젖도 줘야하고 이러면 (힘들죠.) 엄마는 젖도 주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편하게 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깐.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있으면 하여튼 뒤치다꺼리해야 하니깐.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도시 아버지 F)

계속 밤에 같이 자니까. 의리상 따로 자지를 못하겠더라고. 엄마는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나는 저 (다른) 방에서 퍼질러 자고, 코골고 자고 할 수 없으니깐. 뭘 하지 않아도 (나도) 계속 깨니까. 출근을 하면 잠을 못자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 맨 날 꾸벅꾸벅 즐고. '니 밤에 뭐했노' (라고 해도) 한 건 없지만 하여튼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그 시기가 (힘들었죠.) 육체적으로 힘들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더라고. 애하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도시 아버지 Q)

아버지는 자녀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 놀아 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아이랑 놀아줄 때 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가 돌발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항상 중간에서... (농어촌 부모 H)

자녀동반 외출 시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만약에 외출을 한다면, (아내와) 둘이서 애를 데리고 간다면 하면 (힘들죠.) 대중교통이라는 게 아직까지 (불편하죠.) 시(에서)나 대한민국에서 산모한테 출산율을 높이려고 정책은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자리 양보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애를 데리고 타더라도.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던데, 버스를 탔는데 배는 볼록하고 애 한 명 데리고 탔는데도 옆에 전부 멀뚱멀뚱 (보면서도) 아무도 안 비켜주더라 하더라고... (대도시 아버지 R)

기관이용은 3세 이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족이 최대한 길게 봐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간은 1년이면 2년이면. 왜냐면 초창기 때(가 중요하니까.) 누가 그러대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3년은 엄마가 같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성장과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최소한 3년 정도는 같이 있으면... (대도시 아버지 Q)

저는 뭐 시기라기보다, 애가 어느 정도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대도시 아버지 R).

육아정보는 어머니 위주로 이용되고 아버지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육아정보는 내가 주도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사람이 '이런 걸 알아봐라' 그러면 내가 찾아보고 하는 거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 '무엇이 좋다' '어디 가면 무엇이 있더라' 그런 내용을 듣고 나는 (육아를) 하는 쪽이고, 집사람은 찾아도 보고, 책도 보고. 책을 보고 그 내용이 나한테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 책을 나한테도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책을 내가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재밌으면 읽고, 재밌으면 안 읽고... (대도시 아버지 Q)

저는 주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에 블로그들... (대도시 아버지 R)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아버지 스스로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남자도, 특히 (아이가) 아들이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중략)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많이 놀아 줘야겠다.'하고 생각을 하죠. (대도시 아버지 Q)

아버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하게 된다면 1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년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죠. (육아휴직을) 하면 1년이죠. (대도시 아버지 Q)

경제적인게 제일 문제되니까. 제가 외벌이다 보니까. 혼자 벌인데, 육아휴직을 해버리면 뭐, 상황이 그래서 육아휴직은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도시 아버지 R)

2) 육아에의 인식 및 책임

가) 자녀를 양육함이 행복하다

행복한 것은 당연히 행복한 건데, 애들이, 옆에 분도 말씀했듯이. 말 안들을 때 참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면 애가 있으니까 재밌고. 하여튼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애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대도시 아버지 R)

행복한데, 이제 행복의 강도가 (아이가) 말 잘 들으면 진짜 행복하고... (대도시 아버지 Q)

나) 자녀를 양육함이 가치있다

내 2세가 태어나서, (나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커가면서 저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 보면 (나와 행동이) 비슷할 때. 신기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유전자가 엄마 아빠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클까'도 중요하고, 잘 컸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는 과정은 좋죠. (대도시 아버지 Q)

저 닮은 2세가 나와서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대도시 아버지 R)

다) 자녀를 양육함이 자신있다

아버지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훈육,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키우면서 조절, 애를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어디까지는 단호히 끊고, 나는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 엄마는 그걸 단호히 할 때는 하던데... (대도시 아버지 Q)

경제적으로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외벌이고 누가 (경제적으로 도와서)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착같이 벌어가지고... (대도시 아버지 R)

3) 육아지원 정책 이용 실태

육아지원 정책 중 비용지원에 대한 인식과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정책... 주로 금전적인 것이겠죠. (대도시 아버지 R)

정보부족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모 스스로의 관심이 필요하고, 홍보 방안으로는 언론을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관심을 가져야죠.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뭐 어디를 들여다보든가. 인터넷도 보고 주변도 살피고. 그게 일단은 인식이... 아무리 요즘 남자도 육아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대도시 아버지 Q)

언론에서 많이 흘러야죠.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대도시 아버지 R)

4) 육아지원 정책에의 요구

아버지도 스스로 아버지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출산휴가를 2주 정도 의무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신랑도 솔직히 애가 커 갈 동안에 거의 자는 모습만 보는데... 그 애기 낳은 2주 정도는 같이 부모로서 육아의 기쁨을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라고 애기가 안 이쁘겠어요? 볼 시간이 잘 없고 일이 힘들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해 지겠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돈을 떠나서 가족이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더불어 엄마도 몸조리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기본적으로 애를 낳으면 2주간을 아예 이제 남편 일을 안 할 수 있게... (대도시 부모 K)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게 그냥 저는 육아라도 이제 정책적인 면이랑 같이 가는 건데 오늘 안 그래도 신랑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업무량이 너무 많다. ... 그러니까 정시, 만약 9시 출근, 6시 퇴근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야간 수당도 안주면서...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대도시 부모 M)

공동육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다.

공동육아할 수 있는 장소제공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랄까. (기관에 못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상황이 안돼서 못 보내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육아 정보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장소 같은 걸 좀... (대도시 아버지 R)

3. 소결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자신만만 행복한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수요자에게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부모가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은 다양하기는 하나 보편적인 양상들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육아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 왔다. 부모대상 심층면담 과정에서 양육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에 대해 그를 지원하는 관련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수요자인 부모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둘째, 첫 이용이 번거롭고 어렵게 인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첫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등 정책에의 접근성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아이돌보미, 시간제 보육 등 제도의 이용을 위해 등록과 이용절차가 수월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음을 볼 때, 선 경험자나 동영상 홍보물 등을 통한 안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갑작스런 상황에서 첫 이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모에게 평상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미리 등록하도록 유도함을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가 인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자가 먼저 제공하는 push service 개념의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면대면 정보 제공의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다.

셋째, 양육수당의 지급과 더불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영향력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소득의 구분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필수적으로 접근하는 곳이 되었다.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영유아기 부모 대상 정책의 홍보와 정보 제공의 효과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기능을 강화함을 통해 정책과 그 수요자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수요자인 부모들은 한 곳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책을 연령별로, 상황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제공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행복감은 높으나,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이 뚜렷하여 부모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 스스로 부모교육 기회의 확대, 부모교육의 의무화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는 어려움, 스스로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대한 확신 부족 등에 대한 이야기는 첫 부모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의 정보력에 따라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제한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정보를 찾고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지역맘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제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취업모의 경우보다는 전업주부의 정보 활용이 많아 보인다. 이런 영유아 부모간 육아관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녀양육 과정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모의 평가가 전업주부보다 낮았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직접양육이 어려워 대리양육을 이용해야하므로, 대리양육 이용자로서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육아지원 정책의 마련 뿐 아니라 정책의 활용을 활성화하여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웃, 지역사회가 더불어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자신있고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육아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V.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 추진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현행 육아지원 정책을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과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를 제작하고, 육아콘서트를 기획하였다. 특히, 영유아기 부모 대상 육아지원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전국 4개 권역 정책수요자 대상 순회콘서트를 개최하여 육아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부모가 상호소통을 통해 더불어 협력하는 육아문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육아지원 정책 홍보 및 소통 방안을 구성하고 추진한 내용을 담았다.

1.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 기본 방향

앞서 3~4장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한 바,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V-1-1 참조).

main title	자신만만, 행복육아	
subtitle 1	아이키움, 귀한경험	가정 내 양육의 가치 강조
subtitle 2	함께키움, 같이육아	가족 내 협력 강조
subtitle 3	행복키움, 든든지원	지역사회, 국가에서의 다양한 지원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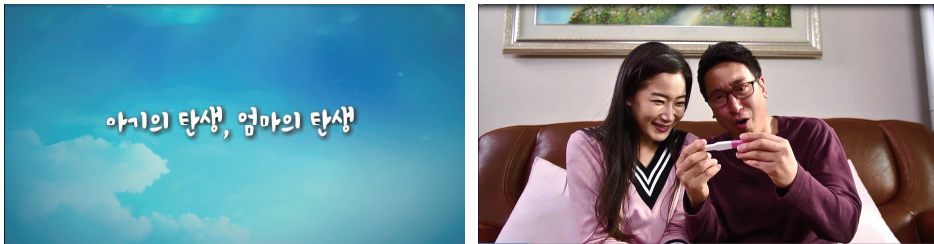
[그림 V-1-1]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의 기본 방향

본 육아지원 정책 홍보사업의 메인주제는 ‘자신만만, 행복육아’이다. 세부주제로는 첫째, ‘아이키움, 귀한경험’으로 가정 내 양육, 육아의 가치를 되새기고, 둘째, ‘함께키움, 같이육아’라는 주제로 가족 내 협력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키움, 든든지원’ 주제를 앞세워 지역사회, 국가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다같이 협력하는 육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자신 만만, 행복육아’ 주제에 따라, 기존 정책 내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효율적으로 추려 1) 동영상, 2) 정책 안내서, 3) 젊은 부모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대면 의뢰 수렴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토크콘서트’ 등의 방식을 통해 홍보하기로 하였다.

2.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 개발

협동연구기관인 EBS와 공동으로 제작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은 인트로(VCR 1), 아웃트로(VCR 2) 2가지로 구성하였다. 나독박 여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육아의 어려움을,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을 받아 달라진 나독박 여사의 하루를 담아냈다.



[그림 V-2-1] 육아지원 정책 홍보 인트로 동영상: 탄생의 기쁨

인트로 동영상(VCR 1) ‘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은 임신기간 내 기다림, 탄생의 기쁨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 부모들은 태명도 짓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음식만 먹는 등 태교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움 날들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탄생의 기쁨도 잠시, 산부인과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초보엄마, 아빠는 육아라는 현실에 크게 좌절한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었는데, 이유 없이 계속 울어만 대는 아기, 퇴근이 늦은 남편, 친정·시댁 모두 멀리 있어 잠시도 도움 받을 수 없는 독박육아 신세, 잠도 못자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인 현실을 적나라하지만 코믹하게 묘사하였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도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현실을 담은 이 동영상은 재생시간은 약 7분이다.



[그림 V-2-2] 육아지원 정책 홍보 인트로 동영상: 독박육아의 어려움

아웃트로 동영상(VCR 2) ‘육아정책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는 인트로 동영상의 주인공 나독박 여사가 공동육아나눔터, 보육반장, 장난감도서관,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도움으로 변화된 일상을 담았다. 나독박 여사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또래 육아맘들과 교류하면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아에 대한 궁금증은 보육반장님을 통해 해결한다. 값비싼 장난감은 매번 사지 않고, 인근의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급한 용무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다. 본 영상의 재생시간은 9분 20초 정도이다.



[그림 V-2-3] 육아지원 정책 홍보 아웃트로 동영상: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으로 달라진 하루 1



[그림 V-2-4] 육아지원 정책 홍보 아웃트로 동영상: 육아지원 정책의 도움으로 달리진 하루 2

본 동영상은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 처음이기에 미숙할 수 있으며, 가정 내 협력을 통해, 또 지역사회와 국가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이 시기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이 두 개의 동영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3.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 육아 관련 정보 등을 나누며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육아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참석자, 참석자-참석자 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힐링하는 소통의 한 방식인 토크콘서트의 특성상, 그 자체만으로 육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인지와 이해를 높이고자 종합적인 안내서를 기획·개발하였다.

우리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은 저출산 현상 극복,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에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온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여 여러 정부부처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수립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활용도를 보다 높일 수 있다면 현행 육아지원 정책은 선진적인 육아문화를 정착시켜 저출산 현상과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에 보다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

한 정책이 여러 정부부처를 통해 개발되고 시행됨에 따라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의 시행여부 파악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 이용을 위한 정책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또한 정책 이용을 위한 문의처를 파악하거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정책수요 발생 시 마다 개별적으로 정책을 찾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여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수요자 입장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육아지원 정책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안내서를 육아콘서트 참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토크콘서트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향후 갱신되는 정책들에 대한 첨삭과 수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책 안내서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안내서는 육아지원 정책을 정책부문별, 영유아 연(월)령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정책부문별 분류에서는 정책을 다시 1) 비용지원, 2) 서비스지원, 3) 돌봄시간지원, 4) 기타로 분류하여 제공하였다. 영유아 연(월)령별 분류에서는 영유아의 연(월)령을 0개월, 3개월, 6개월, 1세, 2세, ..., 8세, 10세, 12세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정책 지원기준에 연령기준과 소득 및 재산 차등지원 여부의 기준이 있는 정책들을 추려내어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안내서의 제공은 현행 육아지원 정책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요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육아지원 기관 관련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 안내서 개발 및 발간을 대단히 반겼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책 안내서 발간을 요청하였다.

정책 안내서는 그 내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쉽게 읽히기 어려운 자료이다. 본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디자인을 입히고, 육아와 관련한 삽화를 배치하였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별로 쪽을 구분하여 분리되게 배치하였고, 해당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 쪽의 가장자리에 정책분류표식을 넣었다. 또한 경쾌한 글자모양과 색깔을 사용하여 정책 안내서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완성된 정책 안내서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V-3-1]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표지

부모와 자녀를 모두 표지에 포함함과 동시에 따뜻한 색감을 사용함으로써 정책 안내서의 딱딱한 느낌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내서의 제목 외에도 본 연구의 지향점을 축약하여 담은 '자신만만 행복육아'를 깃발에 담았다.



[그림 V-3-2]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정책분류 기준 구별지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분류하고자 하였기에 대분류인 ‘정책부문’과 ‘영유아 연령’ 각 각의 도입부분에 구분을 위한 쪽을 마련하였다.

<p>만 0~2세 보육료</p>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아 - 유아학비,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제외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0세아: 48,000원 - 만 1세아: 38,000원 - 만 2세아: 304,000원 <p>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p>신청방법 및 문의처</p> <p> 절차 및 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p> 문의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p> 관련 사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p> 관련부처 보건복지부</p>	<p>만 3~5세 누리과정</p>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 - 취학대상 아동(2009년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시 제출하여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을 신청일 기준으로 230,000원 지원 <p>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인되며, 부모의 서비스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무상교육 기간은 3년 초과 불가함 <p>신청방법 및 문의처</p> <p> 절차 및 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 <p> 문의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66-203-6233 - 아이콜센터 1566-0079 <p> 관련 사이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www.moe.go.kr - e-유치원 chilidschool.mo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p> 관련부처 보건복지부·교육부</p>
---	---

[그림 V-3-3]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 본문 일부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독자가 쉽게 구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특히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상자로 처리하여 작성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쪽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비용 지원, 서비스지원, 돌봄시간지원 등의 구분 탭을 처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 개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부모 대상 육아지원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전국 4개 권역 정책수요자 대상 순회콘서트를 기획하였다. 본 콘서트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육아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처음 하는 육아에 서투르고 힘든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담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주제로 마련하였다. 전국에서 총 4차례로 진행된 육아콘서트는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서울지역 콘서트를 시작으로, 5월 17일 경상·부산, 5월 19일 경기·인천을 거쳐, 5월 31일 전라·광주지역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의 상세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V-41 참조).

〈표 V-4-1〉 전국 4개 권역 육아콘서트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메인MC	전문가	보조MC	주관
서울 콘서트	16.04.30(토), 15:00-19:00	EBS 본관 스페이스홀	박지윤 아나운서	서천석 박사 (소아정신과)	김필수	육아정책연구소/ EBS (협력: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
경상·부산 콘서트	16.05.17(화), 11:00-12:30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	황범 아나운서	박찬욱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필수	육아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경기·인천 콘서트	16.05.19(목), 11:00-12:30	틈 문화 창작지대	원기범 아나운서	서천석 박사 (소아정신과)	김주철	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광주 콘서트	16.05.31(화), 11:00-12:30	광주광역시 유아교육 진흥원	황범 아나운서	김영옥 (전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필수	육아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가. 홍보

육아콘서트 개최에 앞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먼저 포스터 2종을 기획·제작하여(그림 V-43) 각 지역별 공동 주관기관에 배포하여 홍보하도록 하였다. 연구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건물에는 대형 옥외현수막을 게시하여 행인들로 하여금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해 콘서트를 홍보하였다(그림 V-41, V-42).



[그림 V-4-1] 육아콘서트 홍보물: 옥외 대형현수막 시안



[그림 V-4-2] 육아콘서트 홍보물: 옥외 대형현수막 실제 모습



[그림 V-4-3] 육아콘서트 홍보물: 포스터 2종

나. 구성

콘서트는 크게 사전행사, 본행사로 구성하였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 관객으로 온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고충 등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본격적으로 콘서트가 시작된다. 본 행사는 1) 오프닝, 2) 공감 VCR 1 상영, 3) 키워드 토크, 4) 공감 VCR 2, 5) 육아지원 정책 관련 토크 5) 클로징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공감 VCR 1, 2는 콘서트 이전에 제작된 육아지원 정책 홍보 동영상(인트로 동영상 '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 아웃트로 동영상 '육아정책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을 말한다. 공감 VCR 1 시청 뒤 키워드 토크는 공감 VCR 1에서 언급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키워드 토크의 주제는 독박육아, 전투육아, 슈퍼맨이 돌아왔나?(아빠의 육아참여), 완모의 꿈(모유수유), 백화점, 뽀뽀로(영유아 미디어 노출), 육아무식자 등이며,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전에 받은 사연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선배 육아맘들에게 고민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크를 마치고, '육아정책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 VCR 2를 시청하고, 육아정책 관련 토크를 이어간다. 이 시간에는 VCR 2에서 나독박 여사에게 도움을 준 지역사회와 국가의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눈다.

〈표 V-4-2〉 육아콘서트 구성

진행순서		출연자	상세내용
사전행사	메시지 트리	관객	-메시지 트리에 사연 걸기
본 행사	오프닝	메인MC, 보조MC, 전문가, 육아정책연구소장	-출연자 소개 및 토크콘서트 소개
	공감 VCR 1	-	-인트로 동영상 '아기의 탄생, 엄마의 탄생' 상영
	키워드 토크	메인MC, 보조MC, 전문가, 관객	-독박육아, 전투육아, 슈퍼맨이 돌아왔나?(아빠의 육아참여), 완모의 꿈(모유수유), 백화점, 뽀뽀로(영유아 미디어 노출), 육아무식자 키워드 관련 토크
	공감 VCR 2	-	-아웃트로 동영상 '육아정책 도움으로 달라진 육아맘의 하루' 상영
	육아지원 정책 관련 토크	메인MC, 보조MC, 전문가,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실장	-육아지원 정책 소개 및 Q&A
	클로징	메인MC, 보조MC, 전문가	

다. 지역별 콘서트 개최 결과

1) 서울지역 콘서트

전국 4개 권역 순회콘서트 중 가장 첫 번째로 개최한 서울지역 콘서트는 2016년 4월 30일에 EBS 본관(서초구 도곡동 소재) 내 스페이스홀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주관으로 진행하였다. 박지운 아나운서와 김필수 개그맨이 진행하고,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전문가로서 육아맘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 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참석하여, 엄마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육아 고충을 공유하며 전문가와 주변 엄마들과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지역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육아콘서트는 5월 31일 12시 45분부터 EBS 1TV를 통해 50분간 전국 방영되었다.



[그림 V-4-4] 육아콘서트 현장: 서울지역 콘서트

2) 경상·부산지역 콘서트

경상·부산지역에서는 2016년 5월 17일 신세계 센텀시티 문화홀에서 육아콘서트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행

사진행은 황범 아나운서와 김필수 개그맨이, 박찬옥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전문가 역할을 맡았다. 모객 당시부터 육아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경상·부산지역 영유아 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그림 V-4-5] 육아콘서트 현장: 경상·부산지역 콘서트

3) 경기·인천지역 콘서트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한 경기·인천지역 육아콘서트는 2016년 5월 19일 인천시 주안동에 위치한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기범 아나운서와 김주철 개그맨이 진행하고, 전문가 역할은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맡았다. 경기·인천지역 영유아 부모 150여명이 참석하여, 키워드 토크 외에도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림 V-4-6] 육아콘서트 현장: 경기·인천지역 콘서트

4) 전라·광주지역 콘서트

전국 4개 권역 순회콘서트는 2016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 전라·광주지역 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날 행사는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정책연구소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전라·광주지역 200여명의 영유아 부모가 참석하여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고 김영옥 전남대 교수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V-4-7] 육아콘서트 현장: 전라·광주지역 콘서트

전국적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0~2세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 엄마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현재 그들은 다양한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독박육아' 중이거나, 한창 회사에서 주요업무를 맡아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하는 남편들의 퇴근은 늘 늦었다. 설거지라도 할 여유를 찾고자 보여주기 시작한 스마트폰 때문에 오늘도 어린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으며, 책으로만 배운 육아는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콘서트에서 나누었던 이러한 고민과 고충은 집집마다 유사한 모습으로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주변의 또래, 선배 엄마들의 위로를 통해 해답을 찾아갔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엄마들은 육아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콘서트는 양육의 어려움과 그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첫 시도였으며, 바람직한 육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별 콘서트 준비과정을 통해 부모의 생활권인 지역사회 중심의 시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등 육아지원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 간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세대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바람직한 육아문화 구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언론보도 실적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개최에 대해 많은 언론매체에서 보도하였으며(총 보도횟수 12건), 그 중 주요일간지 중앙일보에서는 지면기사로 주요히 다뤘다(2016.05.02. 중앙일보 A6면). 또한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콘서트 관련 홍보 및 후기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포스팅되었다(총 노출횟수 20회). 특히 EBS 방송을 본 엄마들은 콘서트 내용에 크게 공감하며, 육아카페에서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추천하는 등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그림 V-4-10 참조).



[그림 V-4-8] 육아콘서트 언론보도 예시: 중앙일보(2016.05.02.) A6면



[그림 V-4-9] 육아콘서트 언론보도 예시: IBN 뉴스(2016.05.13.)

<표 V-4-3> 육아콘서트 언론보도 목록

	언론사	기사제목
1	IBN 뉴스	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신만만 행복육아' 인천지역 토크콘서트 개최
2	포커스뉴스	육아정책연구소, 부모와 아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3	중앙일보	남편 도움 없이 독박육아, 아이에게 화내고 자괴감
4	베이비타임즈	육아정책연구소,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개최
5	EBS	육아정책연구소, 행복육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6	뉴스타파	'극한육아' 극복하려면 '좋은부모' 강박관념 버려야
7	노컷뉴스	부산유아교육진흥원, 영·유아부모소통의장마련
8	경인일보	서천석 박사 초청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9	아주경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10	뉴스통신인천	인천시육아정책연구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개최... "자녀양육 가치 일깨워.."
11	헤럴드경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12	아시아뉴스통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지금 ebs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하네요 | 맘캠 이야기방 2016.05.31, 13:02

다솜맘87용암(love****) 직지 11 http://cafe.naver.com/cjcmom/1120145 주소복사

요즘 육아때문에 좀 지쳐가고있었는데
보고있으니깐 나만 이렇게 아닝가싶은게
좀 위트가되네요.
그냥 공감과 위로필요하신분들
한번보세요~~^^

[카카오맵 관련설정하기](#)

[이 작성자의 게시글 더보기](#)

댓글 8 | 등록순 ▾ | 조회수 233 | 좋아요 ▾ 0

[★](#) [📄](#) [📑](#) [🔔](#) [구독](#) [🔗](#) [인쇄](#) | [신고](#)

심플수78금천동 2016.05.31, 13:07
저도 우연히 틀었는데 공감되네요~~^^

다솜맘87용암 2016.05.31, 13:08
그쵸ㅠ 저는 저만 이런줄알았어요ㅋㅋ

마소천사82대덕 2016.05.31, 13:10
저도 공감하며 보고이셔요~~ 이런건 신랑과 같이봐야하는건데~~

다솜맘87용암 2016.05.31, 13:11
맞아요ㅋㅋ저도 다시보기해서 들어주고싶은데ㅋㅋ분명신랑은 주위길게 안볼듯해요ㅋㅋ

윤종렬86울강남 2016.05.31, 13:12
ㅎㅎ 공감합니다

다솜맘87용암 2016.05.31, 13:14
저만 그렇게생각한게아니었군요

지인맘84용암 2016.05.31, 13:35
끝부분쯤 보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좋은 프로 보았어요~~^^

[그림 V-4-10] 육아콘서트 EBS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반응

VI.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본 연구는 아이 기르기 좋은, 자신만만 행복한 육아문화 구축을 위해 육아지원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의 효과적인 안내와 홍보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부모의 육아 현황에 대한 설문과 심층면담을 토대로 그 어려움과 정책의 활용 정도 및 개선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범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을 조사·정리하여 수요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정부 육아지원 정책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특히 적극적 정책 홍보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를 기획하여 서울, 경기·인천, 전라·광주, 경상·부산 등 4개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이 중 서울지역 콘서트는 EBS 1TV를 통해 방영하였고,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추후 부모대상 교육이나 행사 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를 개념화하고 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본 연구는 다면적인 육아지원 정책에 힘입어 영유아 부모에게 육아가 부담으로 여겨지기보다는 행복하고 가치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육아문화 구축을 지향한다.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란 수요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정책적 지원 및 대안을 모색하며 형성해가는 양육환경을 의미한다.

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육아현황과 어려움, 지원 요구를 토대로 그 원인을 가늠하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는 육아정책 수요자인 영유아기 부모 중심의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개념도는 그림 <VI-1-1>과 같다.

먼저 양육자 개인 수준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자신감의 부족'으로 요약되고, 가정 수준에서의 어려움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엄마 혼자 담당하는(독박 육아) 상황으로 그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고립감, 육아 스트레스 등이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 간 연계와 홍보 부족으로 부모가 인

지하는 체감도가 낮음이 문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형성해가고자 하는 육아문화는 ‘자신만만 육아’,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육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 정책의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 지원 요구	원인	대안마련	지향점
자신감 부족 (역량감부족)	-처음해보는역할 -양육 지식 부족 -양육 관련 정보 부족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부모 양육역량 강화 기회 확대 다면적 부모교육 제공 (대한민국부모학교: 육아종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정보제공기회 확대 (온라인 정보 체계화, 면대면 정보제공, 육아정보자료집 구성 배포 등)	자신만만 육아
육아 고립감 해소 (독박육아, 육아스트레스)	-핵가족화로 가족 내 양육지원 인력부족 -아버지 양육참여 부족 -단독육아상황에서의 고립감 -육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	-아버지 양육 참여 확대 위한 제도 (아버지 교육기회 확대, 육아휴직 및 일·가정양립 위한 제도 내실화) -양육 고립감 해소 및 육아 심포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중심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아이돌보미 등 지원 제도 활성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가족이 함께 하는 육아
사회적 지원 부족	-지역사회내 육아지원 인프라 부족 -마련된 정책의 홍보 부족	-지자체 중심의 육아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육아지원 네트워크 형성, 가족이 즐길 공간 및 기회 제공) -다면적 육아정책 홍보 방안 마련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 수요자 눈높이 안내, 정례적 소통의 장 마련)	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육아

[그림 VI-1-1]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육아문화 형성 개념도

2.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가. 양육 자신감의 회복(자신만만 육아)

1) 지원 요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 1.24명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16. 2. 24).⁵⁾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두산백과 사이트, 2016. 6. 4 인용).⁶⁾

부모됨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 기조 하에서는 자녀를 하나 두는 경우가 많고, 핵가족화로 인해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양육자의 자신감 부족, 양육 역량감 부족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는 부모 대상 조사와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드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처음해보는 경험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 지원방안

다면적인 부모교육 기회 확대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16년 대한민국 부모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는 부모 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6. 6. 5 인출).⁷⁾ 여기에는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생애주기별 부모교육)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부모교

5) 통계청 보도자료(2016. 2. 24.)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 p. 4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2016년 6월 4일 인출함.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602&pageNo=8&rowNum=10&navCount=10&currPg=&Target=title&Txt=

6) 두산백과 사이트에서 2016년 6월 4일 인용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562&cid=40942&categoryId=31609>

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2016년 6월 5일 인출함.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5.jsp

육 프로그램, 온라인 부모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과 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범부처적 접근이 시도됨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누리과정의 시행과 영아 보육비용의 지원으로 영유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 지원 방안으로 고려된다.

육아정보 제공방법의 다양화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육아관련 정보 제공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주로 이용하는 정보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이다. 특히 육아경험을 공유하는 블로그나 지역맘 카페의 이용이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정보는 접근이 용이하나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임신·육아종합포털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16. 6. 5. 인출⁸⁾)로 그 명칭을 바꾸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육아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영유아 부모를 포함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됨을 고려하여 육아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하고, 이용 신청이 가능한 ‘일·가정 톡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육아정보에 대해 개별적 전달에 대한 요구가 높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자신에 꼭 맞는 정보를 찾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요구이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부산시 ‘보육맘’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경우 출생 신고 시 신청하면 구(區)별로 배치된 보육반장이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육아정보도 개별 부모에게 제공한다. 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이러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6월 5일 인출함. www.childcare.go.kr

나. 가정 내 양육지원 환경 구성(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1) 지원 요구

누구의 도움도 없이 육아를 전담하는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독박 육아'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주로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내에서 양육 분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는 핵가족화로 인해 부부 이외에 다른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아버지의 지원 부족을 꼽는다. 어머니 대상 심층면담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을 함께 하는 자신의 일로 인식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일을 도와준다고 인식함이 섭섭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듯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양육 전담상황은 양육자로 하여금 양육 스트레스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2) 지원방안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 위한 지원 강화

동등한 양육분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육지원자로서 아버지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방송 매체를 중심으로 아버지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들(KBS 2, '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아빠 어디가' 등)이 제작·방영되고 있다. 또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가정양립 제도로 마련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사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버지 교육을 활발하게 제공 중이다. 문제는 참여이다. 어머니 혼자의 독박육아가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가정 내 자녀양육의 공동 주체로서 인식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추진하였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주제의 육아콘서트를 아버지 대상으로 기획·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육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

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공간이다(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2016. 6. 5 인출).⁹⁾ 이는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서 육아경험을 공유하고 가족품앗이 등의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차성란, 2012. p.191). 이를 통해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육아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7월 기준 전국에 86개소가 운영 중으로 부모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육아 쉼표 제공 방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도 도우미 파견을 통해 육아를 지원한다. 그러나 심층면담에서는 이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이용비용이 차등 적용됨으로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희망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제공되는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인근 기관을 검색하고 신청하면 이용가능하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신청·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긴급보육 필요만이 아닌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에게 쉼표 제공을 위한 서비스이다(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16. 6. 5 인출).¹⁰⁾ 즉, refreshment 개념의 육아지원인 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진했던 육아콘서트 시 이러한 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할 때 참석한 부모들의 반응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의 지원 제도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개선과 더불어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9)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16년 6월 5일 인출함.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infantcare/infantcare1.do>

1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2016년 6월 5일 인출함. <http://www.childcare.go.kr/>

다. 지역사회 내 양육지원 환경 구축 (사회와 더불어 함께 키우는 육아문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미래인적자원의 육성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 주체 간의 연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도출함으로써 각기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점이 되어 영유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그 사업내용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장남감 도서관 운영, 부모교육 제공 등 다양한 영유아 가족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가족이 함께 즐길 공간 및 기회 제공

이미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이미 이러한 기관에서는 다면적인 영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제공은 제한적이다.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구성을 목표로 영유아 가족 지원 도모하기 위해 일회성의 행사보다 정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지원이 본래 목적은 아닌 박물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영유아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도서관에서 아버지 교육 기회를 마련하거나, 일부 공간을 영유아 가족을 위한 특화 공간으로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 육아지원 제도의 효율성 증진 위한 홍보 강화

다양한 홍보수단 개발

보다 다양한 정책 홍보수단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육아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수립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이들 현행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책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기획하고 개발한 정책 안내서에 대한 정책수요자들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즉,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정책 관련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혹은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책 홍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수요자 눈높이 안내

정책수요자를 고려한 용어사용 및 설명이 필요하다. 육아지원 정책을 안내하기 위하여 정부는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 제공 수단의 경우, 정책수요자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안내에 사용되어지는 용어 및 설명은 그들이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설명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이는 결국 정부부처 문의처 혹은 구청과 같은 관련 기관을 찾아 전화(혹은 방문) 상담을 해야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법령상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동일한 정책에 대하여) 정책수요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책수요자들의 혼동을 야기하여 정책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거나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수요자들을 위하여 용어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공자와 수요자 간 정례적 소통의 장(場) 마련

정책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수요자의 정책 접근성을 향상 문제이다.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정책과 정책수요자 간 접근성 향상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기획된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는 국책연구기관인 육

아정책연구소 뿐 아니라 EBS,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유아교육진흥원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육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현재 이용 가능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요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하는 첫 시도였다. 참석한 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런 기회를 정례화 할 것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육아지원 정책 중에는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인천시 '도담도담 장남 감도서관'처럼 지자체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특화된 사업들도 많다. 이렇듯 지원 정책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행됨을 고려할 때, 지자체 수준에서 육아중심 소통 기회를 정례화함이 효과적일 수 있다.

‘육아콘서트’ TV 프로그램 추가 기획 및 방영

본 육아콘서트를 EBS 1TV를 통해 50분으로 편성하여 방영하였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종합적 내용을 담기 어려웠다. 방송이 매우 효과적인 홍보 방안임을 고려하여 육아콘서트를 주제별로 4~5회 정도 추가 기획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선주(2012). 저출산 대응: 가족내 자녀양육지원강화.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8(1). 53-77.
- 김나연(2013). 노동권·부모권 관점에서 본 영국과 스웨덴의 일가족 양립정책.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51-79.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한국사회학, 38(5). 209-223.
- 김은지(2009).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73-100.
- 보건복지부(2011).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건강검진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1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2013). 자녀양육 지원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3.
- 신윤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2007). 양육지원 정책이 향후 발전 방향-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9-2.
- 양민석·안현미·서영주·임양미·윤상미(2012).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12-정책개발-02.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안내.

- 윤홍식(2006).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223-249.
- 이미화·홍승아·서문희·정민자·권혜진·이지혜·임양미·신보원(2011).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차성란(201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운영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87-210.

<신문기사>

- 중앙일보 기사(2016.05.02.). 남편 도움 없이 독박육아, 아이에게 화내고 자괴감. 중앙일보 A6면.

<인터넷>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에서 2016년 4월 20일 / 2016년 6월 5일 인출함.
- 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두산백과 함께출산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562&cid=40942&categoryId=31609> 에서 2016년 6월 4일 인출함.
- 드림스타트 사업 www.dreamstart.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보건복지부 www.mw.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아가사랑 www.agasarang.org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5.jsp에서 2016년 6월 5일 인출함.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15) e-나라지표 <http://index.go.kr/> 에서 2016년 6월 1일 인출함.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에서 2016년 4월 20일 / 2016

년 6월 5일 인출함.

통계청 보도자료(2016. 2. 24.)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 p. 4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602&pageNo=8&rowNum=10&navCount 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602&pageNo=8&rowNum=10&navCount 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6년 6월 4일 인출함.

IBN 뉴스 기사(2016.05.13.). 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신만만 행복육아' 인천지역 토크콘서트 개최 (2016년 6월 3일 인출함)

G-Health. www.g-health.kr 에서 2016년 4월 20일 인출함.

부록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지

부록 2. 부모 대상 심층면담자 특성 및 질문지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지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 체계적인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육아정보 이용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선문1.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설문 중단

[로직 : 선문1=2 이면 설문 중단]

선문2. 자녀 중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설문 중단

[로직 : 선문2=2 이면 설문 중단]

선문3. 취학 전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1. () 명

[로직 : 선문3>0 이어야 함. 0명이면 경고창]

[경고창 문구 : 취학 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1명 이상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응답해주세요.]

[로직 : 선문3 > 4인 경우 확인창]

[확인창 문구 : 취학 전 자녀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로직 : 선문3의 응답값만큼 취학 전 자녀의 나이 응답 받음]

[예 : 선문3=2명 이면 선문4의 응답창 취학 전 자녀 1, 취학 전 자녀 2까지 구현]

선문4. 취학 전 자녀는 몇 살입니까? 반드시 개월을 확인하시어 만 나이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취학 전 자녀 1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 1세(12~24개월 미만) 3. 만 2세(24~36개월 미만) 4. 만 3세(36~48개월 미만) 5. 만 4세(48~60개월 미만) 6. 만 5세(60~72개월 미만)
취학 전 자녀 2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 1세(12~24개월 미만) 3. 만 2세(24~36개월 미만) 4. 만 3세(36~48개월 미만) 5. 만 4세(48~60개월 미만) 6. 만 5세(60~72개월 미만)
... SQ3의 명수만큼 응답하도록 함	

선문5.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3. 읍면동 ()

[추후 리코드 및 쿼터 관리 : 시도*시군구*읍면동 기준으로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분류]

※ 지금부터 제시되는 설문 내용은 모두 만 _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제시문 : ※ 지금부터 제시되는 설문 내용은 모두 만 _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로직 : 만 _세 는 선문4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응답값을 기준으로 띄워주시시오.]

[예 : 취학 전 자녀 1=㉓, 취학 전 자녀 2=㉕ → '만 4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I.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제시문 : I.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문1. 만 _세 자녀는 현재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단수]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4. 시간제 기타 학원
5. 이용하지 않음

[로직 : 문1=4 응답자만]

문1-1. 만 _세 자녀는 이전에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단수]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4. 시간제 기타 학원
5. 이용하지 않음

문2. 집이 아닌 기관에 아이를 보낸다면, 언제부터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 1세(12~24개월 미만)
3. 만 2세(24~36개월 미만)
4. 만 3세(36~48개월 미만)
5. 만 4세(48~60개월 미만)
6. 만 5세(60~72개월 미만)

[로직 : 문1=1,2,3 또는 문1-1=1,2,3]

문3. 만 _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아이가 처음으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다녔던 시기는 언제입니까?[단수]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만 1세(12~24개월 미만)
3. 만 2세(24~36개월 미만)
4. 만 3세(36~48개월 미만)
5. 만 4세(48~60개월 미만)
6. 만 5세(60~72개월 미만)

[로직 : 선문4의 만나이 <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개월 수 이면 경고창]

[경고창 문구 : 아이가 만 _세(_개월~ _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 개월 수가 나이 보다 많습니다. 다시 응답해주시요.]

문4.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만 _세 자녀를 돌보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단수]

1. 엄마
2. 아빠
3. 조부모
4. 외조부모
5. 친인척
6.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7. 사설 베이비시터
8. 기타

문5. 귀하가 만 _세 자녀를 돌보는 데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평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1. 하루 평균 () 시간

[로직 : 문1=1 또는 2인 경우, 문5 > 18 이면 확인창]

[확인창 문구 : 만 _세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응답하셨는데 아이를 돌보는 데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8시간이 넘는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로직 : 문5 > 24 이면 경고창]

[경고창 문구 : 응답값이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응답해주시요.]

문9. 만 _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단수]

1.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2.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3. 기저귀, 분유 등 양육필수품 비용이 부담된다
4. 교육·보육(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된다
5.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6.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7.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내 시간이 없다)
8. 체력적으로 힘들다
9. 수면이 부족하다
10. 기타()
11. 없음

문10. 만 _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아이와 외출했을 때, 가장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
[단수]

1. 아이를 데리고 갈 만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2.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
3. 아기의자, 영유아변기 등 아이를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4. 유모차 진입로, 수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5. 아이 동반으로 인한 주위의 시선이 불편하다
6. 기타 ()
7. 없음

문11. 만 _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봐주어서 나에게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면, 최소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하루 평균 () 시간

[로직 : 문11 > 24 이면 경고창]

[경고창 문구 : 응답값이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응답해주시시오.]

문1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월 111 ~ 24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육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다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월 () 만원

[로직 : 문12 >= 1000 이면 확인창]

[확인창 문구 : 월 10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13. 육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부모
2. 교육·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3. 국가
4. 기타()

Ⅱ.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제시문 : Ⅱ.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만족도]

문14.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육지원 정책들입니다.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지 또 이용해 본 경험은 있는지, 경험하였다면 그 만족 정도는 어떠한지 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이용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비용 지원	1) 가정양육수당									
	2) 만 0~2세 보육료									
	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 시간연장형 보육료									
	5) 시간차등형 보육료 (일시보육, 시간제보육)									
	6)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7)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8)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물품지원	9)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건강관련 관련	10)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11) 국가예방접종지원									
서비스 지원	12) 육아종합지원센터									
	13)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체험원)									
	14) 공동육아나눔터									
일.가정 양립지원	15) 출산 전.후 휴가									
	16) 배우자 출산휴가									
	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8) 육아휴직제도									

[로직 : (1) 인지여부=1 또는 2이면 (2) 이용여부 응답]

[로직 : (2) 이용여부 1 이면 (3) 이용 만족도 응답]

[로직 : 문1=1 이면 문14-2) 만 0~2세 보육료 (2) 이용여부=2 이면 경고창]

[경고창 문구 : 만 _세 자녀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반드시 만 0~2세 보육료 이용 여부에 1. 이용함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응답해주시시오.]

[로직 : 문1=2 이면 문14-3)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2) 이용여부=2 이면 경고창]

[경고창 문구 : 만 _세 자녀가 현재 유치원에 다닌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반드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이용 여부에 1. 이용함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응답해주시시오.]

문15.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비용지원(가정 양육수당, 보육료, 교육비 지원)
2. 물품지원(분유, 기저귀 등)
3. 건강관련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지원)
4. 서비스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5. 일·가정 양립 지원(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6. 양육정보 지원(부모교육제공)
7. 기타 ()

Ⅲ. 육아정보의 활용

[제시문 : Ⅲ. 육아정보의 활용]

문16.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육아 정보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 정보(훈육,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2.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보
3. 영유아 학습에 대한 정보
4. 영유아 놀이에 대한 정보
5.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
6. 영유아용품 구매에 대한 정보(육아용품 및 서적)
7. 기타 ()

문17. 육아 정보를 어디(누구)에(게)서 주로 제공받습니까? [단수]

1. 아이의 친조부모
2. 아이의 외조부모
3. 아이의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
4. 친구·이웃·동료
5.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등)
6.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7. TV, 라디오
8.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9.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10. 기타()

문18. 어디(누구)로부터 받은 정보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아이의 친조부모
2. 아이의 외조부모
3. 아이의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
4. 친구·이웃·동료
5.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등)
6.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7. TV, 라디오
8.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9.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10. 기타()

문19.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부모육아휴직 활성화
2. 사설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관리
3. 국가차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4. 수준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확충
5. 유아 교육·보육비(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확대
6. 어린이집·유치원의 운영시간 확대
7. 영유아 건강관련 지원 확대
8. 기타()
9. 없음

문20.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육아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양육관련 정보제공
2.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 포함)
3.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
4. 영유아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5. 또래맘 네트워크 구축
6. 가정 내 놀이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7. 기타()
8. 없음

IV. 영유아 및 가구 특성

[제시문 : IV. 영유아 및 가구 특성]

배문1. 만 _세 자녀는 몇 째 자녀입니까? 취학 전 자녀 뿐 아니라 전체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1. 첫째
2. 둘째
3. 셋째 이상

배문2. 만 _세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배문3. 만 _세 자녀와의 관계에 표시해주시시오.

1. 아빠
2. 엄마

배문4. 만 _세 자녀의 아빠, 엄마의 연령을 적어주시시오.

1) 아빠	2) 엄마
만 _____ 세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부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 없음

배문5. 만 _세 자녀의 아빠,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아빠	2) 엄마

1. 일 함
2. 일 안함

[추후 리코드 변수 생성 : 배문5 아빠, 엄마 모두 1. 일함인 경우 맞벌이, 둘 중 하나만 1. 일함인 경우 외벌이]

[로직 : 배문5=1 응답자만]

배문5-1.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1) 아빠	2) 엄마

1. 관리자
2. 전문가 및 준전문가
3. 사무업무
4. 서비스업
5. 판매업
6. 농림어업
7. 기능적 업무(가공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9. 단순노무
10. 군인.군무원

[로직 : 배문5=2 응답자만]

배문5-2.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아빠	2) 엄마

1. 주부
2. 학생
3. 무직
4. 은퇴자
5. 기타

배문6. 지난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 세후 월 () 만원

부록 II. 부모 대상 심층면담자 특성 및 질문지

<심층면담 부모 특성>

단위: 세

연번	구분	지역	연령	자녀연령	집단 특성
1	A	대도시	35	만 0-1세	전업주부
2	B	대도시	39	만 0-1세	전업주부
3	C	대도시	40	만 0-1세	전업주부
4	D	대도시	36	만 2세	전업주부
5	E	대도시	33	만 2세	전업주부
6	F	대도시	36	만 3-4세	전업주부
7	G	대도시	34	만 3-4세	전업주부
8	H	대도시	33	만 5세	전업주부
9	I	대도시	38	만 5세	전업주부
10	J	대도시	45	만 5세	전업주부
11	K	대도시	36	임신 6개월	임산부
12	L	대도시	34	임신 7개월	임산부
13	M	대도시	36	임신 6개월	임산부
14	N	대도시	32	만 2세	취업모
15	O	대도시	34	만 1세	취업모
16	P	대도시	40	만 4세	취업모
17	Q	대도시	42	만 4세	아버지
18	R	대도시	44	만 2세	아버지
19	a	농어촌	38	만 0-1세	전업주부
20	b	농어촌	34	만 0-1세	전업주부
21	c	농어촌	37	만 0-1세	전업주부
22	d	농어촌	28	만 2세	전업주부
23	e	농어촌	33	만 2세	전업주부
24	f	농어촌	36	만 2세	전업주부
25	g	농어촌	43	만 3-4세	전업주부
26	h	농어촌	39	만 3-4세	전업주부
27	i	농어촌	35	만 3-4세	전업주부
28	j	농어촌	34	만 5세	전업주부
29	k	농어촌	38	만 5세	전업주부
30	l	농어촌	32	임신 6개월	임산부
31	m	농어촌	40	임신 8개월	임산부
32	n	농어촌	33	임신 7개월	임산부
33	o	농어촌	40	만 4세	취업모
34	p	농어촌	38	만 5세	취업모
35	q	농어촌	34	만 5세	취업모
36	r	농어촌	42	만 4세	아버지

연번	구분	지역	연령	자녀연령	집단 특성
37	s	농어촌	36	만 5세	아버지
38	모1	대도시	33	임신 7개월	임산부
39	모2	대도시	29	임신 5개월	임산부
40	모3	대도시	33	임신 9개월	임산부
41	모4	대도시	35	만 0-1세	전업주부
42	모5	대도시	34	만 0-1세	전업주부
43	모6	대도시	30	만 0-1세	전업주부
44	모7	대도시	34	만 2세	전업주부
45	모8	대도시	34	만 2세	전업주부
46	모9	대도시	39	만 2세	전업주부
47	모10	대도시	37	만 3-4세	전업주부
48	모11	대도시	44	만 3-4세	전업주부
49	모11	대도시	35	만 5세	전업주부
50	모11	대도시	38	만 5세	전업주부
51	모11	대도시	38	만 5세	전업주부
52	모11	대도시	37	만 5세	취업모
53	모11	대도시	37	만 2세	취업모
54	모11	대도시	40	만 5세	취업모
55	부1	대도시	41	만 1세	아버지
56	부2	대도시	38	만 2세	아버지
57	부3	대도시	35	만 5세	아버지
58	모21	농어촌	34	임신 8개월	임산부
59	모22	농어촌	33	임신 7개월	임산부
60	모23	농어촌	40	임신 6개월	임산부
61	모24	농어촌	39	만 0-1세	전업주부
62	모25	농어촌	33	만 0-1세	전업주부
63	모26	농어촌	34	만 2세	전업주부
64	모27	농어촌	32	만 2세	전업주부
65	모28	농어촌	38	만 2세	전업주부
66	모29	농어촌	34	만 4세	전업주부
67	모30	농어촌	30	만 3세	전업주부
68	모31	농어촌	35	만 4세	전업주부
69	모32	농어촌	35	만 5세	전업주부
70	모33	농어촌	39	만 5세	전업주부
71	모34	농어촌	35	만 5세	전업주부
72	모35	농어촌	32	만 2세	취업모
73	모36	농어촌	41	만 1세	취업모
74	모37	농어촌	42	만 5세	취업모
75	부4	농어촌	40	만 4세	아버지
76	부5	농어촌	41	만 4세	아버지
77	부6	농어촌	43	만 4세	아버지

정책수요자 부모 대상 심층 면담

1.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녹음진행과정 동의 안내		
소요 시간	내용	
10분	사전 안내	오늘 면담은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도 및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오늘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나눈 모든 내용은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면담과정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시나요? (대답 확인 후 질의 시작)
2. 면담대상자 자기 소개		
	자기 소개	-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본인의 이름, 본인의 나이, 사는 곳(거주지), 본인의 직업(전업주부인 경우 주부), 자녀의 수와 현재 자녀의 연령을 이야기 해주세요.
3. 심층 면담		
60분	면담	<p><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p> <p>가.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떠합니까? 몇 시간 정도? 주로 도와 주는 일, 힘들어하는 일 -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견? -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p><input type="checkbox"/> (출산전 추가 질문)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주로 누구에게 도움 받을 예정입니까?</p> <p><input type="checkbox"/> (취업모 추가 질문) 어머니는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아버지 추가 질문) 아버님은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주로 육아 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p> <p><input type="checkbox"/> (아버지 추가 질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p> <p>나. 육아에의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행복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까? -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를 기르는 일에 만족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를 기르는 일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매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p><육아에의 어려움(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 영유아와 동반 외출 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 전담하여 돌보는 엄마의 시간을 위해 잠깐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freshment 기능을 할 대리 보육에 대한 의견

		<p><input type="checkbox"/> (취업모 추가 질문) 맞벌이 상황에서 육아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구체적 상황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p> <p><input type="checkbox"/> (출산전 추가 질문) 임신기간 중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건강, 경제적 문제 등)</p> <p><input type="checkbox"/> (출산전 추가 질문) 출산 후 육아상황을 가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p> <p><자녀의 기관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시작 시점? 그 이유는? - 실제 이용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기관 선택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p><육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육아 정보가 필요한가요? - 육아정보 어디서(또는 누구) 주로 얻나요? - 육아정보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을까요? <p><input type="checkbox"/> (출산전 추가 질문) 부모됨의 준비과정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비부모교육 수료, 관련 서적 탐독 등)</p> <p><육아지원 정책 인지 이용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 육아 정책 중 경험한 것은? - 가장 유용하게 느껴진 것은 무엇인가요? <p><input type="checkbox"/> (아버지 추가 질문) 육아휴직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추가 질문)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버지 추가 질문)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는 어떠합니까? - (아버지 추가 질문) 재 양육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p><input type="checkbox"/> (취업모 추가 질문) 어머니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모 추가 질문)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경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취업모 추가 질문) 지원하는 제도 중 추가 지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p>
<p>4. 면담 마무리</p>		
<p>5분</p>	<p>마무리 인사</p>	<p>- 면담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면담을 마치겠습니다.</p>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16-01
수탁보고 2016-02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발행일 2016년 6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3,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5567-144-3 03300